

2018경기천년 기념 특별전III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고려도경 高麗圖經



G[🍵]ryeodogy[👤]yeong A[🐎] Visit[🍶] to[👤] C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Ⅲ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Ⅲ

고려도경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Goryeodogyeong A Visit to K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고려도경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Goryeodogyeong A Visit to C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2018.07.26 - 10.21

전 시

전시총괄 박희주
전시기획 이소희 한준영
전시담당 한준영
전시지원 김영미 이지희 정미숙 전익환 조현이 문중삼
전시홍보 이지희 김진아
전시조명 이석주
전시행정 이명근 최동욱
전시자문 홍영의국한대학교 박재우 김대식이상 성균관대학교 한세선 가톨릭대학교
전시실개 박종진
전시시공 tofn
영상제작 박재성
일러스트 원작 강민경 국립중앙박물관 강혜원

도 록

도록담당 이소희 한준영
도록원고 한준영 김영미 조현이
전문가 집필 김대식 성균관대학교 김병인 연세대학교
문경호 광주대학교 박종기 국민대학교 윤성재 숙명여자대학교
이진한 고려대학교 장남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은정 부산대학교
채용석 가톨릭대학교 최웅천 동국대학교 한세선 가톨릭대학교
이명은 정미숙 전익환 이상 경기도박물관

유물사진 한창영
영문번역 김영진
편집디자인 tofn
인쇄 및 제책 J.B D&P

유물 대어 (大器)

가천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영지대학교 박물관,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실학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인천시립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의학박물관

이미지 및 자료 제공 (大器)

고려대학교 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군산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대안고궁박물관, 리움미술관, 북경고궁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서울역사박물관, 이동천, 장지영, 호림박물관

알려두기

이 책은 2018년 7월 26일부터 10월 21일 까지 경기도박물관이 주최한 <고려도경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특별전의 도록이다.
도판 겹선은 명칭(호, 연, 연, 시대, 규격, 소장처, 출토지, 소장번호, 지정번호 등의 순서로 표기함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유물 자체의 특성에 맞추어 표기하였다.
유물 자체의 크기는 '세로(높이) x 가로(cm)'를 원칙으로 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식으로 표기하였다.
소장처가 명시되지 않은 유물은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이다.

목차 CONTENTS

- 006 연표 지도
- 008 프롤로그 - 경기천년과 고려도경
- 010 I. 서금의 『고려도경』
- 030 II. 수도 개경
- 048 III. 고려인의 생활문화
- 138 IV. 비색청자와 세밀가귀
- 152 에필로그
- 154 참고문헌
- 156 논고
- 173 도판목록
- 178 전시사진



Holding an Exhibition

As this year marks '1,000 Years of the Name of Gyeonggi' and '1,100 Years of the Foundation of Goryeo Dynasty',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 exhibits specially celebrating it entitled *Goryeodogyeong - A Visit to K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Goryeodogyeong was a book written in 1123 by Seo Geung, a Chinese envoy of Song Dynasty, who visited Goryeo and detailed the life of the capital of Goryeo. Through the book, he introduced the various customs of Goryeo and the artifacts and expressed them as 'a civilized and polite country.'

When Seo Geung visited Goryeo in the 12th century, this country was a period of 'crisis and prosperity.'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East Asia was based on the superiority of power in Song Dynasty and Goryeo, Northern Khitan and Jurchen were competing or united depending on each other. Despite external difficulties, Goryeo has continuously developed the original culture by accepting the advanced cultural goods through active foreign trade and by selecting skilled artisans.

Internally, the aristocratic culture of Goryeo reached its peak with various systems being reorganized and economic power increasing.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Goryeo Dynasty, which has been consistently produced since the early Goryeo period, such as 'Tripitaka Koreana (printing woodblocks of Buddhist texts)', 'Buddhist Drawings', 'Celadons', and 'Metalwork' were already in its production. At the beginning of production, Gyeonggi Province was at the center.

The exhibition collected about 200 artifacts related to the contents mentioned in *Goryeodogyeong*. The exhibition centered on cultural properties that developed during the post-war period including the relics of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Not everyone is representative of Korea, but it will not be enough to feel the essence of Goryeo culture. We also introduced the collection of Gyeonggi Provincial Museum which was not open to the public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is exhibition, we can feel how Chinese people view and evaluate Goryeo and how the culture of Goryeo was able to embrace and fuse with diverse ideas and cultures, thus making us proud.

We sincerely appreciate the various organizations and the people concerned who cooperated with the exhibits and materials for the fair exhibition.

2018.7

Gyeonggi Provincial Museum Director Park Hee Joo

특별전을 개최하며

올해는 '경기 정명 1000년'이자 '고려 건국 1100년'을 맞는 해로,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 <고려도경(高麗道境)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를 개최합니다.

「고려도경」은 1123년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여 직접 보거나 모은 정보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서긍은 고려의 풍속과 문물 등을 소개하면서 '문물이 발달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방문한 12세기 무렵의 고려는 '위기와 변영'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동아시아는 송나라와 고려, 북방의 거란족과 여진족 등이 서로의 상황에 따라 대립 또는 연합을 반복하면서 복잡하고 팽팽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유연하고 실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며 활발한 대외무역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능력 있는 장인을 발탁하여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각종 제도가 정비되고 경제력이 증가하면서 고려의 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전기부터 꾸준히 제작되어온 '대장경', '불화', '비색창자', '금속공예' 등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수준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제작의 시작점에는 경기도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고려도경」과 관련된 유물 약 200점이 선보입니다. 당시 서긍이 보았던 12세기 전반의 유물을 포함하여 그 전후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구성하였고,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경기도박물관 소장품도 최대한 소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중국인의 눈에 비춰진 고려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고려의 문화는 어떻게 다양한 사상과 문물을 받아들이고 융합하여 꽃피울 수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경기도박물관장 박희주

고려시대 연표

	918	고려 건국 (918~1392)		
발해 멸망	926			
	935	신라 멸망		
북송 건국	960			
	962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기 시작		
거란의 침입, 서희의 외교담판	993			1124 서균 「선화봉사고려도경」 완성
	994	거란, 협공 제의를 거절한 송과 국교 단절	요나라 멸망 (916~1125)	1125
거란, 제2차 고려침입	1010			1126 이자겸의 난
	1011	초조대장경 조판 시작	북송 멸망 (960~1127)	1127
거란의 재침입	1014			1135 묘청의 난
	1018	경기(京畿) 명칭 등장	김부식 「삼국사기」 편찬	1145
김감천, 거란 격파 (귀주대첩)	1019			1146 인종 사망, 문종 즉위
	1038	거란과 관계 정상화	무신정변	1170
송과 외교 재개	1071			1196 최씨 무신정권 수립
	1086	교정도감 설치 (홍왕사)	원나라 건국	1206
의천 「속장경」 조판 시작	1090			1231 몽골, 제1차 침입
	1108	윤관, 여진 정벌 지역에 9성 구축	감화 천도, 몽골, 제2차 침입	1232
거란의 금나라 협공 제의 거부, 금나라 건국	1115			1234 금수할자 「상형고금예문」 간행, 금나라 멸망 (1115~1234)
	1122	예종 사망, 인종 즉위	계경천도	1270
송나라 사절단 개경 방문 (6.13~7.15)	1123			1279 남송 멸망 (1127~1279)
			일연 「삼국유사」 편찬	1281
				1368 원나라 멸망 (1271~1368)
			「직지심체요절」, 금수할자 인쇄	1377
				1388 이성계,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1392

고려도경 高麗圖經과 경기천년 京畿千年

박종기 국민대학교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고려도경」]은 서궁徐兢, 1091-1153년이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으로 1123년 고려 인종¹ 고려를 방문하여 약 한 달간 수도 개경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서궁은 송나라 휘종², 1100-1125년 재위 황제에게 고려의 실상을 보고하기 위해 이 책을 편찬했다. 내용은 모두 29항목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29항목은 다시 약 3백 개의 세부 항목³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궁은 이 책의 서문에서 사실을 설명할 경우 글을 써서 설명을 붙였고, 사물의 경우 그림을 그렸다고 했다. 즉 「고려도경」의 「도경圖經」은 서궁이 견문한 고려에 관한 약 3백 개의 세부 항목에 대해 사물은 그림을 그리고⁴, 그 사실은 설명하는 글⁵로 썼다는 뜻이다.

서궁은 귀국한지 1년 만에 책을 완성해 1124년 송나라 황제께 바쳤다. 그러나 2년 후 금나라가 송나라를 침입하면서 분실되었다. 서궁이 갖고 있던 다른 한 책도 이 무렵 분실되었다. 이 책은 뒤에 발견되었지만, 그림 부분은 극히 일부 「해도海道」의 2권만 남아 있는 불완전한 것이었다. 서궁은 끝내 없어진 그림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사망했다. 아쉽게도 현재의 「고려도경」은 그림 부분⁶은 없고, 설명을 붙인 글 부분⁷만 남아있다.

그런데 왜 「경기천년」의 시점인 오늘에 「고려도경」에 주목하는 것일까? 「경기」가 신설된 1018년⁸은 고려왕조 건국 백 주년이 되는 해이자, 거란의 10만 대군을 격퇴해 고려-거란의 30년 전쟁이 종결되어 왕조 최대의 위기가 해소된 뜻깊은 해이다. 주변 12개 군현을 편입시켜 개경의 영역을 확장해 「경기」를 신설했다. 외적에 의해 수도가 함락된 치욕을 되풀이 하지 않고 개경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신설된 경기지역을 왕실과 조정의 직할지로 삼아 이곳의 조세와 생산물을 핵심 지배층에게 공급하게 해 경제적 안정을 보장했다. 건국 백 년이 되는 해 경기 설치는 이같이 수도 개경의 면모를 일신하고 왕조를 중흥⁹한다는 상징성을 갖는다.

서궁이 「고려도경」을 저술한 1123년은 「경기」가 설치된 지 약 백 년이 되는 시점이다. 이 무렵 고려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그 서막을 연 국왕은 문종 1046-1083년 재위이다. 1071년¹⁰ 고려는 50년 만에 송나라와 외교관계를 재개한다. 두 나라 사이의 활발한 교류는 예종 치세 1105-1122 재위까지 약 50년 간 이어진다. 이 기간 고려는 중국의 선진 문물과 제도를 수용해 고려왕조를 크게 도약시킨다. 문종에서 예종까지

의 11세기 말 12세기 초는 정치세력의 조화와 균형, 안정적인 대외관계, 넉넉한 재정과 민생의 안정, 만개한 문화 등 고려의 정치·경제·문화가 절정기에 도달한 시기이다.

『고려도경』은 경기 설치 백 년 후 고려왕조가 도달한 문화와 문명 수준이 외국인의 눈으로 정리된 책이다. 참고로 40권의 『고려도경』을 필자 나름대로 그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각 항목 안 숫자는 권수).

- 1) 왕실 궁전 도성(7권) [건국 세차世次 성읍 문궐門闕 궁전宮殿 2권 관사館舍]
- 2) 중앙 관청(6권) [관복冠服 인물 의물儀物 2권 병기兵器 관부官府]
- 3) 종교 풍속 사회제도(7권) [사우寺宇 도교 및 석씨釋氏, 이상 1권 민서民庶 부인 조예阜隸 잡속雜俗 2권]
- 4) 시대와 제사 의례(9권) [장위仗衛 2권 병기兵器 기치旗幟 거마車馬 절장節仗 수조受詔 연례典禮 공장供帳 2권]
- 5) 기술 문명(11권) [기명器名 3권 주읍舟楫 해도海都 6권 동문叢文]

위와 같이 『고려도경』이 대상으로 한 공간은 수도 개경 중심의 '경기'지역이다. 수도 개경의 왕실과 궁전, 중앙의 여러 제도와 관청, 조정에서 행해지는 각종 의례 등이 대부분 수도 개경 즉, 경기지역의 역사 공간을 대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도자기, 금속공예, 선박, 해로 등 고려의 다양한 제조기술과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실려 있다. 경기만을 중심으로 송나라 명주에서 수도 개경에 이르는 해로 등에 관한 기록은 해양강국 고려의 실상을 밝혀줄 좋은 자료가 된다.

『고려도경』은 경기 설치 백 년 후 이룩한, 고려 전성기의 역사와 문물을 외국인의 눈으로 기록한 매우 의미 있는 저술이다. 때로는 송나라 우월주의 입장에서 고려를 비하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고려에 대해 잘못 기술한 내용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부족한 고려왕조사 연구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귀중한 문헌이다. 아울러 이 책은 〈천 년 경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I 서금의 「고려도경」

원래 제목은 「선화봉사고려도경 宣和奉使高麗圖經」이며 줄여서 「고려도경」이라고도 한다. 북송 휘종 황제의 명령으로 1123년 고려를 방문한 사절단의 일원이었던 '서금'이 보고 들은 것을 그림과 글로 적은 전문 보고서이다. '선화'는 휘종의 연호이며, '도경'은 그림과 함께 글로 설명한 문서를 뜻한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당시 고려 사회를 생생하게 기록한 「고려도경」은 고려사 연구에 빼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책이 쓰여진 12세기 전반은 주변 이민족을 견제하려던 송나라에게 있어 고려와의 외교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송의 황제는 예종의 조문 冊封을 핑계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하여 고려를 포섭하고자 하였지만, 한 달 간의 체류에도 별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비록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서금은 황제의 명을 받아 특별히 데려간 사절단원을 동원하여 고려사회의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출장 보고서가 「고려도경」이며, 결국 휘종이 고려의 정세와 풍속 등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Goryeodogyeong by Seo Geung

The name of the book, Goryeodogyeong, is well known. It takes a significant part in the study of Goryeo history as it vividly documented Goryeo society from the Chinese perspective. The early 12th century, when the book was written, was a very important period for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Goryeo and Song Dynasty in the midst of chaotic international situation. The emperor sent a large delegation to the Goryeo Kingdom on the pretext of his condolence, but he also had to return empty-handed to his a month-long stay. Although the original purpose was not achieved, Seo Geung collected all the information available for the meeting by mobilizing mission members specially taken under the orders of the emperor. Based on this, he could write a business trip report called Goryeodogyeong and devoted it to his emperor.



서공의

『고려도경』

“... 신서공이 쓴 『고려도경』을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훑으면
먼 나라 고려의 일이
모두 눈앞에 모여 있으니...”

今臣所著圖經 手披目覽 而遐聞異域 舉草於前
·序文

“휘종은 『고려도경』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서공을) 궁전으로 불러
높은 벼슬을 내리었다.”

今臣所著圖經 手披目覽 而遐聞異域 舉草於前
·序文



『고려도경』 서문에 보면 서공은 사신의 직분 중 ‘천하 지도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급선무로 꼽을 만큼 고려에 방문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황제가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의 역사와 제도, 문물과 풍습을 ‘두루 묻고 알아보아 기록’하는 것이었다. 고려에 머무는 동안 그는 ‘이목여귀’에 닿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300여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손으로 펼치고 눈으로 훑으면 먼 나라의 일이 눈앞에 모여 있는’ 것처럼 꼼꼼하고 생생하게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 하였다. 그러나 체류기간 동안 숙소에서 대어섯 번 밖에 벗어난 적 없는 서공이 ‘고려의 사정 면면을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히 선발된 58명의 사신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보수집에 능숙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서공이 『고려도경』을 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고려도경』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고려 사회를 직접 보고 쓴 당대의 기록물로, 현존 사료 중에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장 자세히 기록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이 책의 초판본은 총 40권으로 구성되었으며, 29개의 주제와 301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본문은 권1~2에서 고려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를 설명하고, 권3~6까지 개경의 시설과 궁궐, 권7과 권16에서 관복과 관부, 권8에서 주요 인물을 다루었다. 이어서 권9~15까지는 의례와 의장 용품, 권17~18은 종교, 권19~23은 고려사회 여러 계층의 풍속, 권24~26은 사절단의 공식 행사, 권27~32는 사절단의 숙소와 생활용기, 권33~39는 사절단이 오간 바닷길과 고려의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권40에서는 중국과 동일한 문물을 설명하였다. 여기에 서공이 지은 서와 조카 서천이 지은 발해 등이 함께 실려 있다.

서공은 1124년 『고려도경』을 만들어 한 부는 황제에게 바치고 다른 한 부는 자신이 보관하였다. 하지만 1127년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하면서 원본은 없어지고, 10년 뒤 조카 서천이 그림은 없고 글 일부만 남은 『고려도경』을 발견하였다. 1167년 송 효종 건도(建道) 서천이 다시 판각하고 장강군(浙江郡) 강유(姜維)에 보관하여 이를 초판본 또는 장강본·건도본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초판본은 한동안 전해지지 않고 대신 필사본이 유행하였는데, 청나라 때 발행된 사고전서본(四庫全書本)과 지부족재총서본(知不足齋叢書本)이 유명했지만 틀리거나 빠진 곳이 많다는 단점이 있었다. 다행히도 1925년 고궁박물관에서 궁중 장서를 정리하다가 그림이 없는 초판본이 다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 초판본의 영인본이 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본

宣和奉使高麗圖經 初版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

송(元) 1167년 | 대안고궁박물관

1931년 북경 고궁박물관에서 한 점이 발견되어
『선화봉사고려도경』에 수록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대안고궁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 영인본

宣和奉使高麗圖經 初版影印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 (Replica)

송(高) 1167년 | 25.1 × 16.8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화봉사고려도경 지부족재본

宣和奉使高麗圖經 知不足齋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 (Woodblock-printed Book)

청(淸) 1774-1823년 | 19.2 × 11.5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정나라 때 포항박이 편찬한 『지부족재총서』에 『고려도경』이 실리면서 다시 알려졌다. 내용에 오탈자와 오류가 많았지만 초판본을 대신하여 널리 유행한 판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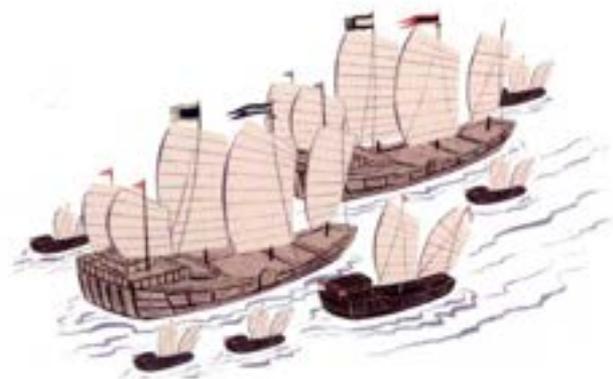
“서궁은 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가,
그림으로 시를 짓는 것인가”

明叔 詩寫畫耶 畫寫詩耶
·行狀

『고려도경』을 지은 서궁

서궁 西宮, 1091-1153은 화주 역양 和州 歷陽, 현 안동시 安東市 출신으로, 다른 이름(字)은 명숙 明叔이었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배물기를 좋아했다.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글씨와 그림을 보면 좋아서 필필 뛰었다고 한다. 실제로 글씨와 그림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특히 그림은 산물 山物, 악물 物, 擘窠 擘窠의 경지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낙방하여 결국 아버지의 덕으로(유씨) 관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여러 벼슬을 거치다 1122년에는 서궁의 재능을 높이 산 사신단의 대표 노윤적이 추천하여 고려 국신사 國信使의 일원으로 뽑히게 되었다.

서궁은 사절단에서 인원과 선박 및 예물 등을 관리하는 '도할인선예물 都察人船物物官'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서열 4위에 해당하는 상절 上節 신분이었다. 1123년 고려를 다녀온 후 1년간 자료를 정리하여 『고려도경』을 제출하였는데, 휘종은 크게 기뻐하였다. 서궁에게 '동진사출신 東進使出身'을 하사하고 '지대종정승사 겸장서학 知大正宗正書兼掌書學'에 발탁하였으며 '상시형부원의랑 尙書刑部員外郎'으로 옮기게 하여 출세길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서궁은 재상 채경이 면직 당했을 때 그와의 친분을 이유로 다시 지방직으로 좌천되어 전전하다가 세상을 마쳤다.



고려도경의 내용과 사학사적 가치

이진한 고려대학교

「고려도경」의 편찬 경위

「고려도경」은 고려 인종 때인 1123년에 중국 송나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공이 한 달여 동안 머물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그림과 글로 남겨두었다가 귀국한 뒤 약 1년에 걸쳐서 정리하여 편찬한 북명서(北名書)이자 견문기이다. 총 4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에 따라 29개의 분야로 나뉘고, 다시 301개의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본래 고려는 거란과의 3차 전쟁을 마친 뒤 요제(耶魯) 세운 나라이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그 의무를 다해왔으나 12세기 들어 점차 그 세력이 약해 지는 것을 알고, 1116년에 책봉관계를 중지하였다. 이에 1122년에 송은 고려가 중국의 송·요·금 어느 나라와도 사대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으므로 고려를 실득하여 책봉국으로 삼기 위해 국신사 파견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고려 예종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자, 1년 늦추어 그 다음해 예종을 제사하고 인종을 위로하는 사절을 보냈고, 서공은 사행단의 인물·예물·배를 관할하는 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때 서공은 현지 상황을 파악해서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황제가 현지 사정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는 '자순책(自順冊)'이라는 사신의 전통적 역할을 겸하게 되었다. 그가 고금의 전적에 대한 이해가 깊고 서법과 산수화·인물화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빨리 그려내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에서 보고 들은 것들

서공은 임무를 부여받은 뒤에 그 보다 앞서 고려를 다녀갔던 왕은(王溫)이 찬술한 「계림지(峴林志)」와 더불어 중국인들이 고려의 전왕조라고 알고 있던 고구려에 관련된 문헌 등을 읽고 고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쌓았다. 이어 고려를 향해 출발을 준비할 때부터 귀국하여 사명을 마칠 때까지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그림을 그리고 기록해 두었다가, 40권의 책으로 만들어 송 황제에게 바쳤던 것이다. 그 내용은 역사(歷史), 왕실의 계보(世系), 궁성과 도읍(都邑), 왕성의 문(門), 궁전, 관복, 인물, 의식용 물품(禮物), 의장과 호위(扈衛), 병기 여러 것(兵器), 수레와 말, 관부, 사우, 백성, 부인, 조례, 사신행차, 조서를 받는 일, 연회, 사신의 숙소, 장막, 그릇, 배, 바닷길(海道), 같은 문물(文物)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서공은 「고려도경」 2부를 만들어 하나는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는 자신이 보관하였는데, 1127년에 금이 송의 도움을 침입하여 두 황제를 사로 잡아가는 '정강의 변'이 일어나 북송이 멸망하면서 책의 행방이 묘연 해졌다. 이후 10년 뒤에 조카 서천(西天)이 홍주(洪州) 현재(현재의 김서성 남양현)에서 책을 찾아냈으나 아쉽게도 그림은 없어지고 문장만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것이 간행되어 현재에 전하고 있다.

「고려도경」의 사학사적 가치와 사료로서의 한계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편찬자들이 「고려실록」이나 문집과 같은 전 왕조의 자료에서 취사 선택을 한 2차 또는 3차 사료인데 반하여 「고려도경」은 1123년에 사행을 마치고 불과 1년 후에 견문한 것을 적은 것이어서 1차 사료적인 성격이 있다. 그와 더불어 「고려도경」은 정사류 및 고승비문이나 묘지명 등과 함께 고려시대 연구에 기본 자료로서 위상을 갖고 있으며, 12세기 초 고려의 상황과 고려 사람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그리고 한국고대사와 고려시대사는 중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역대 중국 정사의 고려전이 귀중한 사료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대체로 사행을 통해 얻은 정보가 정리된 것이므로 「고려도경」은 그 원천 사료의 형태를 전해주고 있다. 게다가 서공이 고려와 고구려를 구별하지 못할 만큼 중국인들이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 제도, 사건 중심의 정사류에 없는 도시사, 여성사, 생활사, 해양사, 신분사 등에 관한 귀중한 사료가 「고려도경」에 있어서 사서로서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고려」에 있는 지도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객관이 주어진 뒤에는 바로 병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무릇 객관을 나간 것이 대어섯 번에 불과 하였다'는 기록에서 드러나듯이 서공이 고려에 와서 직접 본 것은 대부분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각종 영접 의례 등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서공이 만난 사람들이나 함께 간 벗사람들로부터 물어서 들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묘사는 매우 세밀하고 신빙성이 높는데 반하여 후자는 간접적이므로 소략하고 부정확한 사실도 섞여있을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고려도경」에서 고려국왕의 세계가 틀린 것은 송이 갖고 있던 자료가 부실했던 데 기인한 것이며, 문물·궁전·관복 등에서 잘못된 사실이 있는 것은 견문하여 적은 것들을 검증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도경」을 연구에 활용할 때는 반드시 「고려사」 등과 비교 검토하여 그 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료 비판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고려시대사 연구의 기본 문헌으로서의 가치와 사학사적 의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지는 않는다.

12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 지금은 요의 운명이
이미 다하였으니 송의 조정애
책봉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려사, 인종 원년 6월
(사절단 대표 노윤직이 인종에게 송의 책봉을 요청할 것을 재언)

서궁이 방문했던 12세기 전반의 동아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치열한 외교 전쟁을 펼치고 있었다. 이 무렵 주변 이민족을 견제하려던 송나라 황제는 고려와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사절단의 방문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결국 송의 책봉관계 복원과 군사요청 등을 완곡하게 거절하였다. 송나라와 주변 국가 사이에서 명분보다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고려는 결과적으로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보다 오랜 기간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불어 외교 정세와 관계없이 상인을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을 활발히 하여,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융합하여 고려문화의 절정기를 맞게 되었다.



척경입비도

拓境立碑圖

조선 후기 | 고려대학교 박물관

1107년⁸² 윤관과 오연흥이 여진족을 정벌한 뒤, 함경도 일대에 동쪽9성을 쌓고 선종⁸³에게 '고려지경⁸⁴'이란 비석을 세우는 장면을 담은 기록화이다.

Red seal impression with Chinese characters in seal script, likely a collector's or owner's mark.





황고자본

휘종 어진

徽宗 睿眞

대안고궁박물관

고려에 사절단 파견을 명했던 휘종재위 1100~1125은 도교와 예술에 관심을 입었던 북송의 8대 황제이다. 시와 회화를 좋아하고 예술가로서는 뛰어났지만, 정치는 무능했고 사치로 국고를 고갈시키면서 결국 북송의 멸망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인종은 용모가 준수하며
 몸집은 작았지만
 자태가 넉넉하고 풍채가 있었다.
 성품이 지혜롭고 배운 것이 많았다...
 사절단이 왔을 때 의례를 거행하는데
 나아가고 물러나는 행동이
 성인처럼 여유가 있었다.
 그는 고려의 어린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權胤字政秀 形短而貌豐 肉勝於骨 性慧多學...
 受詔拜表 行燕養禮 升降進退 紳有成人之風 亦宜爲東夷之賢王也
 - 卷2 世次 高麗國王 仁宗[王權]

인종(仁宗, 1122~1146 재위)은 고려의 17대 왕으로 예종의 맏아들이다.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의 도움을 받아 왕이 되었고, 왕이 된 후 외할아버지의 딸 2명을 왕비로 맞으면서 이자겸은 다시 장인(丈人) 관계가 되었다. 이후 이자겸이 권력을 독점하고 함부로 휘두르자 인종과 불륜해졌으며, 마침내 인종은 다른 귀족세력을 이용하여 이자겸의 난을 진압하였다. 1135년에는 서경의 귀족세력이 묘청의 난을 일으키자 김부식을 시켜 평정하였다. 1146년 향년 38세로 사망(薨逝)하였으며 도성 남쪽에 왕릉을 마련하고 장릉(莊陵)이라 하였다. 서경은 인종을 중국의 봉치 이념을 따르는 왕으로 보았다. 최측근이었던 김부식은 인종이 죽은 후에 “덕과 은혜로 백성을 편안하게 했고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평하였다. 이는 송과 금 사이에서 유연한 외교로 실리와 안정을 꾀한 인종의 업적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매년 즐거이 금나라에 맹서하니
 변경에는 아무런 우환이 없게 되었다.”

遂能世結歡盟 邊境無虞
 <고려사> 권17 세기 인종24년 김부식의 讚

인종은 재위 후반기에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과의 국교를 끊고
 강해진 금의 신하가 되어
 고려의 안정을 꾀했다.



고려사 권17
 高麗史 卷十七
 Goryeo History Book vol.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종 장릉 출토품
仁宗 長陵 出土品

12세기 고려문화의 절정기를 보여주는 청자 참외모양 병으로 비색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12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려

채웅석 가톨릭대학교

11세기 이래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군사력이 우세한 거란·요과 경제·문화 강국인 송이 대립한 가운데 고려와 서하가 균형추 역할을 하여 대체로 평화를 유지하였다. 고려는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은 뒤에 송과 외교를 단절하였지만 민간 교역은 활발하게 유지하였다.

이처럼 세력 균형을 이루어 안정적이던 국제정세가 11세기 후반부터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송은 평화를 얻는 대가로 거란에 주는 *세폐(歲幣)의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거란이 차지한 영토(연로(16주)의 수복을 염원하던 차에 *신법당이 집권하여 부국강병을 목표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고려와 동맹하여 거란을 제압하려는 정책을 폈다. 마침 고려도 국왕 중심으로 리더십을 강화하고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거란에 대한 사대에 치중해온 외교를 변화시키려고 하였다. 1068년에 송에서 먼저 외교 재개를 타진하였고, 고려가 호응하여 1071년(熙寧 25)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를 복구하였다. 고려는 그 뒤에도 여전히 거란과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송도 고려에 책봉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그에 따라 국제정세는 비교적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렇지만 12세기에 접어들어 여진의 완안부가 세력을 키우면서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하였다. 1104년(熙寧 36) 고려가 여진을 누르기 위하여 징벌하였으나, 기병의 열세로 실패하였다. 이에 별무반을 조직하여 1107년(熙寧 39)에 다시 징벌을 단행하여 동북9성을 개척하였다. 그렇지만 여진의 계속된 공세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워지자 여진으로부터 복종을 명세 받고 할수하였다. 이후 여진은 거란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방어하기 어려웠던 거란이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고려는 응하지 않았다. 기세를 키운 여진이 1115년에 금을 건국하여 10년 뒤에 거란을 멸망시켰다.

그 무렵 신법당이 집권하던 송은 고려나 금과 동맹하여 거란을 협공하고 실지(失地)를 수복하려고 시도하였다. 1123년(熙寧 55)에는 황제가 친히 지은 제문을 고려 예종의 국상에 보내 조문하는 후의를 보이면서 책봉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서금이 사신으로 온 것이 바로 그 때였다. 그런 동맹 시도에 대하여 고려는 국제관계상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여러 경로로 송에 우려를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금과

동맹하여 직전을 펴는 과정에서 송의 전략적 오류와 군사력의 부실이 드러났다. 금은 거란을 친 다음 송을 공격하여 1127년에 수도를 점령하고 황제를 사로잡았으며, 이에 남쪽으로 피한 세력이 남송을 건립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송은 금과 동맹하여 거란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금에게 화북을 뺏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은 고려에 무력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외교적으로 압박하였다. 금이 산하의 예를 요구해오자, 1126년(熙寧 58) 4에 고려 조정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이지겸세력의 주장에 따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송과 거란, 거란과 금, 송과 금의 대결 과정에서 각국은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으며, 외교 방안은 국내 정치세력을 가르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예컨대 고려 조정에서는 여진과 무력 대결을 불사하지는 강경파와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온건파가 대립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에 사대하여 평화를 지키게 되었다. 비록 과거 북쪽했던 여진에 굴힘으로써 국가 위상이 손상되더라도 평화 공존하자는 것이 당시 집권세력의 전략이었다.

남송은 고려를 이용하여 금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1128년(熙寧 60) 남송은 금에 불합리한 송의 황제를 구출하려 금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빌려달라고 고려에 요청하였다. 그렇게 되면 고려와 남송이 밀착한다고 금이 의심할 수 있고 또 길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로서는 허용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남송은 고려를 이용하여 금을 견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후 외교에 소극적이 되었다. 고려도 금과의 관계 안정을 우선시 하였으며, 1170년 무신정변 이후로는 남송과의 외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폐: 상대국에 보내는 공물

*신법당: 송국 북송 신종에 왕안석의 주창한 부국강병적인 신법을 추진하던 당파

송나라 사절단의 구성과 입국

“중국조정에서
인재를 엄격히 선발하여
천자의 명령으로 고려를 어루만졌으니
그 융숭한 은혜와 두터운 예의는
전에 없던 일이다.”

譯在廷 將命撫綏 恩隆禮厚 前未之有 - 序文

“중국사신의 배가 항구에 닿으면
고려군사들이
칭과 북을 울리며 환영하고,
황제의 조서를 호위하면서
사람들을 맞아 벽란정으로 들어간다.”

神角旣抵岸 兵衛金 迎傳詔書 入于亭 - 卷27 客館 碧園亭

송나라 황제 휘종은 고려와의 화친을 위해 역대 최대의 사신단 파견을 명령하였다. 1123년 5월 16일 당시 세계 제일의 배였던 신주 2척을 포함한 총 8척의 배와 158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 규모의 사신단은 명주를 출발하였다. 사신단 일행은 황해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바다에 부적을 던지기도 했으며, 밤에는 송나라가 발명한 나침반을 이용하면서 고려 영해로 진입한 후 서해연안을 따라 이동하였다. 배가 군산도에 이르자 접반관 김부식이 마중을 나와 환영하였다. 이후 마도와 자연도 등에서 고려 사신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였다.

6월 12일, 26일간의 항해 끝에 사신단은 예성항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1만이 넘는 환영인파는 예성항을 둘러싸고 있었다. 고려군은 30m가 넘는 깃발 10개를 들고 화려한 중장기병과 의장대를 앞세워 화려하게 늘어서 사신단을 맞이하였다. 사신단은 벽란정에서 하루를 묵은 후 다음날 신기를 댄 앞에 세운 2만 여명의 행렬을 따라 수도 개경에 입성하였다. 이 사신 행렬은 고려 최정에 용호군 소속의 기병대를 비롯하여 1만 여명의 화려한 의장단이 선도하였고, 많은 양의 예물과 황제의 조서 등을 지닌 사신단이 뒤를 따라 이동하였다.

사신단은 국신사 노윤적을 대표로 그 아래 상절, 중절, 하절의 3단계로 구성되었다. 보통 사절단에서 하절은 호위 병사 위주로 구성되지만, 이번 방문에는 전문 기술과 그림을 잘 그리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송대하절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방문 기간 동안 고려의 풍습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기록하여, 「고려도경」을 편찬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煌玉昌天銘鏡

Bronze Mirror with Inscription of '煌玉昌天'

고려 | 지름 17.2 | 소장 1945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이라는 글자를 뒷면 위쪽에 새긴 청동 거울이다. 거울 뒷면에는 넘실대는 물결이 가득하고 그 위를 항해하는 배, 거의 수평으로 뻗어있는 배의 깃발, 배 안의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 거울 안의 배는 중국어로 추정되며 그밖에 물고기 등도 새겨져 있다.



신주와 객주 모형

神舟 客舟 模型

현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신주(左) 송나라 사찰단을 태우기 위해 황제의 명을 받아 당시 세계 최대 규모(길이 90m)로 특별히 제작되었다.

객주(우) 중국의 무역선으로 신주의 1/3크기이며, 배의 바닥이 깔짚처럼 기울어져 깊은 바다를 운행하는데 적합하였다.

참고자료



사절단의 첫 기항지인 군산정의 전경선유도 망주봉

군산정은 서궁 일행이 고려 영해로 진입한 후 처음으로 들러 잠깐간 김부식에게 영접을 받았던 장소이다. 또한 귀국길에는 기상악화로 20일 가량 머물면서 개경 이외에 가장 오래 머문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 고군산군도 내 선유도 망주봉 인근에서 12세기 대 청자가 다수 확인되어 이곳이 서궁의 체류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성의 역사를 쓴 책, 송경지

松京誌
songgyeongji

조선 1830년 | 32.0×20.1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경지는 1824년(순조 24) 송도유수 김이재가 주관하여 제작하다가 6년이 지난 1830년(道光 10)에 서희순에 의해 완성된 개성지역의 읍지이다. 총 10권 5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일부분에는 10편의 서법문(序法文)이 기재되어 있다. 송경목원도(松京木園圖)와 송경성내도(松京城內圖) 등 개성의 지도는 별래 부분에 기재되어 있다.



송경폭원도 松京幅員圖 Songgyeongpokwondo 조선 1830년 | 32×40.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경지(松京誌)』에 실린 목판본 지도로 개성과 주변을 간략하게 그리고 산 물길 주요지명 등을 표시하였다.

12세기 동아시아와 서공의 신주 뱃길

문경호 공주대학교

서공 일행이 고려를 방문한 12세기 전반의 동아시아는 문치주의로 인한 송의 약화와 북방 민족의 흥기로 국제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던 시기였다. 고려는 본래 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나 10세기 말에 거란의 침략을 받게 되자 거란과 강화를 맺었다. 강화의 주요 내용은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교를 맺는다는 것과 거란이 고려에 강동 6주를 할양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고려와 송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나 이후에도 두 나라의 경제적인 교류는 지속되었다.

고려와 송이 다시 국교를 맺은 것은 1071년이였다. 송은 고려가 거란의 책봉을 받은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고려를 통해 거란을 견제하는 연려제요(聯虜制要)의 전술을 구사하려 하였다. 1103년과 1110년, 두 차례에 걸쳐 송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책봉 의사를 밝힌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12세기 초에 이르러 거란이 내분으로 약해지자 송은 새로 부상한 여진의 금과 연합하여 거란을 압박하는 한편, 고려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였다. 서공 일행은 이 무렵에 파견된 사신이었다. 본래는 1122년에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고려 예종이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출발을 했다. 따라서 1123년 서공 일행의 고려 시행은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었다. 첫 번째는 책봉 의사를 밝힌 휘종의 조서를 고려 국왕에게 전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1122년에 세상을 떠난 예종에 대한 조문이었다.

한편, 중국과 한반도는 송 건국 이전부터 연안 항로와 횡단 항로를 모두 이용하여 교류하였다. 그러나 북방에서 거란이 흥기하면서부터는 연안 항로 대신 횡단 항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당시 고려에서 송에 이르는 횡단항로는 예성강에서 웅진구 또는 대동강구를 거쳐 산둥 지역에 이르는 북선항로와 예성강에서 서남해를 따라 내려가 흑산도에 도착한 후 바다를 횡단하여 명주 정해현에 이르는 남선항로가 있었다. 10~11세기에는 예성강-동주 항로-예성강-배주-영주-해주-웅진구-지감도-말각-배구-동주가 주로 이용되었으나 1074년(문종 38년) 이후에는 고려의 요청에 따라 예성강-정해 항로-예성강-고려 서남해-흑산도-정해를 이용하게 되었다. 가까운 직선 항로를 포기하고 먼 길을 선택한 것은 거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란은 사신을 보내 고려와 송이 교류하는 것을 문책하기도 하였다.

송에서 고려에 사신을 보낼 때는 상인들의 배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특별히 사신선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서공 일행이 고려에 오기 45년 전 품인 원풍 원년(元豐元年, 1078)에도 신종이 '농하치원안제신주(農下池元安濟神舟)', '영비순제신주(靈比巡濟神舟)'라는 웅장한 배 두 척을 제작하여 고려에 보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례에 따라 휘종도 서공 일행에게 '정신아섭회원강제신주(正神阿涉回元岡濟神舟)'와 '순류안일통제신주(巡流安一統濟神舟)'라는 거대한 선박을 제조하여 내려주었다. 두 척의 사신선에 대해 서공은 '산악(山嶽)과 같이 높은 그 배들이 물 위에 떠 움직일 때면 비단 돛에 그려진 *익새 머리가 교통과 아무기를 굴복

시켰다.'고 표현하였다. 『고려도경』에 '고려인들이 조서를 맞이하던 날은 나라가 우러러 보고 환호하며 감탄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신주는 매우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신단에는 두 척의 신주 외에 길이 10장차, 약 30m 폭이 되는 객주 6척이 동행하였다. 이들 객주는 배의 길이가 3장9m이며, 너비는 2장5자7.5m였으며, 신주와 장식이 비슷했지만 크기는 더 작았다. 객주는 사행 실무자들과 상인들이 승선한 선박으로서 뱃길 안내를 맡는 대신 교역을 허락받은 상인집단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주를 떠난 서공 일행은 초보산(草步山, 칠강성 진해현-매점(梅岾, 칠강성 주산)로 등을 지나 큰 바다로 나온 뒤 흑산(黑山, 흑산도)-군산도-군산정선유도-마도-안흥정(安興亭, 인흥-자연도) 경원정(慶源亭)-금수문(金水門, 강화현) 등을 거쳐 예성항에 이르렀다. 이들의 일정은 1123년 5월 16일 정해를 떠나 6월 12일 예성강 벽란정에 도착하기까지 26일이 걸렸고, 돌아가는 길에는 바람과 조수가 순조롭지 못해 42일이 소요되었다.



서공 일행의 고려 안내 항로

*익새 머리의 유사하게 생긴 새인데, 바람을 잘 견디고 휘어진 배의 이빨이나 돛에 모양을 그려 넣었다.



II 수도 개경

『고려도경』에서 수도 개경과 관련된 내용은 성읍(권3), 궁궐문(권4), 궁전1,2(권5,6), 관부(권16), 사후(권17), 사신행렬(권24), 조서를 받는 절차(권25), 연회의례(권26), 관사(권27) 등이다. 주로 개경의 구조와 궁궐, 그리고 주변 관청과 사찰, 궁궐 안에서 거행되었던 공식행사 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서공은 고려 궁궐에서 행어처 있는 숙소 순천관에서 한달 가량 머무는 동안 궁궐 고려키 삼엄한 감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본 개경의 모습만을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고려 궁궐인 만월대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남북공동발굴이 진행되어 수도 개경 중심부의 전모가 차츰 밝혀지고 있다.

The Capital Gaegyeong

In Goryeodogyong,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apital Gaegyeong were composed of a castle town(Volume 3), a palace gate(Volume 4), a palace 1, 2(Volume 5, 6), government department(Volume 16), a house containing ancestral gods(Volume 17), the envoy's procession(Volume 24), a protocol procedure(Volume 25), a banquet ceremony(Volume 26), and official residence(Volume 27) etc.

It mainly covered the structure of Gaegyeong and the palace, the surrounding government offices, temples, and official events held in the palace in detail. Seo Geung was kept under strict surveillance by the Goryeo Dynasty for about a month at Suncheongwan, a remote palace in the Goryeo Dynasty, and had to explain in detail what he saw. Meanwhile, the Manwoldae, the royal palace of Goryeo, was jointly excavated from 2007 to 2015, revealing the entire picture of the center of the capital.

개경의 구조

“고려에서는 원래 글을 알고
 도리에 밝지만 음양설에 구애받았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울 때에는
 장구한 계획으로 삼을 만한지를 반드시
 살핀 다음에야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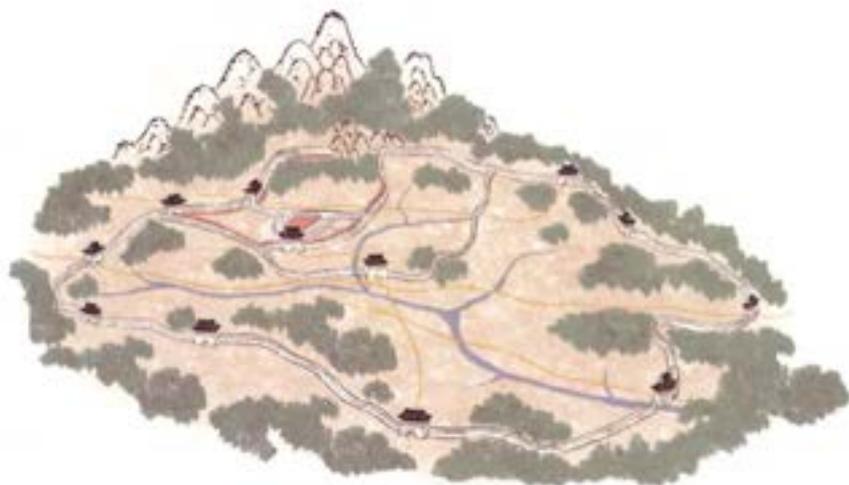
高麗素知書 明道理 尚陰陽之說 故其建國 必相其形勢 可高長
 久計者 然後宅之 - 卷3 城邑 形勢

“중국조정에서 간간히 사신을 보내어
 고려를 무마하기 위해 그 땅에 들어가지만
 정작 들어가 보면 성곽들이 우뚝우뚝하여
 실로 험사리 업신여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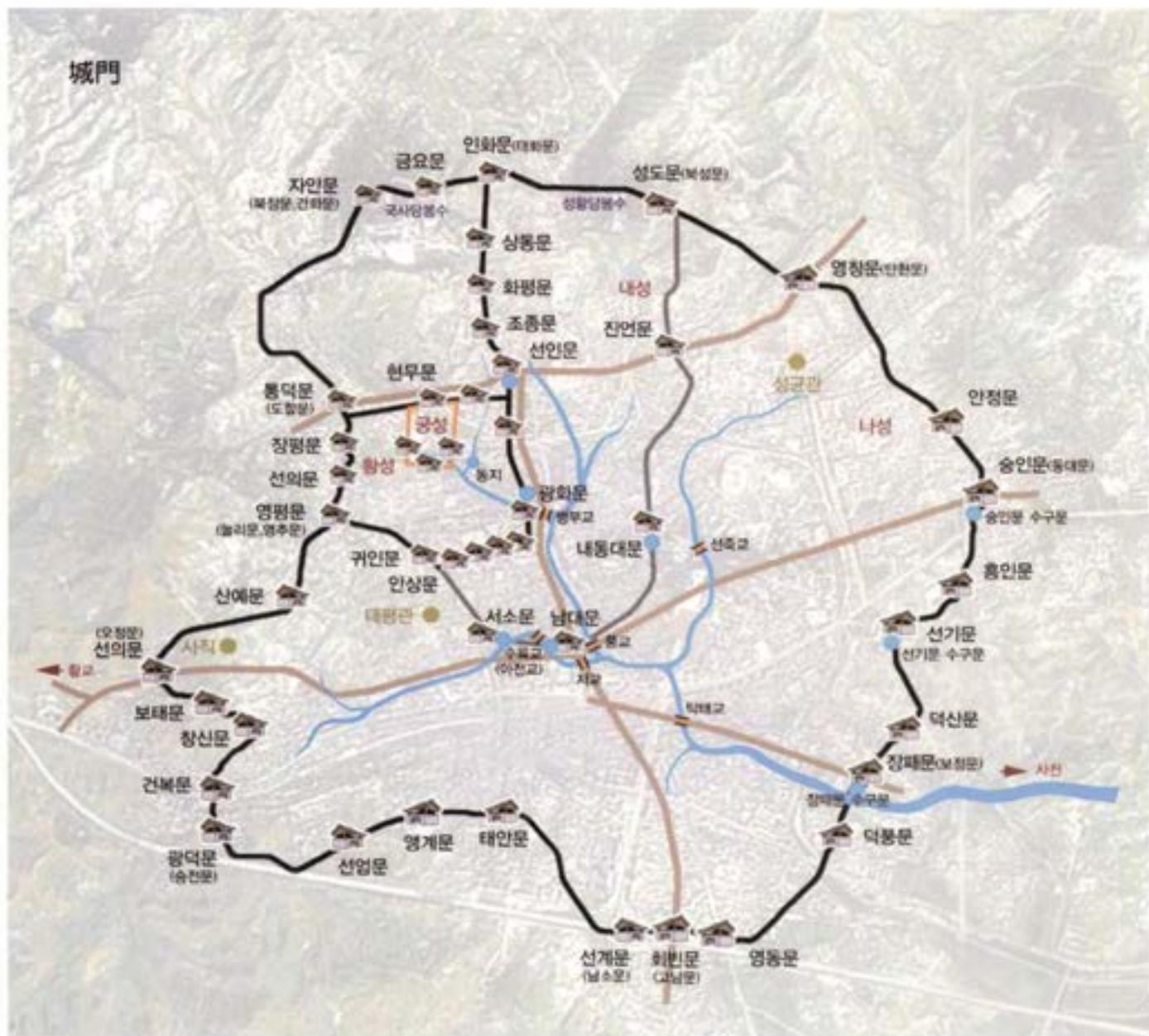
朝廷間遣使 存撫其國 入其境 城郭巖巖 實未易鄙夷之也
 - 卷3 城邑

서궁이 본 고려의 수도 개경은 목마른 용이 물을 마시는 형상이었다. 북쪽에
 송악산이 산등성이를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내려오다 다시 둥글게 모인다.
 광명천 줄기는 뱀처럼 휘어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간다.
 이러한 입지조건은 보통 평지에 자리하는 동아시아 국가의 수도와는 달리
 독창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려 궁궐은 여러 겹의 성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안쪽에 궁성을 두고 바깥쪽에
 황성을 갖춘 2중 성벽이다. 송악산 아래 경사지고 굴곡진 지형에 동남쪽에
 정문을 내고 한차례 이상 방향을 틀어 궁성으로 진입하는 구조이다. 궁성 안은
 9개의 궁전, 15개의 궁전문, 3개의 전각 등이 각각의 지형을 이용하여 알맞게
 자리하였다.



城門



고려 성곽과 성문의 위치

출처: 홍영의, 2013, 고려도성의 형성과 변화, 국립문화재연구소, 103쪽



참고자료

송도기행첩

松都紀行帖

조선 1757년 전후 | 강세황 작 | 국립중앙박물관

묘담 강세황이 개성유수 오수채의 초청으로 송도를 유람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감명 받아 오수채에게 선물로 그려 준 화첩이다. 송악산과 개성의 중심가, 남대문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개성전도

開城全圖

조선 1872년 | 35.8×25.4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시대 관한 지방지도총서(1996)의 하나로, 영복, 진보(鎭堡), 목장(牧場), 산성(山城) 등 풍부한 정보를 담은 점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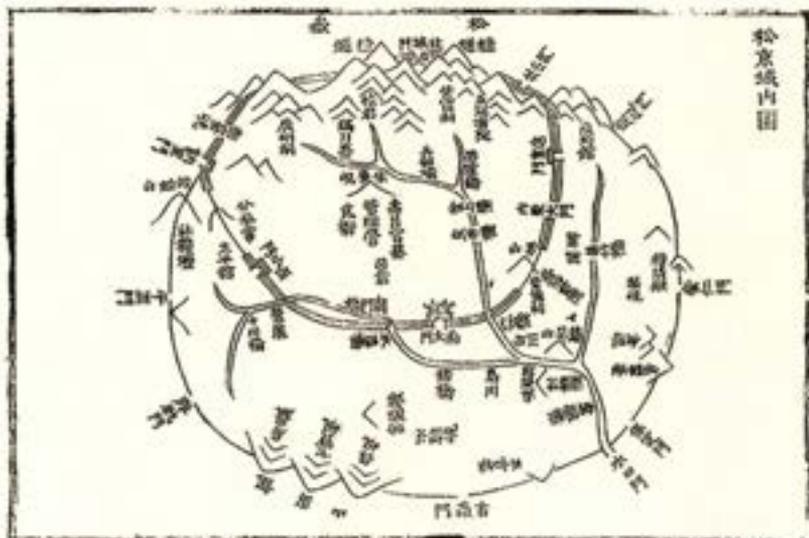
송경성내도

松京城內圖

Songgyeongseongnaedo

조선 1830년 | 32.0×40.2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송경지에 실려 있는 목판본 지도이다. 개성의 나성과 내성을 중심으로 산, 강, 다리, 성문 등의 여러 사물물에 대한 위치를 표시하였다.



참고자료

고려궁궐

“고려의 풍습은 음식을 아끼되
궁실을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팽이 나는 듯한 화려함에
용마루는 잇달아 있고
붉고 푸른 빛으로 장식하였다.”

其俗節於飲食 而好修宮室 ... 飛龍連雲 丹碧藻飾
- 卷5 宮殿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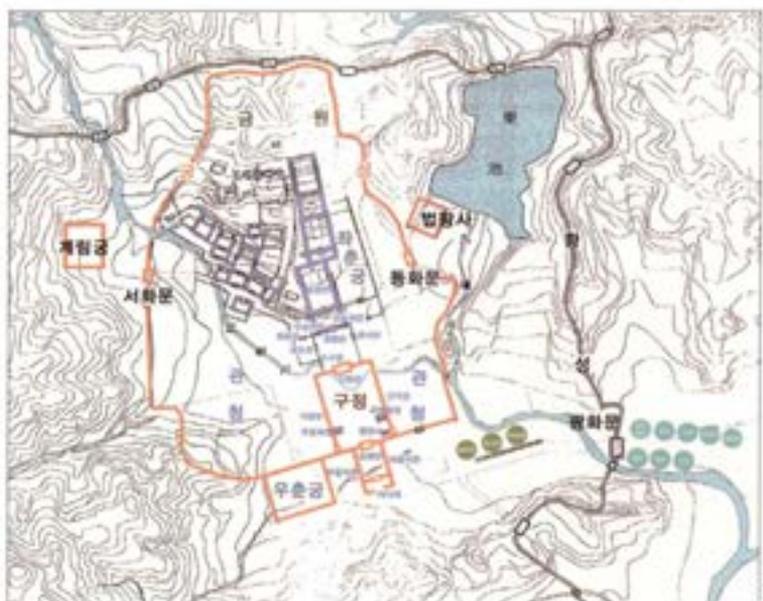
“도성의 서남쪽에
왕부의 궁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북쪽에는 순천관이 있는데
완전하게 수리되어 있다.”

西南隅 王府宮室居之 其東北隅 即順天館 極加完備
- 卷3 城邑 國城

황성의 정문인 광화문은 황성과 만나는 동남쪽 모서리에 자리하여 동향으로 만들어졌다. 광화문을 들어서면 승평문, 신봉문, 창합문을 지나 궁성 내부에 도착한다. 승평문과 신봉문 사이에는 궁궐 마당인 구정이 있으며, 이곳에서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궁성의 제1정전인 회경전은 사절단의 조서를 영접하고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다. 서궁은 회경전의 모습을 “난간을 붉게 칠하고 구리로 만든 꽃으로 장식하였으며, 무늬가 웅장하고 화려하여 여러 전殿 중에 으뜸이다.” 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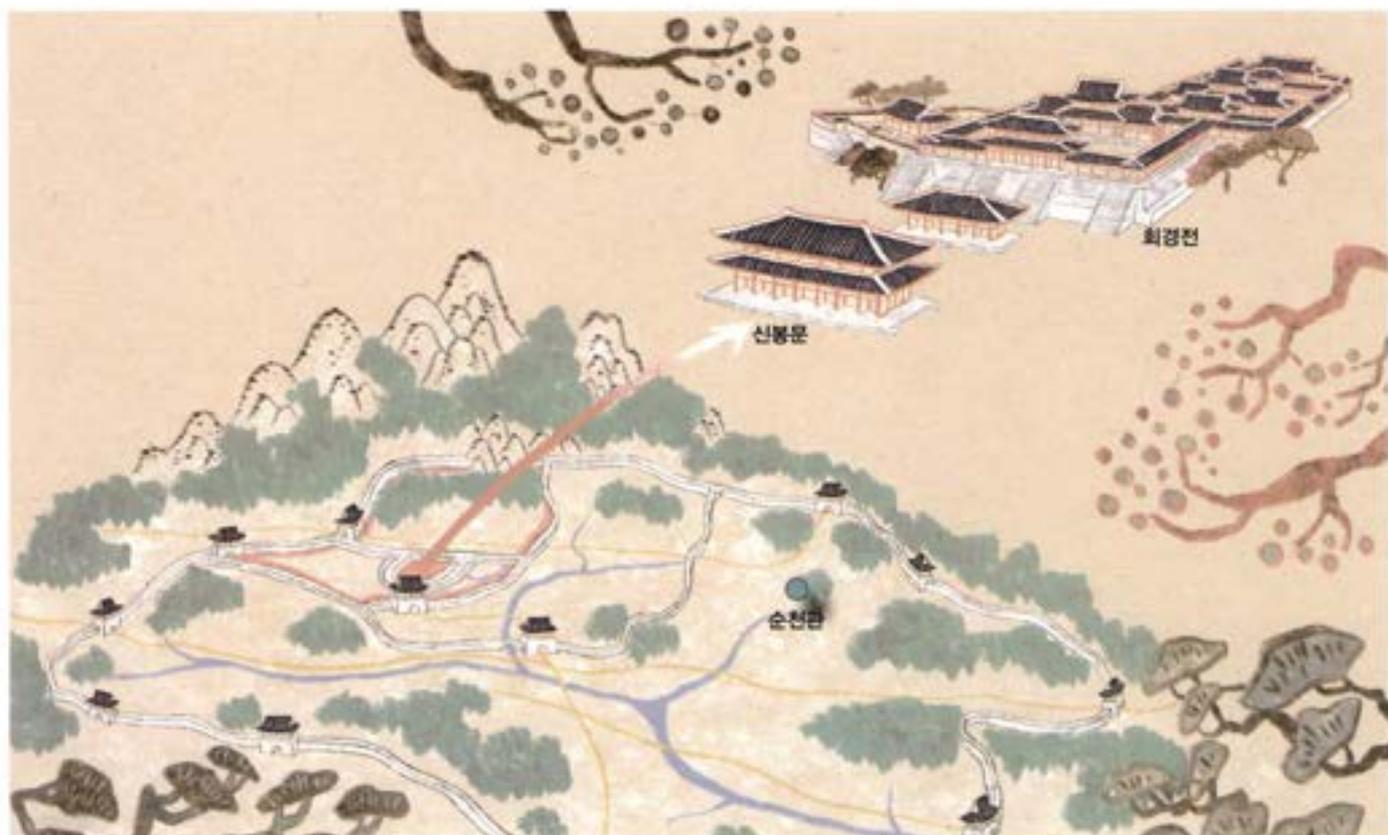
사절단은 약 한 달간 궁성의 서북쪽에 위치한 순천관에 머물렀다. 원래 왕의 별궁이었는데 이를 고쳐 중국 사신의 숙소로 삼아 순천관이라 하였다. 서궁은 순천관의 규모가 크고 화려하여 왕의 지체를 높인다고 평하였다. 외문과 중문을 지나면 중심 건물인 정청이 나오며, 그 뒤로 낙빈정과 상절들이 거주하는 여러 건물이 있다. 또한 산을 마주보는 형태로 청풍각과 향림정이 자리하는데 두 곳 모두 경치가 빼어나 이곳에서 차를 마시거나 바둑을 두며 바람을 쐐었다.

하지만 서궁이 개경에 체류하는 동안 순천관을 벗어나 외출한 것은 5~6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첩보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궁성과 승산묘, 광흥보제사 등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고려는 사신단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고려궁성과 궁궐의 배치

출처 홍영희, 2013, 고려도성의 형성과 변화, 국립문화재연구소, 106-107쪽



수도 개경과 고려궁성



송 사절단의 숙소 '순천관'



도깨비 얼굴무늬 수막새
 지름 14.0~15.0 두께 1.1~2.3



해무리무늬 수막새, 암막새
 가로 23.5~27.2, 두께 1.4~2.0



전돌

가로 15.7~20.1, 세로 3.8~7.3, 길이 6.9~14.0

전 개성 출토 기와와 전돌

傳聞城出土瓦磚
Roof-tile and Brick

고려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개성 출토로 알려진 건물의 부재들로 도깨비 얼굴무늬(해마)가 새겨진 수막새, 해마리무늬(해마)가 새겨진 암·수막새 그리고 불꽃무늬(해마)가 새겨진 전돌 등이다. 암막새와 수막새는 처마 끝을 장식한 기와이며, 전돌은 건물의 마루와 초석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장식벽돌이다.



막새기와

圓瓦當, 平瓦當
Roof-end Tile

고려 | 수막새(左) 지름 8-8.4cm, 길이 25-25.9cm
임막새(右) 가로 17.8-18.6cm, 길이 11.4-14.5cm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연화문 수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을 새겼으며 휘권부에는 8엽의 연꽃이 있다. 당초문 임막새는 주연부에 연주문을 새긴 형태이다.



청자 기와

靑磁瓦
Celadon Roof-tile

고려 | 길이 26.5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고려사』에 “의종11년(11) 봄 4월 고려군 후원에 연못을 뚫다. 거기에 청자를 세우고 그 이름을 양이창(養魚池)이라 함으며, 지방에 청기(靑瓦)를 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궁성(만월대) 사진 및 회경전 복원 안도



궁궐에서의 공식행사

“정사와 부사가 조서를 받들고
순천관으로 들어가면
10일 이내에 길일을 택해
고려왕이 조서를 받는다.”

使副奉詔入順天館十日內卜吉王乃受詔
·卷25 受詔 詔語

“고려의 국왕이 조서를 인도하여
회경전으로 들어가니
궁정 아래 향로를 놓은 탁자가
마련되어 있었다.”

國王導詔入會慶殿廷下設香案面西立使副位北上面南
·卷25 受詔 拜詔

“고려의 제도는 잔을 들고 술을 따를 때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빈객을 접대하기 위함으로
옛사람의 유풍이다.”

而高麗之制執爵酌醴行而前所以燕賓客乃有古人之遺風
·卷26 高禮

“정사와 부사는 관반^{冠盤}과 문밖에서
말을 새우고 작별 인사를 하고,
관반은 말 위에서 친히 술을 따라
사자^{使者}에게 권한다.
마시는 것이 끝나면 각각 헤어진다.”

使副與館伴立馬于門外設別館伴就馬上親酌以勸使者飲畢各分袂
·卷26 高禮 西郊送行

6월 23일 사절단은 수도 개경에 도착하고 숙소인 순천관으로 가서 황제의 조서를 전달하기 위해 기다렸다.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정해진 길일이 되면 고려 궁궐의 제1정전인 회경전 앞에서 사절단을 만나 조서를 받는 의례를 진행하였다. 조서에는 “인종이 왕위에 오른 것을 축하하여 많은 예물을 보내니 제후로서의 도리를 영원히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서를 받는 절차는 조서의 영접 - 조서의 인도 - 조서 받을 때의 의례 - 사절의 영접 순으로 진행되었다. 조서를 받은 절차를 마치면 연례^{宴禮}를 열게 된다. 양국을 대표하는 인종과 사절단은 예의를 다하여 술잔을 기울이고 충분히 술을 권한 뒤에 서로에게 선물을 선사하였다. 조서를 받고 삼일 뒤 사절단이 참가하는 예종의 제례를 열고 조문을 받는 행사를 가졌다. 하지만 서궁이 개경에 체류하는 동안 순천관을 벗어나 외출한 것은 5~6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첩보활동에 큰 제약이 있었다. 궁성과 승산묘, 광통보제사 등을 방문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고려는 사신단 활동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고려 왕은 숙소에 관원을 보내 연회를 열어주는데 이를 불진화^{佛進火}라 부른다. 또한 5일에 한번 풀로 객관에서 모임이 열리며 명절이나 절기 때는 규모가 크게 열렸다.

개경에서 한 달 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준비를 마치면 왕은 황제에게 보낼 표문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고 의식을 마친 뒤 연회를 베푼다. 그리고 궁궐 앞뜰에서 왕이 직접 사절단에게 이별주를 전한다. 다음날인 7월 13일 사절단이 순천관을 떠나 서교정에 도착하면 왕은 국상^{國相}을 보내 술과 음식을 배풀고 집반관은 균산도까지 따라가 마지막까지 배웅하였다. 사절단이 돌아갈 때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뱃길만 42일이나 걸렸다.



세발 달린 향로

靑銅三足香垵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11-12세기 | 높이 34.0 | 소장 6849

나팔 모양의 몸체에 세발이 있고, 뚜껑에는 세 개의 연기구멍이 있다.
뚜껑과 다리가 없는 황원보다 비교적 앞선 시기의 향로이다.





청동 사자 향로

青銅獅子香爐
Bronze Lion-shaped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3, 지름 14.6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두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여섯 개의 연기 구멍이 뚫려있고, 중앙의 연꽃모양 확대 위에 사자가 앉아 있다. 사자는 귀를 세우고 입을 벌린 모습으로 꼬리를 힘차게 감아 돌렸다.





청자 기린 향로

靑磁麒麟香爐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 높이 18.5, 지름 16.3 | 영지대학교 박물관

향로 뚜껑에 기린이 살짝 몸을 틀어 입이있는 모습이다. 기린은 중국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적 동물로 옛부터 신성하게 여겨졌다. 사슴 향상에 머리에 뿔이 있고, 전신이 비늘로 덮여 있고, 꼬리가 있다. 입을 통해 연기가 나기도록 만들어졌다.





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文盃-憑托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14.3 | 소장 3010

꽃 봉우리 모양 잔의 겉면에 국화무늬를 음각하였다. 받침은 꽃모양이며, 안쪽은 연꽃잎무늬로 조각되었다.



청자 뿔잔

靑磁角杯
Celadon Horn Cup

고려 12세기 | 길이 17.5 | 소장 3267

연회 때 왕이 사절단에게 술을 권할 때 쓴 잔으로, 모두 흥진(興進)으로 바꾸고 술이 다 없어지면 물러났다고 하였다. 사절단의 환송연에서는 왕이 잔의 이 잔에 이별주를 따라주었다.

서궁, 천자의 나라 고려 황도 개경을 거닐다

정은정 부산대학교



북송 휘종연간에 예종의 조문과 인종의 즉위 축하를 치르기 위해 송에서 사절단을 보내왔다. 당시 송 사절단으로 고려에 왔던 인물이 노윤적과 서궁이다. 서궁, 그가 남긴 기행문이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에 바친 황도 개경의 경관에는 북송 개봉부의 창에 베일처럼 가려진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서궁의 인지적 혼돈을 가려내는 작업은 고려도경 만을 읽어내는 것으로는 쉽지 않다. 천자국을 자처하던 고려 황도의 설계 초창기 모습이 고려도경 속에 녹아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개경의 도시 상책이 북송 개봉부와 혼동되는가 하면서도, 독특한 양상을 연출하는 초기 도성 경관을 살피기에 '고려도경'은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서궁의 눈에는 고려 개경에서 어떠한 북송 개봉부의 상이 서렸을 것이다. 당시 북송은 짧은 기간의 냉해를 혹독히 치른 뒤였다. 자연 재해를 극복하려던 인간의 노력으로 토지의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당장안의 네모반듯한 도성구획이 무너지고 자칫 무질서한 듯 개봉부안으로 도시 시설이 불규칙하게 배치되었다. 송 개봉부 도시 한 가운데를 관통하는 운하가 굴착되고, 고불고불한 골목으로 인해 거리는 복잡하였다. 원종(1078~1085)부터 개봉부 안으로는 각종 사묘시설과 사찰이 가득차고 넘쳐난 풍경이었다.

북송 개봉부의 도시 풍광에 젖어있던 송나라 사람 서궁은 천자의 나라 고려와 그 수도 황도를 어떻게 그려내었을까?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도시 설계에서 한걸음 나아가, 북송 개봉부의 도시상이 석였을 것이며, 고려 독자적 모습도 세밀히 드러내려 애썼다.

서궁은 송에서 출발하여 해로 루트를 타고 예성강 벽란도 마을에 도착한 다음, 서교를 지났다. 서교에서 선의문을 거쳐 송 사절단이 머무는 순천관으로 입성하였다. 객관에 당도한 다음날부터는 개경 내의 각종 관아시설을 탐방하였다. 서궁은 개경 바깥은 거침없는 눈으로, 외부 출입이 통제되어 개경 안에 머물러야 하는 기간 동안 만큼은 정밀 스케치하였다.

개경 왕부 바깥쪽에서 서궁이 목도한 고려의 산야는 거칠고 황폐하였다. 산가슴에 다닥다닥 붙은 토지를 신전으로 칭하고 농업기술이 낙후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인종 재위 당시 개경은 각종 토목공사가 진전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려 개경으로 집중된 유동인구, 그들이 중심이 되어 생겨터진 모색 차 산야(摩索山) 개발이, 또 냉해에 이데올로기 차원으로 대응하려던 국왕 자신을 위한 대토목공사를 위해 신령의 발목과 발채가 진행되고 있었다. 서궁이 개경의 산이 발채로 붉은 흙이 노출된 것으로 묘사한 바탕에는, 사실 개경의 도시개발과 번영에 가려진 어두움이 공존해 있다.

개경 안으로 다가설수록 서궁은 철저하게 북송 사람이었다. 개경 궁궐의 정전·편전·침전구역을 차례대로 얘기할 때, 고려는 중화에서 먼 변방의 땅으로 사설하였다. 그 탓인지, 개경의 정전을 송의 그것에 비해 격투를 낮춰 설명하였다. 당시 북송에서 가장 주목하던 사묘와 불우에는 민감히 반응하였다. 개경 내외에 산포하는 사묘와 불우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개경의 각 성문과 사찰 사이 사잇길은 비교적 상세히 그려졌다. 서궁이 그린 개경의 경관과 도시구조는 당 장안성의 방시제(坊市制)가 해체된 후 북송 개봉부의 그것과 매우 달아났다.

서궁에게 개경 시장은 매우 낯설고 그런 만큼 그 성속도는 설익은 것이었다. 북송 당시 개봉부에는 엄격하던 방시제(坊市制)를 허물고, 곳곳에 여항소(魚行所) 허시·아시·다관이 준비하는 등 유통의 자유로움이 물씬 풍겼다. 거기에 비하면 서궁의 눈에 비친 개경은 대시·경시사가 관리하는 시전(市廛)을 빼고는 민간시장이 없었다. 관영의 주점과 다점 외에도 재분배 물화의 이동경로와 요충지를 따라 농민적 교역처가 산포하는데도, 그의 눈에 들이지 못하였다.

'고려도경' 속 개경은 북송 초기 개봉부 사람 서궁의 사선이 깔려있다. 타자(他者)가 그려낸 견문기이지만 개경은 분명 자율적이고 다원적인 '고려적 색깔'을 지닌 황도(皇都)였다.

“고려는
여러 오랑개의 나라 가운데서
문물이 발달하고
예의 바른 나라로 불린다.”

高麗於諸夷中 號爲文物禮義之邦 - 卷22 雜俗1

III 고려인의 생활문화

서공은 고려사회를 다른 이민족과는 달리 정신과 물질문화가 잘 정비된 사회로 보았다. 그의 말처럼 그릇과 복식 등의 물품은 품질이 뛰어났고 불교문화도 융성하여 고려 문화의 독창성을 실현하였다. 고려 전기부터 여러 나라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오랜 노력으로 기술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는 고려사회 특유의 개방성과 역동성으로 토속풍(土風)과 중국풍(華風)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평가할 수 있다. 서공은 고려의 풍속과 문화를 중국 제도의 도입으로 교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는 중국 문화의 우월감과 자국문화를 기준으로 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The Customs of the Goryeo people

Unlike other ethnic groups, Seo Geung viewed the Goryeo society as a well-coordinated society of mind and material culture. As he said, the vessels and costumes were of excellent quality and Buddhist culture flourished to realize the originality of Goryeo culture. Since the early Goryeo Dynasty, advanced technologies from various countries have been introduced, enabling them to develop with long efforts. This is a unique openness and dynamism of Goryeo society that can be evaluated as a result of the harmony between native style and Chinese style. Seo Geung thought that the customs and culture of Goryeo had been enlighten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Chinese system. However, this stems from the difference in the Chinese culture's superiority and the view of other cultures based on their own culture.

고려인

“옛 사서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들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舊史 載高麗 其俗皆潔淨 至今猶然 每笑中國人多垢膩
- 卷23 雜俗2 兼漢

“고려는 영토가 넓지 않으나
백성은 매우 많다.
사농공상의 사민四民 가운데
선바를 귀하게 여기므로,
고려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臣聞高麗 地狹未廣 生齒已衆 四民之業 以儒爲貴 故其國
以不知書 爲恥 - 卷19 民風

“대체로 고려의 백성은 가난하고
풍속은 검소하다.”

蓋其國民貧尙儉 - 卷21 史職

“고려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적고
여색을 좋아하며 쉽게 사랑하고
재물을 중히 여긴다.
남녀 간의 혼인에서도 가볍게 합치고
쉽게 헤어져 전례禮를 본받지 않으니
참으로 웃을 만한 일이다.”

然其爲人 寡恩好色 泛愛重財 男女婚娶 輕合易離 不法典禮
良可哂也 - 卷19 民風

서궁은 고려사람들은 목욕을 자주하고, 차와 술을 즐겼으며, 음식을 항상 그릇에
담아 먹는 생활습관이 있는데 이는 다른 오랑캐와는 구별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하었다. 당시 중국인을 비웃던 고려인은 과연 어떤 생김새였을까?

서궁은 고려인의 본성이 인자하여 군자가 끊이지 않는다 하였고, 이는 중국의
교화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다른 오랑캐와는
달리 역법, 유학, 음악, 도량형 등 중국의 여러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법도가
있었다. 예절에 익숙하고 공경하며, 귀족부터 백성까지 모두 책과 글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

일부 귀족층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무척 검소했다. 유학을 익혀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복식도 갖추었으며, 평소 흰색 배운을 입고 검은 두건을 썼다.
이에 반해 생각과 행동은 자유로웠다. 결혼과 이혼이 비교적 쉬었으며,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거의 없었다.

서궁은 백성들이 아를 때 약보다는 미신을 중시하거나 유독 만남과 헤어짐이
자유로웠던 남녀 관계와 결혼 풍습 등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울고 그릇을 떠나
웃차림이나 예법 등 중국과 같지 않은 풍습도 기이하게 생각했다. 고려 사회의
낮선 풍습을 직접 목격한 서궁의 이러한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얼굴무늬 기와

人面瓦
Roof-tile with Human Face Design

고려(좌) 10.5 우) 14.7 |
좌) 안성 봉업사지 우) 영월 흥교사지(국립고려사연구소 소장)

얼굴이 그려진 기와는 고려시대의 사찰 터에서 종종 출토된다. 힘든 노동의 일상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며 맑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는 열법했던 고려 장인의 숨결이 느껴진다.



〈청명상하도〉 부분 清明上河圖 部分

북송(北宋) 1120년 경 | 북경고궁박물관

중국 풍속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송나라 수도 개봉(開封)에서 청명절을 맞아 번화한 도시의 모습을 그렸다. 그림 한 칸에 말을 타고 것과 도포를 쓴 인물이 고려인으로 추정된다.

귀족의생활

“듣기에 중국동남쪽의
여러 나라 가운데
고려의 인재가 가장 많다.
고려의 관료 중에서
귀족은 가문의 명망을
서로 높이려고 한다.”

臣聞東南之美 高麗人材最盛 仕於國者
唯貴臣以族望相高 - 卷8 人物

“고려 관리는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무릎을 구부리며
공손히 절을 하고,
일에 대해 말할 때는
무릎 꿇음으로 나아가서
손을 올리고 얼굴을 낮춘 채
이를 경청한다.”

其國官吏 遇諸途 必跪拜鞠躬 宮事則膝行而前
上手抵面 以聽奉之 - 卷21 臣錄

서궁이 본 고려의 귀족사회는 “족명^{족명}을 중시하는 사회”였다. 족명이란 씨족이나 가문의 명망을 말하는데 이자겸으로 대표되는 경원씨 가문의 족명이 가장 높았다. 그들은 왕실 또는 가문간의 혼인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고급관료를 형성하였다.

서궁은 사절단의 환영, 집견, 안내 등을 맡은 고려의 주요 관원의 직명과 이름을 남겼다. 재상 이자겸과 집반관, 관반관 등 5명의 인물을 자세히 소개하고, 지방에서 환영을 맡은 관리와 개경에서 환영과 환송을 담당한 관리, 그리고 연회와 안내를 맡은 관원과 소속 부서의 하급관원까지 총 62명을 기록하였다. 그들의 예의있고 겸손한 모습이 품위 있고 자연스러웠다고 평했다. 특히 사절단을 직접 영접한 관리는 윤연식, 김부식, 김인규, 이지미 등으로 모두 명망^{명망} 높은 가문의 출신이었다. 그들은 이자겸 가문과 친분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문벌관료라는 공통점이 있다.

12세기 전반 경의 관료사회는 고급관료로 활동하는 귀족만이 여유가 있었으며 하급관리는 봉급이 적어 어려운 생활을 하였다. 대부분의 귀족관료는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예의와 분수에 맞는 청렴한 생활을 하였으나 이자겸과 같은 부정축재 세력도 있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귀족들은 아름다운 복식과 고려청자, 금과 은으로 만든 공예품 등을 일상생활에서 즐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절정기에 이른 고려의 문화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고서도

아집도 대련

월계원 대련

고려 1371년 | 139.0×78.0 | 리움미술관

고려의 귀족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이다. 책을 읽고 시를 짓거나 그림을 감상하는 한가로운 모습이 담겨 있다.



청자 변기

靑磁便器
Celadon Chamber Pot

고려 12~13세기 | 높이 49.0 x 20.0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머치 배처럼 생긴 청자 변기로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옅은 녹색색의 유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환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무런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이다.

청자 음각 연꽃무늬 병

靑磁陰刻蓮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Flower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31.5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목이 길고 몸체는 둥그런 플라스크 모양의 청자 병이다. 활짝 핀 연화 설지무늬를 음각기법으로 얇게 새겼다. 유색은 투명한 담청색을 띠며 유색이 맑고 곱다.





청자 국화무늬 베개

靑磁象嵌菊花文枕

Celadon Pillow with Inlaid Chrysanthemums Design

고려 13세기 전반 | 길이 24.4, 높이 9.8, 폭 11.7 | 소장 5134

장방형의 청자 베개이다. 베개를 세워서 한쪽 면을 바닥으로 하여 소성하였다. 문양과 색감, 베개의 크기 등이 모두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청자 상감 꽃 새 무늬 의자

靑磁象嵌花鳥柳文凳

Celadon Stoo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Willow

고려 13세기 | 높이 41.6, 입지름 30.8 | 소장 5348

원통형의 몸통에 투각채색, 상감채색, 양각채색, 음각채색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여러 가지 문양을 장식하여 화려하고 구상이 짜임새 있는 청자 의자이다. 태호석 위의 공작과 모란, 나비는 부귀영화와 장수를 상징한다.



청자 칠화 난간기둥

靑磁畫欄柱
Celadon pole

고려 12-13세기 | 높이 55.0 밀치름 17.5 | 명지대학교 박물관

화려한 건물의 건축부재로 난간의 기둥으로 추정된다. 원통 기둥의 중간부에 다른 부재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상단에는 연꽃 모양 장식이 있으며 전면에 칠화로 연당초문을 새겼다.



청자 화분

靑磁花盆
Celadon Flowerpot

고려 12세기 | 높이 24.0 입치름 30.0 | 국립중앙박물관

용인시 보정동 청자 가마터에서 경기문화재연구원의 조사로 총 16점의 화분이 출토되었다. 이 가마에서는 화분, 의자, 벼루, 불상, 향연, 정병, 찡고 등 다양한 종류의 귀족용품을 생산하였다.



청자 상감 국화무늬 수반

靑磁象嵌菊花文水盂
Celadon Basin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7, 입지름 30.5 | 소장 4810

입지름이 넓고 운두가 낮으며 구연을 동그렇게 마무리한 수반이다. 글 없이 편평한 바닥은 넓은 면이 고루 시유되었고 안쪽에는 국화 상감문과 음각으로 문물이 시문 되어있다.

장생무늬 은입사 수반

銅製銀入絲長生文水盂
Bronze Basin with Silver-inlaid Longevity Symbols Design

고려 | 높이 10.0 입지름 28.5 | 기린박물관

손이나 얼굴을 씻거나 화장할 기를 때 화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받아두기 위해 사용된 수반이다. 바깥 표면에는 사슴과 학 등 장생문을, 안쪽의 바닥에는 꽃무늬를 은으로 채겨 넣었다.



금은 입사 잔

鐵製金銀入絲盃

Iron Cup with Gold and Silver Inlai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5.4 입지름 9.7 | 가천박물관

쇠로 만든 잔에 금과 은으로 글씨와 문양을 입사하였다. 금부분에는 연한문음, 은부분에는 당초문양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며, 중앙에는 금으로 새긴 글자를 세게 사방에 배치하였다.



'풍'자 모양 비루

牡丹文風字硯

Inkstone Shaped like the Chinese Character "風(Feng)"

고려 12세기 | 11.0×6.4×2.6 | 소장 3056

비루의 면지가 좁고 면당이 넓은 생김새가 한자 風과 비슷하다 하여 풍자 모양 비루로 불린다. 측면에는 모란문을 새겼다. 앞 뒤 양면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자석재로 만들었다.

'단산오옥'이 새겨진 먹

丹山烏玉髓墨

고려 | 11.2×4.0 | 국립청주박물관 | 보물 제1880호

청주시 영암동의 고려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먹으로 실제 사용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단산오옥'이란 단경에서 만든 좋은 먹을 뜻한다.



국립청주박물관



윤언식 묘지명

尹彦禧 墓誌銘
Epitaph of Yun Eon-sik

고려 1149년 | 45.5×56.5×2.0 |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묘지명이란 무덤 안에 묻힌 사람에 관한 글을 적은 것을 말한다. 묘지명의 길면은 표면에 장식이나 문양이 없는 직사각형이다. 무른 질의 점판암 계열의 돌감으로 묘지명을 만들었는데, 오른쪽 윗부분 일부가 깨져있어 1~10행까지 처음 두 세 글자가 훼손되었다. 총 31행의 명문을 담고 있는데, 1행당 25자 내외로 구성되었다. 글씨는 해서체로 썼으며 의종 대 한림학사를 역임한 김자의 손자가 썼다. 묘지명의 내용은 그의 가문과 관리생활, 가족관계 등을 담고 있는데, 파평 윤씨 가문과 고려 귀족사회의 내부를 살피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윤언식(1087~1149) 집안사의 자격으로 송나라 사절단을 접대하였을 당시 나이는 37세였다. 서경은 그를 “용재가 아름답고 성품이 넉넉하여 한면하게 유학자의 기풍이 있었으므로, 가히 오랑캐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평가했으며, “유씨와 동혼을 하였고, 이자겸과 매우 친하였다.”라고 기록하여 파평 윤씨와 경원 이씨 집안이 매우 친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고려 선종4년(1087)에 태어나 의종3년(1149) 5월 29일 63세로 사망하였다. 본관은 파평이며 아버지는 윤견이고 어머니 경원 이씨 출신이다. 19세에 을서(1104)를 통해 각문지후(1104)라는 관직을 받아 관리가 되었다. 이자겸의 난 때에는 한때로 몰려 유배를 가기도 했으나 처가인 유씨와 인종의 도움으로 풀려났다. 이후 이부상서(1120)와 상서좌복야(1120)에 겸 심사사(1120) 등 고위 관직을 거졌다. 그는 영의태후의 동생인 유씨의 딸과 결혼하였으나 부인이 자녀가 없어 일찍 사망하자, 뒤에 영의태후의 조카인 유인무의 딸과 재혼하고 4남 3녀를 두었다.

□□□(墓)誌銘

朝議大夫試議子監太司成知尙書都省事知制誥金子僊撰
 □□□守司空尙書右僕射天水公以疾告歸其政上不許其辭
 □□□從之五月二十九日薨于天壽院年六十三贈金紫光祿大夫樞
 (校)司使守司空尙書左僕射諱原植字無爲姓尹氏錦平縣人也曾
 (王)父(父)追封寧越監諱先之太王父追封太子太保諱執衡王父(父)諱府
 (儀)同三司推忠佐命平章拓地鎮國功臣守太僕門下侍中尙書史
 (部)事)錦平縣國伯惟國史上柱國諱璠贈諱文肅公入太廟配
 □□春宗公在幼齡以門高登仕先娶明肅太后之弟柳氏女
 □卒無子後娶其黨故臣對少卿柳公仁茂之女今封河源郡
 夫人生四男三女長君繼著法平壽二尙食直長同正敦裕三曹
 漢宗入選當輝四禮賓主簿同正永壽女三人長送京市著
 送金隨次兩女皆幼而公爲人清明坦夷表裏洞達雖未擢進士
 第常請佛老以自樂望之有嶺然可畏之色部之也溫丙戌入
 闈官十九拜開門紙候選尙書考功員外郎開封衣冠魯紳尙
 書右司郎中戊戌出知濟州入爲試給事中開業金魚袋壬寅三月
 拜尙書少卿兼太子中允十一日入樞密院左副承宣館並如故十二月轉
 試工部侍郎兼三司副使乙巳又出爲南京留贊及丙午之亂有一軒
 臣議讓于魏州公之忠誠有如繼日學國魂之未幾
 仁宗乃解召還置其室柳氏力也以故世號爲柳□古所謂烈女也
 丁未又出守完山庚申閏月拜尙書左丞辛酉授判開門事兼三
 司使壬子四月以尙書兵部侍郎知東北邊兵馬事乙卯正月西京叛
 五月公爲樞中監餘如故知西北邊兵馬事皆稱官仍奉使太金
 人望其風影皆以手加額以嘆曰此高麗文肅公之子也嗚呼何其
 英俊而清遠如此之至也遂滿歷清遠至吏部尙書皇統七年
 拜光祿大夫尙書右僕射兼三司使八年退青光祿大夫守司空餘
 如故方是時人皆以登殿府爲嘆以不幸短命嗚呼八月壬申葬
 于南寧縣豐谷之東墓誌曰諱清銘曰
 嗚呼尹公與君子也瑋瑋具表冰雪其姿天族聯華台司嚮望出入朝朝德
 望嶽嶽那遂起髮然不疑上亦注意人皆仰之謂罕壽復正三韓何
 與一朝蕭然化去音容何在夫其善善一點靈臺丹青莫狀

□□□묘지명

조청대부 시공자감대사성 지상시도성사 지제고朝議大夫試議子監太司成知尙書都省事知制誥인 김자의金子
 僊가 지음. □□□수사공 상서우복야守司空尙書右僕射인 천수공天壽公이 병이 들어 정사에서 물러날
 것을 아뢰었다. 임금(고종)이 사직을 허락하지 않았으나 그 뜻이 관망하므로? 좋았는데, 5월 29일에
 천수원天壽院에서 돌아가시니, 63세이다. 금자광록대부 겹교사도 수사공 상서좌복야金紫光祿大夫樞
 □□□守司空尙書左僕射로 추증된 언식언식은 자가 무위無爲이고, 성은 윤씨尹氏이며, 영평현英平縣,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사람이다. 증조부는 군기감軍機監으로 추봉된 신지르之이고, 조부는 태자태보太子太保로
 추봉된 집현전集賢院이다. 아버지는 개부의동삼사 추충좌명평용척지진국공신 수대부 문하시중 판상서
 이부사 영평현개국백 수국사 삼주국領帥□□□司推忠佐命平章拓地鎮國功臣守太僕門下侍中尙書史
 璠의 후손으로 1131년 관복인데, 문숙공文肅公이라는 시호를 추증받았고, 태묘太廟에 들어가 예종예종의
 □□□포장에 배향되었다. 공은 젊은 나이에 문음門蔭으로 벼슬길에 올랐다. 처음 명의태후明懿太后的
 동생인 유씨氏의 딸과 결혼했으나 □□□가 죽었는데, 자식은 없다. 뒤에 그의 친족(義)인 돌아가신
 위위소경魏尉少卿 유인유씨氏의 공의 딸과 결혼했는데, 지금 하원군부인河源郡夫人으로 봉해졌다.
 4남 3녀를 낳았는데, 장남은 감직시승監職承承인 평수平壽이고, 차남은 상식직장동정尙書直長인
 돈유敦休이고, 3남은 조계종종종종의 승선종종에 합격된 윤변변이고, 4남은 예빈주부동정禮賓主簿인
 영수永壽이다. 딸은 세 명으로, 장녀는 경시시승承承인 김수수와 결혼하였는데, 다음 두
 딸은 모두 어리다. 공은 사람됨이 맑고 밝으며 마음이 너그럽고 넓었으며 사리를 꿰뚫었다. 비록
 진사제科上科에는 합격하지 못했으나 항상 불교佛敎와 노자老子를 읽었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엄숙
 하여 가히 두려운 기색이 있었으나 가까이에서 대하면 온화하였다. 병술년丙申, 예종1, 1106에 임관
 職官, 丙申에 들어갔는데, 19세에 각문지후門後에 제수되었다가 상서고공원외랑尙書考功員外郎으로
 옮기고 비외부外和 은어어를 받았으며, 상서우사낭중尙書右少卿으로 옮겼다. 무술년戊戌, 예종13, 1118에
 청주지사清州知事로 나가고 들어와서는 시급사중試給事가 되어 지금에대尙書史를 받았다. 임인년壬寅,
 예종17, 1122 3월에 위위소경 겸 태자중은총위少卿兼太子中允에 제수되었다가 11월에는 추밀원副樞密院에
 들어가 좌부승선少卿承承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전과 같다. 12월에는 시공부시랑 겸 삼사부사試工
 部侍郎兼三司副使로 옮기고, 을사년乙巳, 인종13, 1125에는 다시 지방으로 나가 남경유약南京留贊이 되었다.
 병오년丙午, 인종14, 1126에 어자어의 난이 일어나자, 한 간신奸臣이 거짓으로 참소하여 어주어, 지금의
 경상남도 거제시 지역로 귀양갔으나 공의 충성이 빛나는 태양과 같아 온 나라가 원통해 하였다. 얼마
 뒤 인종仁宗이 이에 오해를 풀고 소환하였으니 대개 부인인 유씨氏가 힘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윤□□라고 부르니, 옛날의 이른바 열녀烈女라고 할 것이다. 경미년丁未, 인종15, 1127에
 다시 지방으로 나가 완산完山, 지금의 전라북도 전주시의 수령이 되었고, 경신년庚申, 인종18, 1140 올달에는
 상서좌승尙書左承承에 제수되었으며, 신유년壬酉, 인종19, 1141에는 판각문사 겸 삼사사제門事三司使로
 옮겼다. 임자년壬子, 인종20, 1127 4월에 상서방부시랑尙書右僕射로 자동북면병마사知北邊兵馬사가
 되었다. 을묘년乙卯, 인종21, 1125 정월에 서경西京이 반란을 일으키자妙濟의 난, 5월에 공은 권중감
 權中監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전과 같았는데 지서북면병마사知西北邊兵馬사가 되어서는 모두 왕의 뜻을
 받들었다. 이에 병을 받아 대금大鎗에 사신으로 가니, 금나라 사람들이 그의 풍채를 바라보고
 모두 손을 이마에 올리면서 탄식하여 말하였다. "이분이 바로 고려 문숙공文肅公의 아들이구나.
 아, 어찌하여 그 뛰어나고 맑은 모습이 이에 이를 수 있던 말인가." 드디어 철요직禮儀을 두루 거
 치고 어부상서右僕射로 이르렀다. 황종호統 7년甲申, 1147에 광록대부 상서우복야 겸 삼사사제太
 尙書右僕射三司가 되었으며, 8년乙酉, 1148에는 은청광록대부수사공銀靑光祿大夫守司空이 되었는데 나
 머지는 전과 같다. 비어호로 이때에 사람들이 모두 늦게서야 상부하에 올랐다고 탄식하였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으니 슬퍼할 따름이다. 8월 임신일에 삭령현현, 지금의 강원도 철원군의 일부 지역 용
 곡곡의 동쪽 골짜기에 장례를 치르니, 시호를 의정憲이라고 하였다. 명복하여 이른다.

아, 윤공公은 절단 글자라고 후근근이 맑은 모습과 얼음과 눈같이 깨끗한 자태를 가졌는데
 하늘이 내린 집안은 귀한 모습을 잇달아 하여 태사어를 가득 채우니 대 임금의 초상에 올립하면서 덕업은 더욱 높아졌는데
 거짓 불소가 마친대 일어났으나 관안하고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니 임금 또한 생각을 고치고 사랑받은 모두 두려워 보냈
 보기도 드문 수명을 누리면서 삼한 백을 다시 바로 길거를 하였으나 어찌하여 화가어짐에 즐겁게 돌아가시는가,
 목소리라 얼굴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은 후근근한 한에 한 걸 무덤에는 단정어안이 아득히도다.

- 원문 해석 : 김용선, 2014, 새지료 『윤언식 묘지명』, 한국중세사연구40



삼국사기 三國史記

고려 1145년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김부식(1075~1151)이 인종의 명을 받아 1145년에 지은 삼국시대 역사책이다. 고려의 귀족문화가 절정기에 이르고 정치가 안정되자 일선 시기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편찬하였다. 당시 고려의 학자들이 중국의 역사에 밝은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강민첨 초상 姜民瞻 肖像

조선 1788년 |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588호

강민첨(1710~1781)은 고려 현종 때 김경전을 보좌하여 계림으로 침입한 거란군을 물리친 장군이다. 이 그림은 고려시대에 만든 초상을 후대에 다시 그린 것으로 관복에 복두를 쓰고 홀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고려 전기 관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참고자료

서공이 만난 고려 관료와 민

김병인 전남대학교



서공은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고려의 역사와 세계관, 문물과 관청, 군사와 병기, 제도와 풍속, 의식과 연회, 경제와 장시, 형사와 기물 등 많은 분야를 살펴보았다. 그의 학자로서 경륜과 문인으로서 글 솜씨, 대국의 사신으로서 우월의식은 비록 일견하였지만 통찰한 것 같은 단호함과 분명함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서공의 작가적 태도 때문에 『고려도경』의 사료적 가치는 인정받기도 하고 의심받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공이라는 외국인이 파악한 고려사회의 모습은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겠다.

특히 권8의 인물사목, 권19의 백성(百姓), 권20의 부인(婦人), 권21의 하급 관리(下吏) 조항에서 자신이 만난 다양한 층위의 고려사람들에 대한 소개는 주목된다. 우리는 고려시대 인물의 연면에 대해서 『고려사』 열전(列傳)이나 『고려사절요』, 『출기(出記)』, 『파한집』과 『보한집』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접하기는 하였지만, 외국인에 의한 평가와 시선 그리고 계층별 구별과 인식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인물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족망(族望)을 중시하는 고려사회 귀족계층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왜냐하면 인종 초 인주 이씨를 비롯한 몇몇 가문의 족망의식이 이전에 비해 특별하게 강조되고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그가 제시한 다섯 인물 이자겸(李資謙), 윤언식(尹彦植), 김부식(金富弼), 김인규(金仁規), 이지미(李之暉) 등은 단순히 관반(官班)이라는 직책만으로 구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그들은 인종 초 서공이 파악한 고려 인물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서공은 “고려는 영토가 넓지 않으나 백성은 매우 많다(高麗地狹人多)”고 하면서 고려사회의 다양한 구성 양상을 나름대로 유형화 하였다. 대략적으로는 백성(百姓), 부인(婦人), 조예(朝野)로 구분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진사(進士), 농상(農商), 공기(工技), 민장(民長), 주인(主人), 귀부(貴婦), 비첩(婢妾), 천사(賤使), 귀녀(貴女), 이직(利職), 산원(畝員), 정리(丁老), 방자(防子), 소친사(小親使), 구사(庫使) 등 다양한 계급과 계층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생소하지만 이해 가능한 그들 집단에 대한 외국인의 시선과 인식을 우리 역사 속에 녹여내는 작업은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서공이 만난 관인(官人)이 고려의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고려사회 전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당대 고려사회의 인적 구성의 상하와 층위의 일단을 포착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식과 여성

“백성의 복식은

모두 흰모시로 된 겉옷에

네 가닥 띠가 있는

검은 두건을 쓰는데,

배의 곱고 거친 것으로만 구별한다.”

其服 皆以白紵爲布 烏巾四帶 唯以布之精粗爲別
- 卷19 民庶 農桑

“여자 의복은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로서,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첩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

舊俗女子之服 白紵黃裳 上自公族貴家 下及民庶妻妾 一變無辨
- 卷20 婦人

왕과 관리의 복식은 입는 이의 벼슬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는다. 왕은 검은 비단으로 된 높은 모자와 소매 좁은 담황색 겉옷을 입고 자색비단에 화려한 수를 놓은 허리띠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일반백성과 같이 검은 두건에 흰색 모시 도포를 입는다. 상급관리는 자색무늬 비단옷에 비단 복두를 쓰고 허리에 옥대를 두른다. 하급관리는 녹색 옷에 나무로 만든 흉을 들고 복두를 쓰고, 검은 가죽신을 신는다. 한편 김부식은 그가 지은 『삼국사기』에서 “내가 중국에 사신으로 세 번을 갔었는데, 우리 일행의 의관(衣冠)이 송나라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고려 관리의 복식은 중국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의 의복은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었다. 머리에 쓰는 봉수는 얼굴만 드러내고 땅까지 내려오며, 머리 모양은 어깨로 늘어뜨려 진홍색 비단 끈으로 묶고 비녀를 찔러 붓갓하게 만든다. 부인이 외출하며 말을 탈 때에는 검은 비단 너울을 쓰는데, 너울 끝이 말 위를 덮고 쓰개를 쓴다. 왕비와 귀부인만이 붉은 색으로 장식하지만 수레와 가마는 사용할 수 없다.



수베개 재현품
繡枕(再現品)
Pillow(Recreation)

『고려도경』에 “수베개(繡枕)는 흰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안에 황초(黃草)를 채우고, 양쪽 끝(枕頭)에 금안산(金安山)에 배짜구이(背仔 구이)는 수를 놓았는데, 그 무늬가 매우 정교하다. 또한 강라(江羅)·이근(衣衾)·포치(布)의 붉은색 견직물로 장식했는데, 마치 연꽃 모양과 같다. 이것을 송나라 사신에게 등급에 관계없이 고루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려시대 전으로 만든 취창용 수베개에 대하여 재료와 모양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일한 자료이다.



송나라 사신들이 바라본 고려인의 복식

정미숙 경기도박물관

송나라 사신 일행이 바라본 고려인의 복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들은 음력 1123년 6월 13일 순천관에 당도하여 7월 13일까지 개경에 머물렀으며, 각자 분야를 나누어 고려의 생활문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에는 복식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왕 이하 관리의 관복에 대하여 기록한 <관복(官服)편>과 그 이 외에 <장위(杖屨), <도교(道敎), <민서(民書), <부인(婦人), <조예(朝服), <잡속(雜俗)편 등에는 신분별 군복과 일상복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먼저 권7 <관복(官服)편을 보면 서문에 “송나라 때 해마다 사신을 보내 옷을 자주 내리면서 의복제도가 송의 것을 따르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입는 옷(朝衣)과 집에서 입는 옷(朝服)이 송과 다른 것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를 관복도에 그린다.” 하였다. 즉 고려의 관복이 송의 관복제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송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평상복은 더 많이 달랐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특히 다른 점들을 「고려도경」에 적고 그리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본 장에서는 서경 일행이 고려인의 복식에 대하여 보다 관심 있게 보고 적은 고려왕의 복식과 관리의 복식 그리고 「고려도경」에 자주 언급된 고려인의 모시옷과 여성의 옷 중 특히 특이하게 본 선군복(先軍服)과 풍수복(風水服)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왕의 복식

왕의 복식에 대해서는 “상복(喪服)에 오사고모(烏紗高帽) : 검은색 선근 견직물로 만든 모장이 높은 모자에 착상모(笠) : 소매가 좁은 당황색 모를 입고, 금빛과 푸른빛살로 수를 놓은(縵) 자라늬건(紫羅纈巾) : 자색 선근 견직물로 감싼 허리띠를 띠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사민(士民)을 만날 때에는 복두(服頭) : 흑색의 두건을 쓰고 속대(束帶) : 띠를 한다.” 라고 하였고, “제사를 지낼 때에는 연규복(連袞) : 여기서 연은 면복차림을 말하는 것으로 면복에는 ‘연류관’이라고도 하는 관을 쓰는데, 연류관은 앞쪽이 둥글고 뒤쪽이 네모난 검은색 판에 앞뒤로 구슬을 꿰 줄을 늘어뜨린 형태의 관이다. 규는 옥으로 만든 길쭉한 네모형의 판으로 면복에 갖추어 손에 쥐는 것이다. 신하의 것은 홀(笏)이라 한다. “중국 사신이 방문할 때에는 자라공복(紫羅公服) : 자색의 조직이 선근 견으로 만든 관복에 상용옥(象象玉) : 상이 재질의 홀과 옥장식 허리띠를 두른다 하였다.” 또한 “평상시는 검은 두건(烏巾)에 흰 모시(白紵)를 입어 일반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 서경 일행이 고려왕의 복식을 보고 관찰한 결과 의례적 상황에 따라 겹옷의 색과 허리띠, 모자 등을 각기 다르게 착용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일반백성과 다르지 않음이 아마 특별해 보였던 것 같다.

관리의 복식

관리의 복식에 대해서는 등급 순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등급이 높은 순으로 1~2품에 해당하는 영관(永官), 국상(國相), 3~4품에 해당하는 근시(近侍), 종관(宗官) 복식은 모두 자문라포(紫文羅袍) : 자색의 무늬 있는 선근 재질의 고급 견직물로 만든 모에 사복(紗) : 조직이 선근 견로 만든 복두(服頭) : 모자를 쓰고, 허리에는 옥대(玉帶)와 금대(金帶)를 하였다. 단 등급의 차이에 따라 허리띠의 재질과 무늬를 다르게 하였는데, 영관은 옥대(玉帶)에 금어(金魚) : 허리띠에 다는 물고기 모양의 장식, 국상은 구문금대(龜文金帶) : 동리(銅裏) 무늬를 장식한 금대에 금어, 근시는 어선금대(鰲文金帶) : 어지(鰲)무늬를 장식한 금대에 금어, 종관은 어선금대(鰲文金帶)를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 5~6품에 해당하는 경감(經監)과 7~9품에 해당하는 조관(朝官)의 복식은 비문라포(非文羅袍) : 붉은색의 무늬 있는 선근 재질의 고급 견직물로 만든 모를 입고, 허리띠의 경우 경감은 홍정서대(紅正犀帶) : 홍색비단을 감싼 허리띠로 무소를 재질의 장식이 있는 허리띠에 금어, 조관은 홍정각대(紅正角帶) : 홍색비단을 감싼 허리띠로 감청(紺)을 재질의 장식이 있는 허리띠에 금어 장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관복(西官服)은 포복(袍) : 녹색(綠)의 색, 저고리에 목홀(木骨) : 나무재질의 손에 쥐는 네모난 판을 들고, 복두(服頭)를 쓰고, 검은 가죽신(烏靴)을 신는다.” 하였다. 관리의 복식은 포의 색과 허리띠의 장식에 등급의 차이를 두어 다르게 착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관복의 겹옷에 해당하는 포복의 재질이 대부분 라포(羅) : 선근재질의 고급견인 것은 서경 일행이 다녀간 계절의 특성상 그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 사신들이 좋아한 모시옷

「고려도경」에는 왕 이하 일반 백성의 복식에 있어 모시옷에 관한 언급이 자주 눈에 띈다. 모시옷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백성들은 흰 모시로 만든 포(白紵)에 네 가닥 끈이 있는 검은 두건(黑巾)을 쓰는데, 옷감의 굵고 거친 것으로 귀천을 구별하고, 두건의 끈의 수에 따라 두



가닥 끈(靛靛)의 두건(靛靛)은 귀족층에만 사용하여 “간혹 거리를 걸어갈 때도 황리나 백성은 이 두 가닥 두건을 보고 피한다.” 하였다. 여성의 복식에도 “흰색 모시 저고리에 황색 모시치마(白紵黃袴)를 입는데, 왕족 귀족(公族貴族)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民庶) 처첩(處妾)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같다.”라고 하였고, 여성의 긴 겹옷인 “흰색 모시 포(白紵襖)는 남자의 것과 대략 비슷하다.” 라고 하였다. 또한 장인의 복장은 “항상 백저조간(白紵調間) : 흰 모시모에 검은 두건을 쓴다.” 라는 내용도 보인다. 아울러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의 평상복으로 검은 두건에 흰 모시모를 입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그들이 본 고려의 평상복은 왕 이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온통 모시 옷 이야기란 점이 흥미롭다. 그렇다면 고려인의 복식 재료가 모시 뿐이었을까? 『고려도경』에 보면, 여성의 바지는 “문농관고(文農冠袴) : 무늬가 있는 농직의 넓은 바느바지를 입는다 하였고, “가을과 겨울용 치마(衣)로는 황견(黃絹)을 사용하여...”라 하여 능(綾)이나, 가을·겨울용에는 모시보다 치밀하게 편 견 재질의 치마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인이 모시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나라 사신들이 고려인의 모시옷을 자주 언급한 데에는 그들이 고려에 머물렀던 시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이 개경의 순천관에 머물렀던 시기를 양력으로 보면 7월 7일~8월 6일까지 약 30일간이다. 절기상 가장 더울 때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통기성이 뛰어나고 세탁에도 강한 모시가 한여름에는 최고의 의복 재료이었을 것이다. 송나라 사신 일행이 유독 모시옷만 보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일 수 있다. 『고려도경』 권23 집속 조에 보면 모시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고려는 모시(紵)와 심(縠)을 스스로 심어, 사람들이 베풀을 많이 입는다. 재질 좋은 것을 시(縠)라 하는데, 깨끗하고 희기가 옥과 같고 폭이 좁다. 그것은 귀신(縠)들이 다 입는다.” 하였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모시와 마를 많이 짚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섬세직의 기술이 뛰어나 대단히 가늘고 고운 모시를 짜서 중국에 보냈다고 한다. 또한 『고려도경』 권3 교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에서 물물 교환시 돈을 쓰지 않고 모시나 은병으로 가치를 매겼다는 걸 보면 모시는 화폐이자 중요 무역품으로 고려의 섬세한 모시에 반한 서군 일행이 모시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송나라 사신들 눈에 특이해 보인 선군과 몽수

『고려도경』의 내용 중에는 여성의 복식에 대해 직물의 종류와 대략적인 치수까지 언급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 옷이 있다. 바로 선군(緜軍)과 몽수(蒙手)이다. 선군에 대해서는 “8폭으로, 거드랑이(鷓鴣)에까지 끌어 올려 입는데, 여러 번 겹칠(重疊)수록 고상하게 여긴다.” 하였고, “부귀한 집안의 처첩은 군(軍)을 만드는데 7~8필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가소롭다.”라고 하였다. 선군은 송대 여성복식에 ‘알뿔가 갈라져 말을 탈 때 입으면 편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와 유사한 것이 조선시대에는 말군(馬軍)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군은 말을 탈 때 차마 위에 덧입는 것으로 목이 넓고, 밑이 트인 순마용 바지이다. 때문에 이러한 용도의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송 사신들이 이를 보고 가소롭다고 하였으니 송의 선군과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름이 많고 길이가 길어 일반차마와는 구별되는 긴치마로 보는 견해도 있어 이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정리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몽수에 대해서는 “조라몽수(朝羅蒙手) : 성근조직의 검은색 견으로 만든 쓰개는 3폭으로 한 폭의 길이가 8척이다. 정수리부터 아래로 늘어뜨리면서 눈과 얼굴만 드러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땅에까지 내려온다.” 하였고, “말을 탈 때 몽수를 쓰는데 몽수 끝이 말 위를 덮으며 립(笠)도 쓴다.” 하였다. 또한 “몽수의 가격이 은(銀) 1근에 해당하므로, 힘이 닿지 못하는 일반백성은 사용하기 힘든 것이다.” 라고 하여 몽수에 대한 내용이 세 번이나 등장한다. 이와 유사한 것이 조선시대에는 너울(羅)이라는 것이 있다. 너울은 말을 타고 와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썼던 것으로 성근 재질의 견직물을 립(笠)에 싸우면 어깨선으로 넘는 길이로 얼굴 전체를 가리게 되는 여성용 쓰개이다. 이는 고려의 몽수와는 길이나 형태 면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도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송나라 사신 일행이 거드랑이까지 치켜 올려 입은 선군 차림에 머리에는 땅을 닿을 정도의 검고 긴 몽수를 쓰고 말을 탄 고려여성을 보니 꽤나 특이해 보였던 것 같다.

“부인이 몸을 꾸밀 때는
화장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분을 바르지만
붉은 색은 사용하지 않으며
버들같이 그린 눈썹이
이마의 절반을 차지한다.”

婦人之飾 不善塗澤 施粉無朱 綉眉半額
- 卷20 婦人 貴婦

서궁이 본 고려의 귀족 부인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드리우고,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뜨리는데 진홍색 비단끈으로 묶고 작은 비녀를 꽂았다. 머리에는 검은 비단으로 만든 몽수를 쓰며, 몸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무늬 있는 비단으로 큼지막하게 만든 바지를 입는다. 발들인 끈으로 금방울을 매단 푸른색 두건을 쓰며, 부귀의 표시로 비단 향주머니를 찬다. 치마는 노란비단으로 만들어 겨드랑이까지 끌어올려 높이 묶는데 많이 휘감을수록 고상하게 여겼다. 또한 부채를 걸 때에는 손톱이 보이는 걸 부끄럽게 여겨서 진홍색 주머니로 가리기도 하였다.

일반 여성은 물건을 이거나 지는 일이 잦았다. 부녀자는 항아리를 어깨에 매거나 머리에 이며, 한손으로 항아리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옷을 추스르거나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업는다. 게다가 옷을 빨고 명주나 삼을 표백하는 일도 하는데, 밤낮으로 일해도 힘들다고 하지 않았다.

청자 상감 국화무늬 합

靑瓷象嵌菊花紋子盒
Celadon Covered Boxes

고려 13세기 | 전체높이 2.8, 입지름 4.4 | 이모레미술박물관

귀족 여성의 화장용구로 사용된 소형 합이다. 여섯 잎의 꽃모양¹에 합과 세 개의 합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뚜껑에는 큼직한 국화꽃이 한 송이씩 장식되어 있고, 주위에 작은 꽃잎 몇 개를 배치했다.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합

靑瓷象嵌雲鶴紋母子盒
Celadon Covered Boxes

고려 13세기 | 높이 6.1, 입지름 12.5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귀족 여성의 화장도구인 청자모지합(靑瓷母子盒)이다. 커다란 외합(外盒) 안에 네 개의 작은 합과 유병 한 개가 들어있다. 네 개의 작은 합은 모두 동일하며, 외합의 축소형이다.



화장도구

化粧具

Cosmetic Tool

고려 | 길이 11.4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족집게와 작은 칼을 세트로 한 화장도구이다. 고려 여인들은 거울을 보면서 화장도구로 아름다움을 가꾸었다.



청자 상감 국화무늬 향합

靑磁象嵌菊花文香盒

Celadon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1, 입지름 7.0 | 소장3152

합의 뚜껑 상단에 문양이 세문되어 있는데, 원문 안에 아름모가 있고 그 안에 국화무늬가 상감으로 시문된 청자 향합이다. 상·하단 측면에는 영각으로 선무늬가 장식되어 있고, 옆면으로는 구름무늬가 음각되어있다.



청자유병

靑磁油瓶
Celadon Oil Bottles

고려시대 사용된 화장용 기름을 머릿기름, 연지, 눈썹머 등 화장재료를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기름, 향이 나는 기름 등을 보관하는 용기로 추정된다.

청자 철화 낭월무늬 유병
靑磁鐵畫唐草文油瓶
Celadon-glazed oil bottle with a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12세기 | 높이 6.1 | 소장 92

청자 상감 꽃무늬 유병
靑磁象嵌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Flower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4.2 | 소장 3154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유병
靑磁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4.9 | 소장 2984

청자 퇴화무늬 유병
靑磁堆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고려12세기 | 높이 3.8 | 소장 4826

청자 상감 구름무늬 유병
靑磁象嵌雲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loud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6.0 | 소장 96

청자 상감 국화무늬 유병
靑磁象嵌菊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14세기 | 높이 4.2 | 소장 2190



쌍용무늬 거울

雙龍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win Dragon Design

고려 | 지름 26.0 | 소장 2935



십이지신이 새겨진 거울
十二支銅鏡
Bronze Mirror with Twelve Earthly Branches
고려 | 지름 17.5 | 소장 7224



용 나무 전각 무늬 거울
靑銅龍樹殿閣文銅鏡
Bronze Mirror with Figures and Pavilion in a Landscap
고려 | 지름 18.0 | 소장 6874



종 모양 거울
鐘形銅鏡
Bronze Bell-Shaped Mirror
고려 | 길이 20.0 | 소장 2862

고려 거울의 비밀

전익환 경기도박물관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땅에는 금은^{金銀}이 적고, 구리가 많이 난다”하였고, 「송사」고려전에는 “민가의 그릇이 모두 동^銅이다”라고 하여, 고려에 동이 매우 풍부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고려시대 관련 문헌에는 고려의 동^銅은 특히 품질이 좋아 ‘고려동’으로 불릴 만큼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고려시대에는 풍부하고 질 좋은 구리를 가지고 다양한 재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청동거울이다. 이는 금속을 녹이고 도구를 만드는 일을 맡아보던 장야서^{掌冶使}에 배속된 장인 중에 경장^{京長}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청동거울은 여러 가지의 무늬가 새겨진 문양면과 물체의 모습을 비추는 경면으로 되어 있다. 문양면은 아름다운 무늬와 길상으로 장식되어 그 시대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고, 매끄럽고 반짝이는 경면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를 비추는 실용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청동거울은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통일신라시대까지는 기능적인 용도보다는 신비스럽고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려시대에 들어오면서 청동거울은 물건을 비추는 본래의 기능인 화장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다수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청동거울의 재료에서도 이전까지는 주석함량이 높은 청동을 사용하지만, 고려시대부터는 주석함량이 크게 낮아지는 변화를 보인다.

재료의 변화는 거울 제작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거울의 소재인 청동은 붉은색의 구리와 흰색의 주석으로 만든 합금으로 주석의 함량에 따라 색이 달라지게 된다. 붉은색과 흰색 물감의 비율에 따라 색이 다르듯이 주석함량이 높아질수록 청동의 금속색은 붉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다가 은백색으로 변한다. 은백색일 때 빛 반사도가 높아 물체가 잘 보이게 된다. 그러나 금속색의 변화와 함께 금속의 성질도 바뀌어 주석함량이 높아질수록 충격에 쉽게 깨져버린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려의 장인들은 거울의 경면에 특별한 처리를 시도한다. 청동거울이 은백색을 띠게 되면 빛 반사율이 높아져서

연마만으로 경면을 완성시킬 수 있다. 반면에 주석함량이 적어 빛 반사율이 낮은 청동거울의 경면은 백색 금속인 주석과 수은을 이용해 피막 처리를 하여 반사율을 높였다. 경면의 피막처리는 그 당시 값비싼 주석의 사용량을 줄임과 동시에 사용 중에 쉽게 깨지지 않는 청동거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주석함량에 따라 색이 변하는 청동거울
(위에서부터 0%, 10%, 15%, 22%, 25% 주석함량)



주석함량이 높아
은백색을 띠는 청동거울



주석함량이 낮아
경면에 피막처리를 한 청동거울

차茶, 술酒, 향香, 약藥

서궁이 본 고려사회는 차 문화가 성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차가 생산되었지만 중국과의 무역으로 여러 종류의 차가 수입되었다. 최고급 차는 중국 황제가 내려 사신이 가져온 납차와 용봉명차였다. 체류기간 동안 사신들도 숙소에서 차를 즐겨 마셨는데 숙소 부근 향림정에서 바둑을 두고 담소를 나누면서 차를 마시는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위를 쫓는 방법이라 여겼다.

“고려산 차는 맛이 쓰고 떨어
차마 마실 수 없다.
중국산 납차와 용봉사단을 귀히 여겼다.
하사해 준 것 이외에도
상인들 역시 가져다 팔기 때문에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한다.”

土產茶 味苦澁 不可入口 惟貴中國臘茶 并龍鳳瑞團 自開費之外 商賈亦過販 故邇來 頗喜飲茶 - 卷32 器皿3 茶壇

“고려사람들은 다구를 잘 만드는데,
금화오잔이나 비색소구, 은로탕정 같은
다구는 모두 중국 것을 은근히
모방한 것이다.”

器治茶具 金花鳥盞 翡色小瓶 銀爐湯鼎 皆竊效中國制度 - 卷32 器皿3 茶壇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시는데,
뒤이어 또 탕을 내놓는다.
고려사람들은
탕을 약탕이라고 한다.”

日嘗三供茶 而繼之以湯 麗人 謂湯爲藥 - 卷32 器皿3 茶壇

차를 마시는 계층도 다양하여 왕실과 귀족, 승려를 비롯하여 서민계층에까지 이르렀다. 마시는 예절과 도구도 잘 갖춰져 있었고, 찻상에 다양한 차 도구를 올려 항상 곁에 두고 하루 세 번 차를 마셨다. 따뜻한 물을 끓이고 보관하기 위한 탕호, 차를 담아 마시는 사발과 잔, 찌꺼기를 버리는 퇴주기 등이 대표적인 차 도구였다. 궁궐에서는 금은기^{金銀器}나 비색 청자^{靑磁}에 최고급의 차 문화를 즐겼다.

한편 차를 마실 때는 고려 나름의 예의와 절차가 있었는데, 서궁은 매우 신기하게 생각했다. 연회^{宴會}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를 다 돌리고 시중이 '차를 다 돌렸습니다.'라고 한 후에 마실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매번 식은 차를 마셔야 했으며 다 마시지 않으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 항상 억지로 마셨다고 한다. 서궁은 고려에서 마신 차를 탕^湯으로 보았고, 고려사람들은 약^藥으로 불렀다고 하였는데, 당시에는 썬서 말린 차 잎을 갈아 물에 타는 말차^{末茶}를 마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도〉 부분

文會圖部分

북송(北宋) | 대안 국립고궁박물관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휘종(1082~1113) 황제의 그림으로 귀족들이 궁중에 모여 차를 마시는 장면을 그렸다. 차 문화가 발달했던 북송 시기의 차를 마시는 격식과 예절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청동 주전자

靑銅酒子
Bronze Jar

고려 | 높이 36.0 너비 13.9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어깨부분에 짧은 주구대구가 붙어있고 주구와 몸통의 연결부분은 꽃잎모양이다. 몸통에는 띠 모양의 손잡이가 부착되었고 뚜껑에는 손잡이가 달려 있어 따뜻한 물을 담고 따르기에 편리한 형태이다.





찻잔 뚜껑 재현품
 鑿河(再現品)
 Silver lid(Recreation)

고려 | 지름 13.0 | 개인소장

찻그릇의 뚜껑인 '은하'를 재현한 것이다. 서금은 "궁궐에서 연회 때면 시종드는 사람이 차를 끓여서 은으로 만든 연잎 모양의 뚜껑뚜껑을 덮어서 차신에게 내 놓았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속소에서 붉은 찻반 위에 차 도구를 두고 매일 세 차례 차를 마셨다고 하여 채류 중에도 고려의 차 문화를 즐겼음을 알 수 있다.





청자 잔

靑磁盞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4.5 입지름 12.4 | 소장 371

금이 좁고 끝이 바러진 찻잔으로 전체가 고르게 시유되었다.



청자 양각 연꽃잎무늬 잔

靑磁陽刻蓮瓣文盞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2, 입지름 8.2 | 소장 2187

동행잔의 형태로 겉면에 연꽃무늬가 양각된 청자 잔으로 12세기 전후로 크게 유행하였다.



청자 잔

靑磁盞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8.7, 입지름 9.5 | 소장 2182

두경과 잔으로 이루어져 있는 찻잔이다. 두경에 손잡이 꼭지가 있으며, 내면은 시유되지 않았다. 잔의 바닥면에는 내회로 비장문칭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음각 앵무무늬 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6, 입지름 17.6 | 소장 2473

그릇 안쪽에 성스러운 새(瑞鳥)인 앵무새 세 마리가 음각되어 있으며, 내면 저부에는 불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굽의 안쪽에 규석받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양각 연꽃무늬 대접

靑磁陽刻蓮花文大椀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Flower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9, 입지름 17.7 | 소장 3110

그릇의 바깥 면에 양각으로 꽃잎을 조각하고 음각으로 2단의 꽃잎 세부 형태를 시문하였다. 전체적으로 한 송이의 연꽃이 된 모습이다.



청자 음각 국화 넝쿨 무늬 대접

靑磁陰刻菊唐草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7.6, 입지름 17.7 | 소장 2185

안쪽 면에는 국화무늬를 음각으로 장식하였다. 광택이 좋고 투명한 암록색의 유약을 시유하였으며 굽은 높이가 낮고 역음새가 단정하다.

어느 시대나 술은 행사나 연회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술을 익히고, 저장하고, 이동하는 등 여러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술그릇의 종류도 다양했다. 서궁은 고려의 술이 품질이 좋지 않고 맛도 없다고 평가했다. 왕은 맑은 법주를 마시지만 서민들은 보통 멧쌀에 누룩을 섞어서 만들어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한 술을 마셨다.

“고려에서는 참쌀이 없어서
멧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

國無米而以合麴而成酒色重味烈易醉而速醒
· 卷32 器圖3 瓦尊

“술잔을 주고받을 때는
빈객과 주인이 백번을 배례하여도
감히 예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獻酬之儀賓主百拜不敢廢禮
· 卷26 燕禮 燕儀

“술병의 형상은 참외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겉면에는 연꽃이나
앞드린 오리 문양이 있다.”

酒尊之狀如瓜上有小蓋蓋爲荷花伏鴨之形
· 卷32 器圖3 陶尊

자리의 예법은 술잔을 주고받는데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왕이 사신들에게 술을 세 차례 돌려야 겨우 의례가 끝났는데, 이후 열 다섯 차례 주고 받고 잠시 선 뒤에 다시 십여 차례 돌아야 1차 술자리를 마칠 수 있었으며 때로는 2~3차로 이어질 만큼 술자리가 길었다.

술그릇은 금, 은, 구리, 도기, 청자 등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청자로 만든 그릇을 특별히 귀하게 여겼다. 술은 항아리나 병에 비단을 씌워 저장하였고, 병에 나누어 담아 잔, 접시, 사발 등으로 마셨다. 서궁은 고려의 술그릇이 중국의 것과 분위기, 모양 등이 비슷하다고 했지만 참외모양에 작은 뚜껑이 있는 비색의 청자 술병은 특별히 솜씨와 빛깔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聞道城都酒 無錢亦可求
不知將幾斛 消得自來愁
無塵終不掃 有鳥莫令彈
若要添風月 應除數百竿

성북 안의 술은 돈 없어도 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마시면 근심이 없어지려나 세속의 인연이야 끝내 없앨 수 있지만
자연 속의 새들은 용게 할 수 없구나
이 좋은 분위기에 맞물린다면 대나무 수백 그루가 있어야 되겠지

원문 해석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다시 보는 역사편지 고려요지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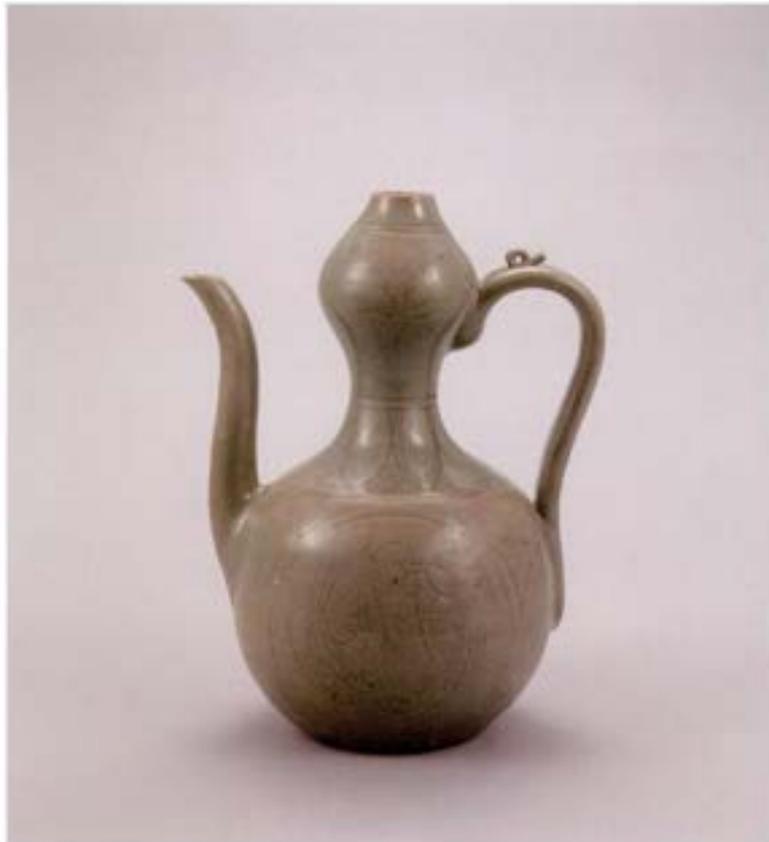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주전자

靑磁象嵌雲鶴文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남은 높이 20.0 | 국립중앙박물관

당나라 시인 한유^{韓愈}의 시를 새겨 넣은 청자 주자이다. 고급 청자를 많이 만든 전북 부안 유천리의 가마에서 구운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 음각 앵무부늬 주전자

靑磁陰刻鸚鵡文酒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5.7 | 소장 3181

표주박 모양의 청자 주전자로 하단부에 앵무새를 그려 넣었다. 뒷 몸체에는 꽃잎이 시문되었고, 연결부와 아랫 몸체에는 연잎무늬를 장식하였다.



청자 상감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象嵌菊花文瓢形酒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고려 13세기 | 높이 34.8 | 소장 5015

긴 주구와 손잡이를 갖춘 볼륨감 있는 주전자이다. 전체를 양각의 종선 8구획으로 나누고 국화모양 도장으로 박박하게 상감하였다. 바닥과 닿는 부분에 연꽃무늬를 둘러 엮을 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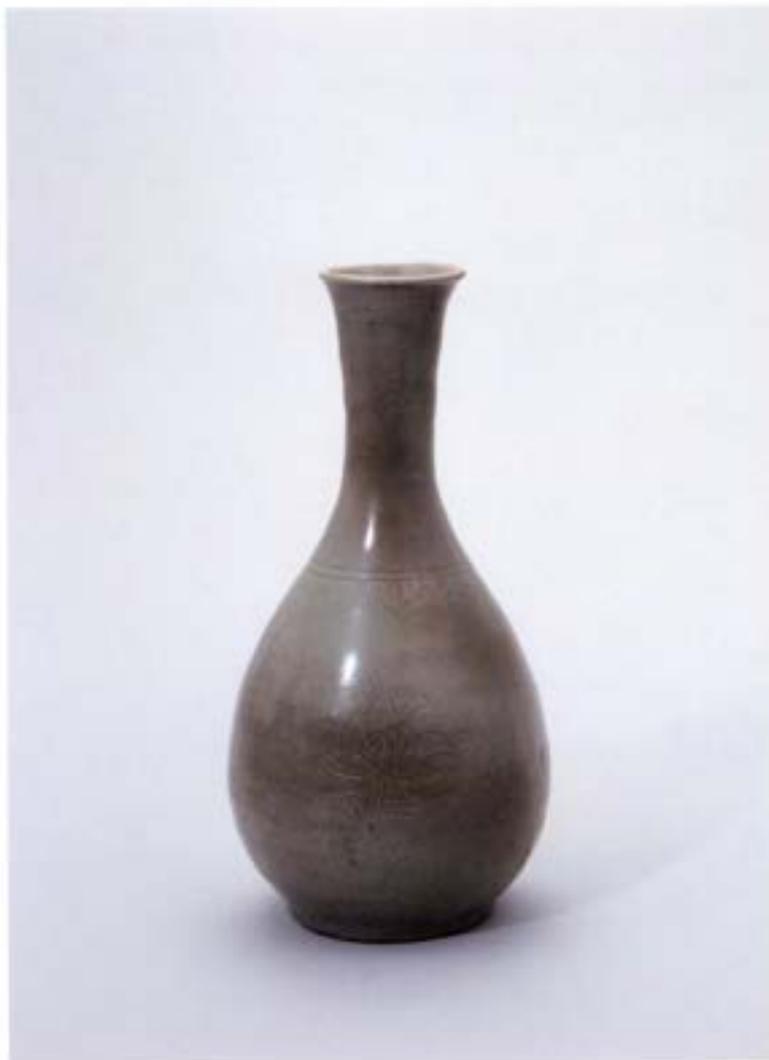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주전자

靑磁象嵌雲鶴文酒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17.7 | 소장 4822

동근 공 모양의 주전자로 주구와 손잡이 그리고 좁고
공개 돌린 입이 달려있다. 몸체에 흑백 상감된 구름
학 무늬와 그 사이에 음각된 풀무늬가 어우러져 있다.



청자 음각 모란무늬 병

靑磁陰刻牡丹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6.6 | 소장 5131

병의 주문양인 모란꽃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상단 부분은 두 줄의 황선으로 구획하고 여의무늬를 음각으로 시문하였다. 굽의 바닥 부분에 내화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음각 모란무늬 완

靑磁陰刻牡丹文碗
Celadon Cup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5 | 입지름 10.6 | 소장 3109

완의 바깥면은 모란꽃과 꽃잎 무늬가 음각되어 있고, 안쪽 바닥에는 변형된 구름무늬가 세밀하게 음각되어 있다. 굽의 바닥 접지면에 내화토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文盃-盞托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 잔 높이 6.4, 입지름 7.0, 받침 높이 5.4, 입지름 14.7
| 소장 2481

세금이 많은 반전(半轉)과 유사한 기종으로 재질은 다르지만 꽃을 정교하게 새긴 점이 특징이다. 송나라에서는 잔을 관찰 때마다 새로운 잔으로 바꾼다고 하였다.



청자 용머리 손잡이 잔

靑磁龍頭形把手盃

Celadon Dragon Head-shaped Cup

고려 13세기 | 높이 4.0, 입지름 8.3 | 가천박물관

용머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청자 잔이다. 여섯 장의 잎으로 만든 꽃 모양의 잔 외면에 상감으로 국화무늬를 그렸다. 전체적으로 구름(雲)의 형태를 하고 있다.



“조서를 맞을 때는
사향을 피우고,
공적인 모임 때는
독누, 용뇌, 전단, 침수 등을 태운다.”

迎詔焚麝香 公會刑罰其辨臨臨佛禮沈水之屬
· 卷30 器用1 獻儀

향은 보통 적당한 가열에 의해 향을 내는 분향을 말한다. 특히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였고 민간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의약재, 식재료, 미용재료 등으로 많이 썼다. 나라에서는 외국사신을 맞이하거나 왕실의 책봉의식, 혼례의식, 명절, 중국황제의 생일축하의식, 지방관의 국왕조서 맞이 등 의례에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대궐의 실내에는 향을 늘 피워 놓았고 향목^{香木}으로 가구를 만들기도 했다. 사향과 전단을 제외한 향은 대부분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왕실이나 귀족층만이 사용하였다. 왕은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향을 하사하였는데, 『고려사』에 인종이 김부식에게 향약^{香藥}을 하사하는 기록으로 보아 향이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다.

백자 향합

白磁香盒
White Porcelain Incense Case

고려 12세기 | 전체높이 8.2, 지름 12.0 | 소장 5014

향을 보관하던 합으로 아래 합은 물로 찌어 제작하였으며 청자 합에 비해 약간 크고 높은 편이다. 경기 남부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 향합

靑磁香盒
Celadon Incense Case

고려 12세기 | 높이 4.3, 입지름 8.7 | 소장 2847

향을 보관하는 청자 합으로 뚜껑과 그릇의 접합면이 정교하게 맞는다. 뚜껑의 꼭대기부분에 3층의 음각선을 시문하였다. 바닥 부분에는 내화토를 받쳐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청동 향완

靑銅香碗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9.0, 입지름 18.3 | 소장 2499

문양이 없는 의식용 향완으로, 세발 달린 향로보다 낮은 시기에 만들어졌다.



백자 향완

白磁香碗
White Porcelain Incense Burner

고려 11세기 | 높이 18.0, 입지름 13.4 | 소장 5025

무늬가 없는 향완으로 청동 향완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옛날 고려의 풍속에는
백성들은 병이 들면
여간해서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귀신에게 빌어 치료했다.”

高麗舊俗 民病不服藥 唯知事鬼神
- 卷16 官府 藥局

“고려에서는 다른 재화는
모두 물건을 이용해서 교역하는데,
약을 거래할 때만은
간혹 돈으로 교역한다.”

高麗他貨 皆以物交易 唯市藥 則間以錢貨焉
- 卷16 官府 藥局

사절단 방문에 앞서 송나라 의관^{醫官}이 고려로 파견되어 2년 만에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이후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 늘어났다고 하였다. 의관의 고려 파견은 당시 고려에 크게 유행했던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구호활동으로 여겨진다. 고려 왕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약국^{尙藥局}을 두었고, 관료와 백성의 전염병 치료, 약품제조, 의학교육, 과거 시험 등은 태의감^{太醫院}에서 관장하였다. 1118년^{熙宗13}에는 민간의 질병을 치료하고 약을 판매한 해민국을 신설하였다. 또한 무의탁 환자의 진료를 위해 동서대비원^{東西大比院}을 개경의 동서에 설치하였으며, 빈민의 구호와 진료를 위한 제위보^{濟危保}를 두었다. 이로 미루어 약을 멀리했다는 서궁의 기록은 일부 장면을 보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약을 거래할 때만 돈으로 교역한다는 기록도 착오일 가능성이 높다. 서궁은 이미 다른 부분에서 금속화폐를 주조한 관청인 주전감^{鑄錢監}을 언급하였다. 서궁이 방문하기 20여 년 전부터 해동통보가 쓰였기 때문에 고려인이 약을 거래할 때 화폐를 사용한 장면만 보고 판단한 듯하다. 당시 고려와 상대했던 무역국의 대부분은 물화교역이 기본이었다. 고려사회에서 송나라 동전은 감상용으로만 보관했다는 서궁의 기록도 귀족 계층에서 중국 동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교환 수단으로도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여준다.

‘상약국’이 새겨진 청자 합

靑磁陰刻尙藥局銘盒
Celadon Covered Box with Incised Inscription of '尙藥局'

고려 12세기 | 높이 9.6, 지름 7.0 | 한복의학박물관

상약국은 왕실의 진료를 담당했던 관청이다. 항함에 비해 높이가 높은 원통형이며 약그릇으로 추정된다. ‘상약국’ 글자가 있는 청자 파편이 전남 강진군 용운리 가마에서 출토된 바 있고, 중국 북송 정요^{正耀}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향약봉위'가 새겨진 질그릇

香藥奉位銘陶器
Earthenware inscription of '香藥奉位'

고려 | 높이 11.2 | 소장 5138

향약봉위(香藥奉位)가 그릇의 겉면에 쓰여 있다. '향약봉위'란 '향약을 모셔둔다' 또는 '향기로운 약을 모셔둔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북모양 약마석

龜形藥磨石
Tortoise-shaped Triturator

고려 | 높이 18.0 너비 33.0 | 한국의약박물관

약재를 가루로 만들던 도구로 옛돌과 유사한 형태이다.



음식과 생활용기

“고려는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굽어보는데,
땅은 척박하고 돌이 많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농사를 지으며
길쌈이 이롭고 소나 양을 기르는데
알맞으며 다양한 해산물이 좋다.”

高麗 依山臨海 地瘠而饒 然而有種種之種 麻紵之利
牛羊畜產之宜 海物博饒之美 · 卷23 雜俗2 土産

“식품은 10여종인데
국수가 먼저고
해물은 더욱 진기하다.”

食味十餘品 而糧食爲先 海糧尤爲珍異
· 卷33 舟楫 饋食

“고려인은 평상 위에
또 작은 소반을 놓고,
구리 그릇에 어포, 육포,
생선, 채소를 섞어서 내놓지만
풍성하지는 않다.”

今麗人 於楨上 復加小碗 器用銅 諸魚菜 雖雜
然前進 而不豐饒 · 卷22 雜俗1 鄉歌

고려사람들은 곡류, 채소류, 해산물 등을 즐겨 먹었다. 곡물로는 쌀알이 크고 맛이 단 벼발을 포함하여 참깨, 보리, 밀 등 여러 잡곡이 있었다. 서궁은 특히 쌀의 보관 기술이 뛰어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해도 밥맛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고기는 왕실과 귀족에 한하여 양과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는 도살을 좋아하지 않는 풍습과도 관련이 깊다. 대신 해산물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먹을 수 있었다. 미꾸라지를 포함한 다양한 생선을 비롯하여 전복, 전주조개, 굴, 대합, 거북손과 같은 패류^{海味}와 다시마, 해조 등 해초류도 풍부하였다.

서궁이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국수였다. 국수는 손님맞이나 잔치 등 특별한 행사 때만 먹었으며, 연회에 나온 10여종의 음식 가운데 국수가 으뜸이라고 하였다. 고려는 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메밀이나 녹두, 마, 칩 등으로 면을 만들어 탄력은 떨어지는 편이었다. 이 때문에 면을 만들 때도 중국처럼 반죽을 잡아 늘리는 방법이 아니라 눌러서 가닥을 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서궁은 고려 땅에는 금은이 적고 구리가 많이 난다고 하였는데, 실제 구리는 고려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중국 「송사^{宋史}」, 고려전에는 '민가에서 모두 청동 그릇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백성들이 널리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동 식기는 청자, 칠그릇과 함께 무덤에 부장되는데, 접시·대접·함과 같은 그릇과 주전자·병·잔 등 술그릇 등이 각각 세트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주재료인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그릇과 숟가락·국자 등 식기류 외에도 거울·화로와 같은 생활용구에 폭넓게 활용되었다. 한편 서궁이 언급한 물독^{木甕}은 청동으로 만든 항아리로 여겨지는데, 크기가 큰 청동그릇은 후대에 다른 용도로 다시 가공되는 경우가 많아 남아있는 유물의 양이 매우 적다.

쇠솥

鐵鼎
Iron Caldron

고려 | 높이 33.0, 너비 27.0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서금은 위에는 뚜껑이 있고 배 아래에는 발이 셋인 모양의 쇠로 만든 실는 그릇을 '죽술(鑪)'이라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배 위에서도 음식을 쉽게 조리할 수 있었다.



청동항아리

靑銅大甕
Bronze Jar

고려 | 높이 55.0, 입지름 45.0 |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서금은 불이나 쌀, 마실 것을 모두 구리항아리에 저장하는데, 동물 모양의 양쪽 고리를 잡고 쳐들며 이를 머리 위에 이거나 지기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서금이 멸망하던 숙소 순천관에서는 청동항아리를 물독으로 사용하였다.





청동 합

靑銅盒

Bronze Covered Boxes

고려 | 가운데 위 높이 16.5, 지름 15.5 | 소장 709, 715, 1602, 1779

청동 입큰 병

青銅罍口瓶
Bronze Bottle

고려 | 높이 28.4, 입지름 9.8 | 소장 706

입이 넓은 청동 병으로 군대군대 퍼그려져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그릇은 도기와 청자로도 흔하게
제작되어 생활용구로 널리 활용되었다.



숟가락, 젓가락

青銅匙箸
Bronze Spoon, Chopsticks

고려 | 최대길이 28.7 | 소장 630, 704, 1711

서금이 발명하기 전부터 나무 숟가락이 점차 청동
숟가락으로 대체되었다. 청동 숟가락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무덤에 부장되는 풍속이 유행하였다.



“옛날 기록에 여름에도
잠시 밤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었더니
'잘 익은 밤을 질그릇에 담아서
흙속에 묻어두면 해가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舊記謂夏月亦有之 嘗問其故 乃盛以陶器 埋土中 故經歲不損
· 향23 雜帖2 土器

“맑은 뽕주를 질그릇 독에 담아서
누런 비단으로 봉해둔다.”

貯以瓦尊 而以黃絹封之
· 향32 雜帖3 瓦尊

질그릇(陶器)은 청자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주로 서민들이 사용하였다. 제철
과일을 장기간 보관할 경우 질그릇 항아리를 땅에 묻어 두고 냉장고처럼 사용
하였다. 질그릇은 물 뿐만 아니라 술, 기름, 참기름 등과 같은 액체로 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도 즐겨 사용하였다. 13세기 초반 서해안에서 침몰한 태안 마도
2호선에서는 질그릇 매병에 입구를 완전히 밀봉할 수 있는 나무마개가 같이
나왔으며, 함께 출토된 목간에는 질그릇 안에 젓갈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음식을 담아 장기간 운반 이동하는 용도로 질그릇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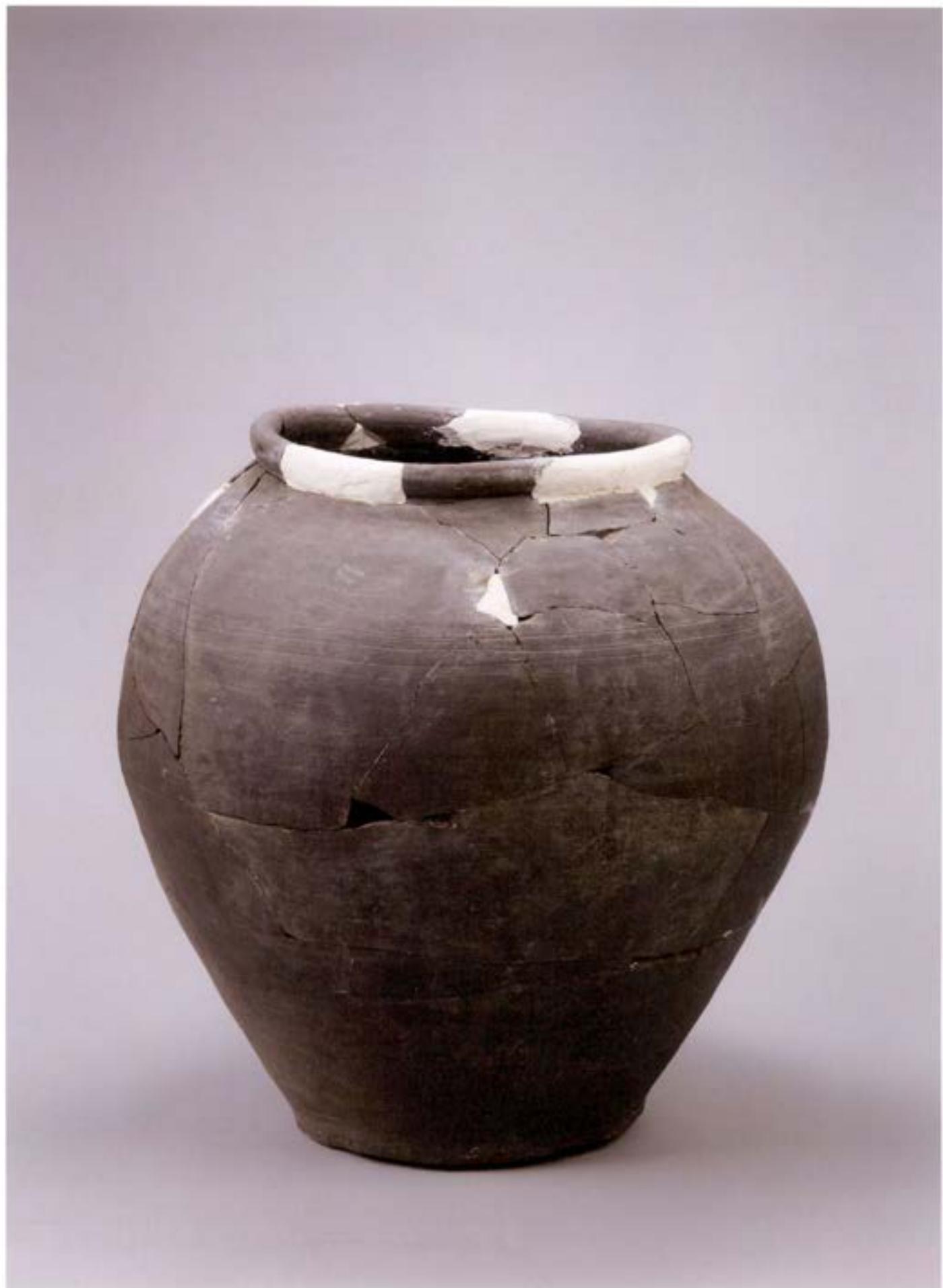


큰 독

陶器壺
Earthenware Big Jar

고려 | 높이 62.0, 입지름 34.5 | 안성 불업사지

서군은 큰 독을 보고 '몸체는 넓고 위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주둥이는 약간
넓다'고 묘사하였다. 사절단이 처음 서해안에 도착했을 때 고려 사람들은
큰 독에 물을 담아 배에 싣고 사절단을 맞이하면서 물을 전달하지 차와 쌀로
사예를 하였다.





동이
陶器壺
Earthenware Jar

고려 | 높이 30.5, 입지름 49.7 | 안성 봉업사지

동이는 청동 향아리와 함께 이고 지는 것을 좋아하는 고려 여인이 즐겨 쓰던 큰 그릇이었다. 많은 양을 담아 나르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시루
陶器甑
Earthenware steamer

고려 | 높이 8.0 입지름 12.5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쇠솥 위에 올려 수증기로 음식을 찌는 조리용 그릇이다. 고려인이 해산물을 많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서인의 가정에 기본적이 필수품이었을 것이다.



매병
陶器梅瓶
Earthenware Prunus Vase

고려 | 높이 30.7 | 소장 2243

세공이 면밀한 질그릇 술퇴(酒退)와 유사한 참외모양 매병이다. 술을 담으면 입구를 누린 비단으로 봉해준다. 귀족들은 청자 매병을 쓰지만 서민들은 질그릇 매병을 즐겨 썼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릇은 대부분 도금한 것이고
간혹 은으로 된 것도 있으나
청자를 귀하게 여긴다.”

器皿多以塗金 或以銀而以青陶器爲貴
- 卷26 高麗 高麗

“고려청자는 원주요 越州窯의
옛날 비색이나 여주요 汝州窯에서
요즘 생산되는 도자기와
대체로 유사하다.”

則越州古秘色 汝州新窯器 大槩相同
- 卷32 器皿3 陶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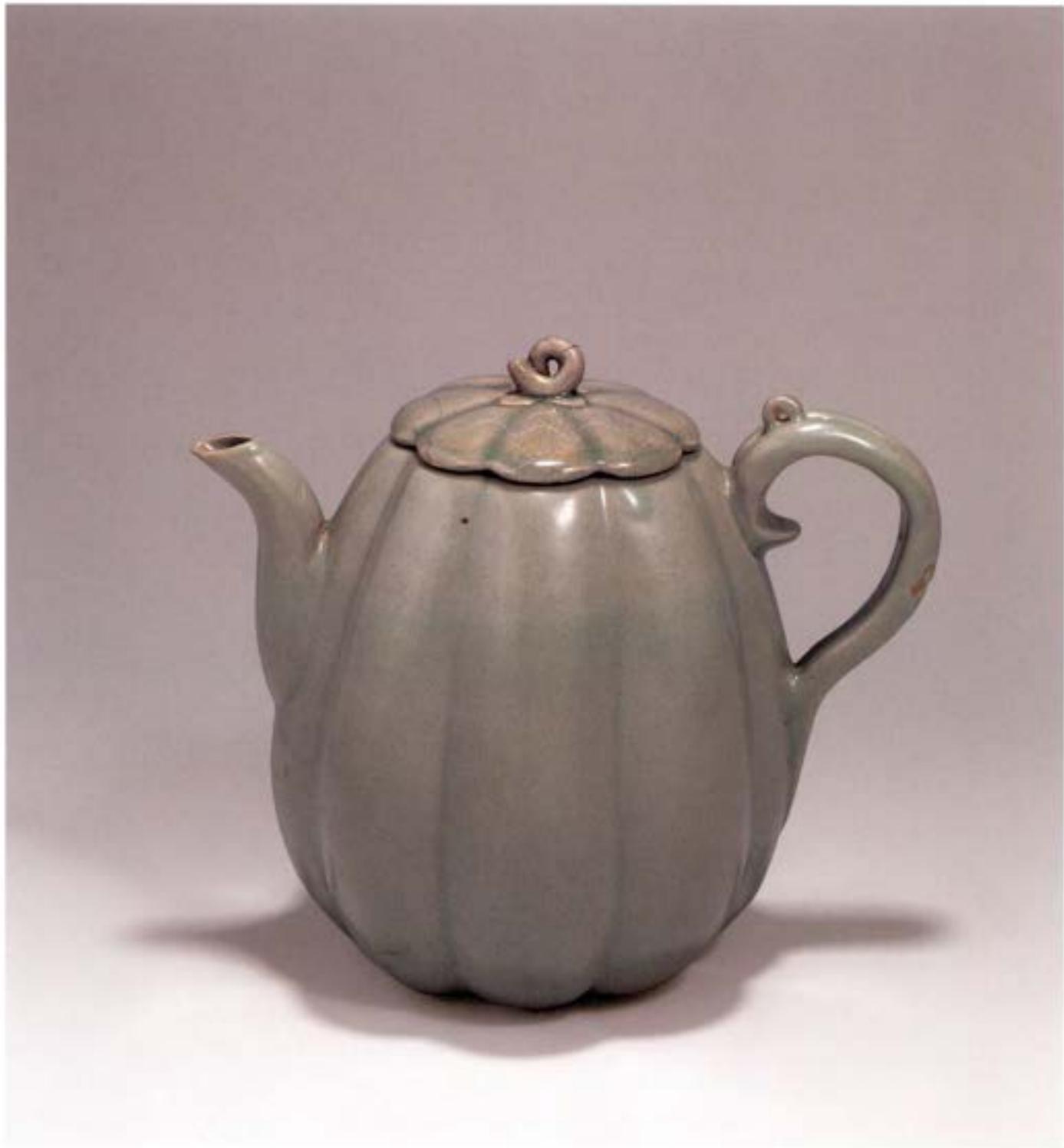
“완, 접시, 잔, 사발, 화병, 땅기 등도
능히 만드는데
모두 정기제도에 따라 만든 것이다.”

復能作盤 椀 碗 花瓶 盞 皆竊仿定器制度
- 卷32 器皿3 陶器

서궁은 사신단 숙소인 순천관에 “시설물과 기명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40여 종의 재질, 규격, 용량, 장식 등을 언급하였는데, 규격과 용량 등은 당시 송나라의 도량형(度量衡)과 똑같다고 하였다. 그릇은 청자가 가장 많으며, 금·은·동 등 금속기, 칠그릇, 칠기 등이 대표적이며 사용자의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가장 높은 신분이 사용한 금속기는 금 > 도금한 은 > 은 > 도금한 동 > 동 순서로 귀하게 여겼다. 금속기 다음으로는 청자와 도기 순이며, 칠기는 주칠기(朱漆器)를 흑칠기(黑漆器)보다 높게 여겼다. 한편 서궁이 칭찬한 비색청자는 궁궐에서 금속기와 혼용한 사례로 보아 동일하거나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청자는 중국의 제작기술이 도입되어 만들기 시작하였으나 100~200년 만에 기술을 크게 발전시켜 절정에 이르게 된다. 서궁은 고려 청자를 단순히 중국 청자의 모방품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고려 장인들의 오랜 실험과 노력으로 독특하고 우수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가 기록한 고려청자는 용도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술과 물 그리고 차 등 액체를 담는 기종이 가장 많으며, 향을 피는데 사용한 향구(香球)와 식기류, 꽃과 관련된 용구, 기타 등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청자와 기록을 비교하면 대치되는 기종은 몇 개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청자의 생김새나 제작기법 등으로 명칭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11~12세기 고려는 송, 요, 금과의 활발한 무역으로 여러 지역의 청자와 백자를 들여왔고, 다양한 형태의 제작기술을 참고하고 발전시켜 고려청자만의 색깔을 이룰 수 있었다. 기술의 유입과 관련하여 서궁이 표현한 ‘정기제도(定器制度)’에 대한 해석이 주목받고 있는데, ‘중국 하북성 정요(定窯)자기의 양식’라는 의견과 ‘그릇을 만드는 일정한 제작 제도’라는 의견이 있다. 고려의 비색청자는 북송의 관요, 여요와 흡사하기 때문에 정요자기의 양식만을 말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양이나 기형 등에서 정요자기의 요소를 가진 고려청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

靑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Ewer

고려 12세기 | 높이 19.1 | 소장 4819

몸체를 8등분하여 사실감 있게 표현한 참외모양 주전자이다. 당굴인양 곡선을 이룬 주구와 손잡이 그리고 몸체와 같은 참외 꼭지 모양의 뚜껑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유색은 짙은 비색청자유가 두텁게 사용되었다. 전남 감천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 음각 꽃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折枝花文形臺-蓮托
Celadon Cup and Stand

고려 12세기 | 잔 높이 7.4 입자름 9.2, 받침 높이 4.9 | 소장 4997

꽃을 형상화한 잔과 받침이다. 잔 받침은 편평한 잔에 음각으로 꽃잎을 새기고, 굵은 꽃잎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잔이 얹히는 자리는 연꽃무늬를 새기고 높였으며, 중앙부는 국화꽃을 양각하였다. 담녹색의 청자유가 두껍게 입혀져 있다.

청자 양각 대나무모양 완

靑磁陽刻竹節文碗

Celadon Bowl with Carved Bamboo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0, 입지름 11.5 | 소장 3149

얇은 발 형태의 완으로, 외면에 대나무를 백백이 엮은 모양이 청상화되어 있다. 구연부는 통글고 굽은 낮은 단정하게 마무리하였다. 유색은 맑고 푸른 비색이며 두껍게 시유하였다.



청자 접시

靑磁碟

Celadon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2.7, 입지름 10.3 | 소장 4817

문두가 낮은 단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비색의 유조를 띠고 있으며, 바닥면에는 규석을 3곳에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접시

靑磁碟
Celadon Dish

고려 12세기 | 입지름 10.1 | 국립중앙박물관

운두가 낮은 단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비색의 유조를 띠고 있다.



청자 꽃모양 접시

靑磁花形碟
Celadon Flower-shaped Dish

고려 12세기 | 입지름 17.6 | 국립중앙박물관

전체적으로 꽃모양으로 성형한 단정한 형태의 접시이다. 중국 예요 자기 형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청자 철화 모란무늬 병

靑磁鐵畫牡丹文瓶

Celadon Bottle with Peony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2세기 | 높이 26.1 | 소장 3241

철화로 모란꽃을 그린 입 큰 병으로, 유약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사용되었다.



청자 철화 풀무늬 매병

靑磁鐵畫草文梅瓶

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1세기 | 높이 26.5 | 소장 5125

철화로 오란꽃과 나비무늬를 그린 매병이다. 병의 바닥면에 내화도를 받쳐 구운 흔적이 남아있다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편호

靑磁象嵌柳蘆水禽鶴文扁壺
Celadon Flattened Jar with Inlaid Willows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2.4, 입지름 10.5 | 소장 6471

크고 풍만한 형태의 편호로 내 면에 4개의 동물장식이 표현되었다.
몸체에는 버드나무, 갈대, 물새, 학 무늬가 어우러지게 상감되었다.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완

靑磁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8.5 | 소장 3238

안쪽에 백상감된 국화잎을 배치하였고 여백에 구름과 학 무늬를 배웠었다. 바깥에는 남동무늬와 국화무늬, 연잎무늬로 장식하였다.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완

靑磁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7.5 | 소장 2475

안쪽에는 덩초와 구름 학 무늬, 연잎무늬를 종종씩 시문하였고, 바깥에는 남동무늬와 국화무늬를 배웠으며 연잎무늬를 흑백 상감하여 마무리 하였다.



청자 상감 버들 물새 무늬 대접

靑磁象嵌蒲柳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20.0 | 소장 4998

안쪽에 물과 연잎무늬 띠를 두르고 사이에 버들 물새무늬를 상감하였으며, 바깥에는 백상감의 양을 물꽃 무늬대 사이에 국문을 배치하였다. 표면이 매끈하게 정리되어 있고 빗결은 없으며 약간 어두운 담녹색을 띤다.



청자 상감 모란무늬 대접

靑磁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9.0 | 소장 3584

태두리를 8엽의 꽃 모양으로 표현한 대접이다. 안쪽에 흑백상감된 연당초문, 바깥에는 국당초문이 정성스럽게 시문되었다. 굽 면까지 시유되었고 세 곳에 규사받침을 하여 매우 공물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보이는 '정기定器제도'

장남 원 이화여자대학교

현존하는 고려청자의 수량에 비하면 관련 기록은 매우 드물다. 따라서 12세기 초 북송의 사신이 기록한 고려의 기명과 청자에 대한 자료는 실물을 보완해주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공은 숙소였던 순천관(順天縣)에 대해 "시산물과 기명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게 없다"하였다. 그래서 일파 『고려도경(高麗圖經)』 권26 연례(年例), 권27 관사(官事), 권28·29 공장(工場), 권30~32 기명(器名)에는 공예품과 기물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특히 기명편에는 30종의 기종을 수록하여 형태와 용도를 설명했다. 그 가운데 권32, '도준(陶器)'에는 <도1> "도기 가운데 푸른색 나는 것을 고려 사람들은 일컬어 '비색'이라 한다. 근년 이래 만들새가 공교하고 색과 광택이 더욱 아름다워졌다.(중략) 원, 접시, 술잔, 밥, 꽃병, 찻잔 등도 만들었는데 모두 '정기제도(定器制度)'를 모방한 것이라서 생략하고 그림으로 그리지 않는다.(후략)"고 서술했다.

'정기제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다. 고려청자가 하북성 정요(定州)의 제작법과 기종, 장식 등을 본 떠 만든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입장과 '그릇 만드는 일정한 방법'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록의 바로 다음 항목 '도(陶器)'를 보면 산예모양 향로에 대해 서술하면서, "여러 기물들 가운데 이 물건만이 가장 정절하고, 그 나머지는 월주의 고비색이나 여주의 신제품 자기들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하였다. 산예향로는 낯선 물건이었던 것 같고 <도2> 나머지 청자는 월주요나 여요의 그것들과 비슷하다고 본 것이다. 문맥상 이 두 항목은 서로 나란히 편집되어 앞에서 말한 '정기제도'를 다음 항목에서 여요와 월주 고비색(高比色)에 해당자(定器)로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 문헌자료에 남아 있는 오대, 송의 '정기(定器)'의 용례들은 대부분 정요자기를 지칭한다. 금으로 장식한 정요자기, 색과 광택이 아름다운 정요자기 등 정요자기의 외관이나 장식 등을 묘사했거나, 또는 여요청자나 관요청자와 열거하면서 백자인 정요를 드러내는 식이다. 영대

『격고요론(格古要論)』에서도 정요 항목에서는 토질, 유색, 외관 등을 언급하였다. 즉, 백색의 윤기 나는 자기로서의 정요에 주목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서공도 고려청자를 자신이 알고 있는 중국의 청자와 백자의 인상 범주 안에서 평가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정기제도'를 '일정한 그릇 만드는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12세기 초 고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국의 여러 가마와 그 제품들, 예컨대 정요를 포함한 북송관요나 여요, 월주요 등의 요소가 고려청자에서 보인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실제로 12세기 전반 고려청자는 일부 기종 및 문양에서 보여준 정요와의 연관성 외에도, 여요의 새로운 기종들과 장식, 경덕진 스타일의 새로운 기종, 그리고 월주요의 전통을 계승한 문양이나 기종의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도경에 나타난 '정기제도'가 정요의 제작법이나 조형을 적시하는지 혹은 북송대 말 중국도자의 기형이나 기종, 제작방법 등을 포괄하는지의 문제는 사실 논쟁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12세기 전반 고려의 청자가 질과 조형면에서 중국의 자기를 방불케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1 정지양자오전문과형(定止양자오전문과형)
높이 37.9cm, 입지름 6.1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 정지산예무관연화향로(定止山예무관연화향로)
높이 29.7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불교문화

“고려의 정치는
매우 어질고 부처를 좋아하며
살생을 경계한다.”

夷政甚仁 好佛戒殺
· 卷23 雜俗2 康寧

“중요한 불경으로는
화엄경과 반야경이 있고
사소한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大經則有華嚴般若 小者不可悉數
· 卷18 道數 釋氏

서고는 유명한 사찰이 궁성 주변에만 24곳이 있으며, 왕궁과 엇비슷한 규모의 사찰도 10곳 이상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사찰은 별명이 '큰절사'이었던 광통보제사(廣通普濟寺)였다. 이곳에는 60m가 넘는 거대한 탑과 백동 1만5천근 약 1.5톤으로 만든 범종이 있었고, 중창비에는 일 만 속의 대장경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질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사찰이었다. 서고는 정국안화사(正國安華寺)를 가장 좋아했는데, 송나라 황제 휘종의 글씨로 쓴 현판과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 때문이었다.

사찰에는 화엄경과 반야경 등 주요 대장경과 함께 불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이때의 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을 이겨내기 위해 만든 '초조대장경'과 불교 경전에 주석을 단 '교장'이 해당된다. 초조대장경의 종류는 꽤 많지만 화엄경과 반야경이 대표적이다. '교장'은 속장경으로도 불리는 화엄경의 주석본으로 의천이 흥왕사에서 설치한 교장도감에서 제작된 것이다.

고려는 불교의 국가답게 국사를 모시고 그 아래 삼중화상대사(三重和尙大師), 아사리 대덕(阿闍梨大師), 사미비구(沙彌比丘) 등 다양한 종류의 승려가 있었다고 하였다. 서고는 국사 위에 왕사가 있다고 기록하였는데 실제로는 국사 아래에 있던 왕사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Water-Moon Avalokitesvara

비단에 채색 | 고려 14세기 | 106.2×54.8 | 이오레퍼시픽미술관 | 보물 제1426호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수월관음'은 물에 비친 달을 내려다 보는 형상의 관음보살을 뜻한다. '화엄경(華嚴經)', 내용 중 관음보살이 있는 보타락가산에 신재동지(神在洞智)가 찾아가 보살도(普賢道)와 보살행(普賢行)을 구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그림이다. 투명한 베일을 달아본 관음보살이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며 오른쪽에는 버드나무가 꽃피진 정병이 놓여 있다.







屏營之至謹奉表陳進以聞弘景等
誠惶誠恐謹言

新譯大方廣佛華嚴經總目

此經一部總於七處九會說三十九

品八十卷三藏 月 月 僧寶又

難陀等奉 制譯

冊金輪聖神皇帝親御法筵製序

人中三者

人中三者

一在摩竭提國菩提場中

二在摩竭提國普光明殿

三在室羅筏逝多林給孤獨園

天上四者

一在忉利天宮

二在夜摩天宮

三在兜率陀天宮

在他化自在天宮

九會者 人中三天上四三會普光明

第一會菩提場中說合六品二十一卷

世主妙嚴品第一 五卷從第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First Tripiṭaka Koreana, The Avatamsaka Sutra, Vol 1

고려 11세기 | 길이 1223.5 | 소철 3483 | 국보 제256호

고려 원종제(1121~1135) 때 개간이 고려를 통일하자 이를 국보하고자 만든 초조대장경으로 우리나라의 실사년타(1138)가 번역한 화엄경, 주본 80권 중 권제1이다. 우리나라에 국문본으로 전해지는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중 유일한 권제1로, 11세기에 찍어낸 초조대장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真

八體成文

錯落淨花入貫而昭彰九會真詮詞

中悉現百城與首字下皆明與夫十

翼之光啓繇辭七觀之昭宣

高名言之域此超心智之境欲去技

美詎可同年弘景等幸以凡庸忝承

恩命俾續傳譯令終卷部想生融之

茂範始愧當仁顧澄什之遺風終慙

榮蹇但以十

積月累年將勤補拙

依常字寫勒成

八十卷大字寫分為二百卷并目各

一卷謹即緘之寶藏承以花臺望

閱過超叫閣奉進雖一言三復誠無

惰於曩賢而事重人輕慮有虧於妙

典伏希

聖哲特為詳

存慧日將舜日俱懸法雲共堯雲等布

不見此三摩地性異於我不見有心
能思惟我及此定故不可思議三摩
地者心非心性俱不能入云何可言
我入此定復次世尊我昔初學作意
現入此三摩地非於今時復更作意
現入此定如善射夫初學射業注心
慮的方乃發箭久習成就射毛端
不復注心在彼慮的隨所欲射發箭
便中如是我先初學定位要先繫念
在不思議然後乃能現入此定久習
成就於此定中不復繫心任運能住
所以者何我於諸定已得善巧任運
入出不復作意時舍利子便白佛言
觀此勇殊室利童子未可保信所以
者何於我此定中似不恒住然無餘
定微妙寂靜同此定者勇殊室利便
白具壽舍利子言大德寧知更無餘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75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五百七十五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Vol 575

고려 1046년 | 세로 25.0 | 소장 6832

대반야바라밀다경은 반야에는 부처의 원천이고 모든 법의 실상은 반야에 의해 밝혀진다고 여기는 경전이다. 한문으로 번역된 불전 중 가장 방대한 경전집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1046년(고려)에 허진수(許眞守)가 어머니 보현의 수복(壽復)과 아버지(父)의 국약(國弱)을 위해 찍어낸 초조대장경으로 사력사(沙力師)의 불복에 넣은 것이다.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하여 이키성(伊基城)에 인국사(仁國寺)에 소장해 두었던 것을 다시 반입하였다.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第七曼殊室利分之二

尔時舍利子白佛言世尊曼殊室利
不可思議所以者何曼殊室利所說
法相不可思議佛告曼殊室利童子
汝之所說實難思議誠如具壽舍利
子說曼殊室利即白佛言我所說法
不可說可思議亦不可說不可思議
所以者何不可思議可思議性俱無
所有但有音聲一切音聲亦不可說
不可思議可思議性以一切法自性
離故作是說者乃名為說不可思議
佛告曼殊室利童子汝今現入不可
思議三摩地耶曼殊室利白言世尊

今時各州... 律例... 凡有...

律例... 凡有... 律例...

律例... 凡有... 律例...

妙智不可... 律例... 凡有...

律例... 凡有... 律例...



교장

敎藏

Co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Vol 1

고려 12세기 | 30.3×16.5 | 소장 5283

이 책은 『대방광불화엄경소』 80권만에 대한 당나라 징관^{鄭觀}의 연구서를 송나라 승려 정환^{鄭煥}이 붙여한 교장^{敎藏}이다. 대각국사 의천^{義天}(1055~1101)이 송나라에 가서 정환^{鄭煥}을 만나 상인을 통해 보낸 묵판으로 주본^{朱本} 화엄경을 풀이하여 인쇄한 120권 가운데 제1권이다. 고려와 송나라의 불교가 교류한 증거이자, 의천이 흥왕사에 주지로 있으면서 이루고자 한 여러 종류의 불교경전의 완성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存乎一納當代榮華去如遺矣滿堂珠玉視之幾
 貞元七年河東節度李自良以師敬之禮奉迎出山
 始居於北都大崇福寺鳴法鼓以集有學問法筵而
 度群品智覺性者發熱於鍾梵之間年者德邁者
 攝齋於杖履之下遠矣大矣其乎在諸其疎凡二卷
 已行于代長孫基德既深聞風而悅未遠忘筵之地
 空漸側管之窺徑微大哉得非狂簡云尔

大方廣佛花嚴經疏第一

卷一

唐吳越王

清涼山文苑集卷一

卷一

釋

往復無際動靜一課含衆妙而有餘超言思而迥出
 者其唯法界歟則製玄微那靜心境窮理盡性徹果
 該因汪洋冲融廣大悉備者其唯大方廣佛花嚴經
 焉故我世尊十身初滿正覺始成衆願行以特給淨
 虛空爲體性富有万德滿無礙悲憫智海之深故也



묘법연화경 권 제2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二

Hand-copied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Blue Paper Vol.2

고려 14세기 | 31.5×375.0 | 소장 5284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이라고도 한다. 감액종이에 은분으로 옮겨 적은 사경 8책으로 본문은 5권까지 남아있다. 경전의 내용을 그린 변상도^{變相圖}에는 금분을 사용하였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영산회상도, 왼쪽에는 불타는 정자의 집에서 아들을 구해내는 비유품의 장면, 길인이 되어 다시 만난 아들을 인도하는 신재품의 내용 등을 담았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그린 변상도는 고려 불교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妙法蓮華經卷第二
變相

“불상과 공구供具도
모두 깨끗하고
화려한 깃발과 비단 덮개는
배치에 질서가 있었다.”

佛像供具 皆悉修潔 幡華繪蓋 行列有序
- 卷18 道敎 釋氏

공양구供具는 불책, 법책, 승책과 부모, 죽은 자의 영혼에게 향, 등, 꽃, 차, 과일, 음식 등의 공물을 바칠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불상을 비롯하여 촛대·향완·향로·북·종·방울 뿐 아니라 금강명, 금강저, 사리구 등 불교 의식구는 고려 금속공예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보통 청동으로 만들지만, 왕실과 큰 사찰에서는 공양구에 도금鍍金이나 입사漆기법으로 치장하여 가치를 더하였다. 청동은 그릇과 생활용구의 재료로도 폭넓게 활용되었는데, 이는 고려가 장인을 우대하여 청동을 만드는 합금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쌍사자 모양 촛대 기둥

雙獅子光明臺柱
Bronze Candle Stand Pillar Part with a Pair of Lion

고려 | 높이 17.0 | 소장 2842

촛대의 원반형 등축과 하층 받침 사이를 받치는 기둥 조각이다. 두 마리의 사자가 마주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주조하였는데,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에서 보이는 형식이 금속공예에 응용된 것이다.





청동 촛대

靑銅光明臺
Bronze Lamp Stand

고려 | 높이 39.7, 40.0 | 소장 6850, 6851

『고려도감』에서는 세 개의 받, 대나무 미디 모양의 기둥, 그 위에는 경반이 있어 촛불과 등불을 밝히는 기구를 '광명대'라 칭하고 있다. 불교에서 등은 지체의 상징이자 광명을 통해 어둠을 없애는 것을 뜻한다.



청동 촛대

靑銅燭
Bronze Candle Stand

고려 | 지름 20.0 | 소장 724

초를 끼워 사용하는 촛대이다. 넓은 접시모양 받침에 초를 꽂는 축이 달려있다.



청동 걸이 향로

懸香爐
Bronze Hanging Incense Burner

높이 20.5 | 경희대학교 순암박물관

실내에 걸어 놓고 사용하는 향로이다. 밑바닥이 둥글며 벽이나 기둥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있다. 고려만의 독특한 기형으로 남아있는 수량이 적으며, 아이티법화 등 특정한 불교의례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 향완

靑銅香碗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0 | 소장 2500



장례문화

“죽으면 염만 할 뿐 관에 넣지 않는데,
왕이나 귀족이어도 그러하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장사 지내는
도구가 없으면 들 가운데 버려두는데
봉분도 하지 않고 묘표도 세우지 않는다.
갸미나 땅강아지, 까마귀나 술개가
파먹는 대로 놓아두지만 사람들은
이를 그릇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至死 猶不附棺 雖王與貴胄 亦然。若貧人無葬具 則露置中野
不封不槨。委諸蟻鳥食之 衆不以爲非
- 卷22 雜記1

고려시대에는 국가차원에서 화장*과 매장*을 장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궁의 기록에 시신을 노출하는 풍장*이나 다시 매장하는 복장*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양한 장례문화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매장의 경우 신분에 따라 석곽묘, 토광묘, 석관묘, 옹관묘 등에 묻었고, 다양한 부장품도 함께 넣었다. 귀족은 묘지명을 써 묻는 예가 많으며, 보통의 무덤은 12세기경부터 절그릇, 찡자, 거울, 동전, 가위, 숟가락 등 음식과 관련된 부장품이 많아지는데, 이는 내세*를 인정하는 사후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무덤에 절그릇을 써 묻는 경우 매장시기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고려 전기는 편병, 중기에는 반구병, 소병, 대병, 후기에는 나팔입병, 단경호, 장신호, 항, 대병, 표형병, 소병 등이 무덤에서 출토되어 점차 수량과 종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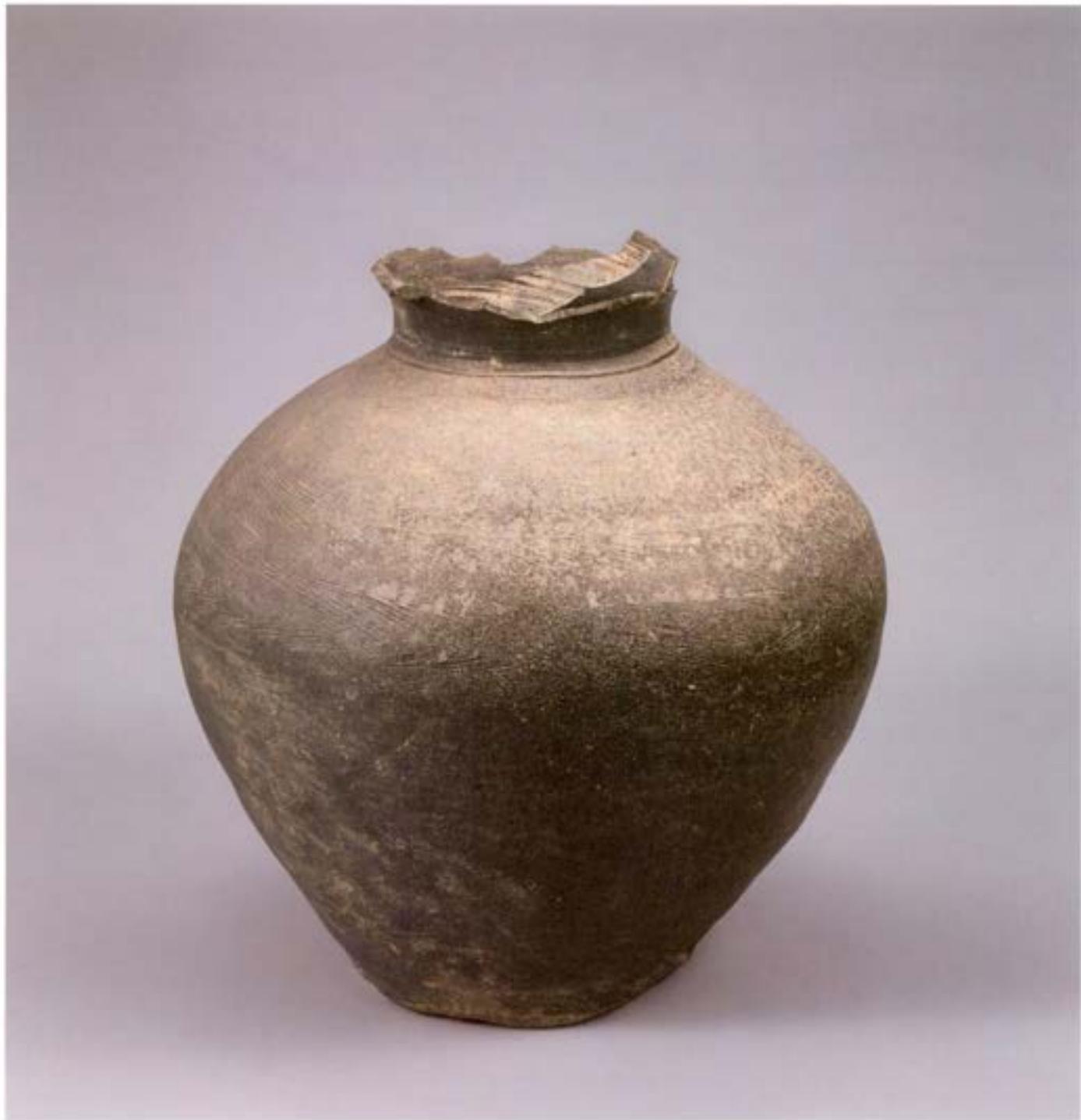


석관
石棺
Stone Coffin

고려 | 높이 35.0, 길이 95.0, 폭 50.0 | 소장 4659

고려 귀족사회는 불교의 영향으로 석관이 유행하였다. 화장 후에 남은 유골은 석관에 안치하였으며, 죽은 이의 말안과 후손의 행적을 기원하려는 의미로 석관 내부에 사신도(死身圖)를 그려 넣었다.





옹관

甕棺
Earthenware Coffin

고려 12세기 | 높이 57.0 | 안성 매산리 고분

고려의 매우 드문 무덤 형식인 석곽옹관묘로 옹관 안에서 2차장으로 뼈가 파쇄된 인골이 다수 출토되었다. 연구결과 묻힌 사람은 63세 전후이며, 신장은 165cm 내외인 죽산지역에 거주했던 귀족 남자로 추정된다.

서공이 본 장례풍습과 고려인의 실제 장례문화

한 해 선 가톨릭대학교

죽으면 **얼마만 할 뿐 관에 넣지 않는다.**

왕이나 귀족도 그러하다.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장사지내는 도구가 없으면
들 가운데 버려두는데 봉분도 하지 않고 묘표도 세우지 않는다.

계미·말강아지·까마귀·솔개가 피먹는 대로 놓아두지만

사람들은 이를 그릇된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고려도경』 권22, 잡속1

위의 글은 12세기 전반 고려를 다녀갔던 중국 송나라의 사신 서공⁸⁸이 고려의 장례풍습을 보고 서술한 내용이다. 이러한 일이 고려에서는 흔한 것이었는지 고려 문종 11년¹⁰⁵⁷에 국왕은 중앙과 지방의 길거리에 드러나 있는 해골을 개경의 경우에서는 동서대바원이라는 기관에서, 지방에서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관리에게 수습하여 매장하라고 명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거리에 버려지는 식의 장례법은 고려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모습을 기록한 여러 문헌을 보면 관인층은 대체로 화장⁸⁹을 선호하여 석관⁹⁰과 묘지명⁹¹을 다수 제작하였다.^(도1) 이 때 제작된 석관에는 사신도나 당초문 등 다양한 문양이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묘지명은 죽은 이의 행적을 밝혀 놓아 당시 관인들의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반면에 묻힌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대부분의 무덤은 돌을 쌓아 만든 석곽묘⁹²이거나 땅을 파서 만든 토광묘⁹³이다.^(도2, 3) 석곽묘와 토광묘는 기본적으로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시기에 따라 유행한 무덤의 형태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세기 무렵까지는 석곽묘가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12세기 이후, 특히 고려 후기에는 토광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 유적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무산집결기 이후 몽골과의 오랜 전쟁을 거치며 관인층에서조차 화장 풍조가 거의 사라졌고 매장이 완전히 정착되어 토광묘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의 불천리, 화천리, 검단리에서 조사된 토광묘를 들 수 있다. 이들 무덤은 하나의 구멍에 입구는 100기 이상씩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무덤이 모여 있는데, 동일한 혈연집단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토성⁹⁴집단의 무덤 군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려인들은 무덤을 만들 때 죽은 이를 위해 다양한 부장품을 함께 묻었다. 부장품은 재질에 따라 도자기, 청동제품, 철제품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도자기이며, 그 다음으로 많이 출토되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청동제품이다. 도자기는 다시 청자와 도기로 구분되는데, 청자는 소형의 음식기인 발·접시·잔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도기는 중형의 병이 주로 부장된다. 도기병은 시기에 따라 선택된 기종이 달랐다.

고려무덤에 부장된 청동제품은 동전·거울·도장을 비롯해 발·접시·합 등이 있고, 고려 중기 이후 대부분의 무덤에는 청동손가락과 첫가락을 같이 묻었다. 철제품은 기위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종종 용도를 알 수 없는 철편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 무덤안에 다양한 재질의 공예품이 함께 부장되는 현상에 대하여는 당시 성행하였던 다례⁹⁵의 일면을 함축하여 표현한 구성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차를 즐겨 마셨던 중국의 문헌기록이나 벽화자료를 참고하면 청자완과 발은 차를 직접 담아 마시는 도구로, 도기병은 차를 끓일 때 사용하는 물을 담는 용기로, 청동손가락과 첫가락은 차를 덜어내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고려무덤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이 대부분 차를 끓여 마실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 전기에 주로 조성되었던 석곽묘에는 도기병과 청자완이 같이 부장되는데, 이때 부장된 청자완은 굽의 모양이 마치 해무리와 같다고 하여 해무리굽완이라 불린다.^(도4) 이 해무리굽완은 고려 전기에 주로 차를 마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으로, 당시 공예품 가운데 귀하게 취급되던 사치품목의 하나였다. 또한 장례절차와 관련하여 고려의 국왕이 중요 대신이 사망했을 때 장례에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상당량의 차를 하사하는 대목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려무덤에 해무리굽완과 같이 직접 차와 연관된 공예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문헌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차가 장례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통해 무덤 부장용 공예품은 차와 관련된 고려의 장례문화의 일면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도1) 사신관 석관,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2) 고려 토광묘, 전주 검단리 예초 토광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발굴



(도3) 고려 석곽묘, 현안 불당동 5호 석곽묘,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발굴



(도4) 청자 해무리굽완과 도기병, 현안 불당동 5호 석곽묘 출토, 충청남도역사문화원 발굴

중국과 같은 풍습 華風

“고려가 송나라의 정식을 받고
유학을 따르며
음악은 한결같이 조화롭고
도량형은 그 제도가 똑같다.”

然兼受正朔 禮學律同和 度量同制
- 卷40 同文

(※ 정식(正朔): 정월(正月)과 삭일(朔日), 정월 초하루.
여기서는 옛날 달조가 바뀔 때면 정식을 달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왕족과 재상가에서는
중국풍이 매우 유행인데
다시 시간이 흐르면
바람에 따라
풀잎이 눕는 것처럼 퍼질 것이다.”

今王府與國相家 頗有華風 更歷以歲月 當如草偃矣
- 卷20 補入

“사방의 좌석에는 귀한 노리개 ·
오래된 그릇 · 서첩 · 명화 ·
보기 드문 향료 · 진기한 차를
늘여 놓는데,
오만가지 진귀한 것들이
정교하고 이채로워
눈부시게 만드는데
고려 사람들이 모두 경탄해 마지않았다.
술자리가 끝날 즈음 취함에 따라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것을 주었다.”

四壁 列寶玩 古器 法書 名畫 異香 奇茗 瑰璋異狀 精采奪目
麗人莫不驚歎 酒闌 隨所好 恣其所欲 取而予之
- 卷26 燕禮 館會

서궁이 책의 맨 마지막에 언급한 내용은 중국과 동일한 문물배치이다. 정식(禮制), 유학, 음악, 도량형 등 4가지를 꼽았다. 그 가운데 고려의 국력이 강성해진 가장 큰 이유로 도량형을 꼽으며 “고려의 도량형이 송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였다. 송나라의 도량형은 길이, 부피, 무게에서 모두 다섯 단계의 단위를 사용하였는데 남아있는 고려 유물의 실제 계측치와 비교해보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절단은 생활용기의 모양, 색, 크기, 용도까지 직접 자료 재고 용량을 측정하고 수치를 재어 그 결과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고려의 도기의 용량을 측정해보면 기록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중국 사신의 방문은 고려 귀족이 선진물품을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였다. 송과의 국교가 단절된 이후 왕실은 송나라 상인을 통해 물품을 납품 받고 댓가를 치르는 무역으로만 진귀한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12세기 들어 양국 간의 국교가 복원되면서 사절단을 통해 송의 선진 물품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송나라와 요나라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와 동전

연호^{年號}는 전근대 군주국가에서 군주가 자기의 치세 기간에 붙이는 칭호이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줄곧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상황에 따라 북송과 거란^{契丹}의 연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기와나 고려에서 유통된 중국동전의 명문에 잘 나타나 있다. 지리적으로 고려와 가까운 양국은 어느 국가의 연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잡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고려는 양국 사이에서 실리와 명분을 지키는 능동적인 외교를 구사하면서 연호를 선택하였다. 서군은 거란이 멸망하면 고려가 금나라 대신 송나라를 택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고려는 송나라와의 국교를 단절하고 금나라에 군신의 예를 하며 국가를 유지해 나갔다.

거란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 조각

遼年號銘 瓦片
Roof-tile with inscription

고려 1113년 (희) 10.7×9.7, 무) 30.6×15.6
영양 천천사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명기와의 등면에 요나라 연호 천경^{天慶}이 새겨져 있는데, '天慶三年癸巳'은 1113년에 해당한다.



송나라 연호가 새겨진 기와 조각

宋年號銘 瓦片
Roof-tile with inscription

고려 1017년 (희) 9.8×7.7, 무) 12.6×8.5
천안 봉선동경사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명기와의 등면에 '—祥符—'명이 양각으로 새겼다. 흥경사지에서 발견된 명문기와 중에서 '대흥상부 10년 정사사+祥符+7년'명이 확인되어 같은 명문으로 추정된다.





승녕중보

崇寧重寶
Chinese Coins

송(宋) 1102~1106년 | 지름 3.5, 무게 9g | 안성 봉암사지

중국 북송 휘종 승녕 연간(1102~1106)에 만들어진 동전으로, 고려 숙종7년~예종1년에 해당한다.



선화통보

宣和通寶
Chinese Coins

송(宋) 1119~1125년 | 지름 3.0, 무게 8.1g

「고려도경」과 같은 연호명 '선화'를 쓴 동전이다. 중국 북송 휘종 선화 연간(1119~1125)에 만들어졌으며, 고려의 예종14년~인종3년에 해당한다.



용량이 쓰여진 질그릇 조각

石缶銘陶器片
Earthenware Fragment with Inscription

고려 | 길이 14.5 | 안성 봉암사지

질그릇에 쓰여진 '석부'는 '석곡'과 같은 뜻으로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1곡은 3.35리터 정도이다. 곡식을 달는 항아리의 파편으로 추정된다.



자尺 Ruler

고려 | 2.7×51.0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사신을 절 때 사용한 검시척(倭尺)이다. 절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눈금이 그어져 있으며, 양쪽 끝부분은 사용 흔적이 잘 남아있다.



저울추 錘 Weight

고려 | 좌) 높이 9.4, 무게 528g 우) 높이 9.1, 무게 726g | 안성 봉업사지

쇠로 만든 저울추이다. 단면은 8각형으로 주조하였으며, 상면에는 7개의 연꽃무늬를 음각하였다. 다른 하나는 흙으로 만든 저울추로 단면 사다리꼴이다.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크기의 구멍이 있으며, 손으로 다듬어 만든 흔적이 관찰된다.





IV 비색청자靑色靑磁와 세밀가귀細密可貴

서긍은 고려의 독특한 모양과 색깔을 보여주는 청자를 비색靑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고려의 공예품 가운데 '나전靑磁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라고 칭찬하였다. 고려는 외국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능력 있는 장인을 적극 지원하여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The Jade Celadons of Goryeo & Exquisite and Precious

Seo Geung described the celadon ware that shows the unique shape and color of Goryeo in a jade color. According to the records of others, 'the jade color of Goryeo celadons is the best under heaven. It is impossible to imitate it.' The evaluation of Goryeo celadon by the Chinese, who lived at almost the same time, was something that had never been seen before. Seo Geung also praised Goryeo artifacts, saying, 'Mother-of-pearl(nacre) is precious because it is elaborate.' Goryeo actively accepted and developed foreign technologies and also actively supported skilled craftsmen to achieve technological advancement.

천하제일 비색청자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陶器色之青者 麗人謂之靑色 近年以來 制作工巧
· 권32 雜品3 陶器

남송시대 태평노인이 지은 『수증금』 ‘천하제일’ 조에서는 “...진주의 차, 옥의 비단, 경요의 백자, 절강의 차 등과 함께 고려 비색^{靑色}은 모두 천하제일이다. 다른 곳에서는 따라 하고자 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여 당시 중국인이 고려청자를 매우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서공과 태평노인과 같이 동시대의 중국인이 본 고려청자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중국에서도 기형과 유색이 유사한 비색청자를 여러 곳에서 만들었지만, 고려청자만의 차별화된 매력은 도자기의 본 고장을 뛰어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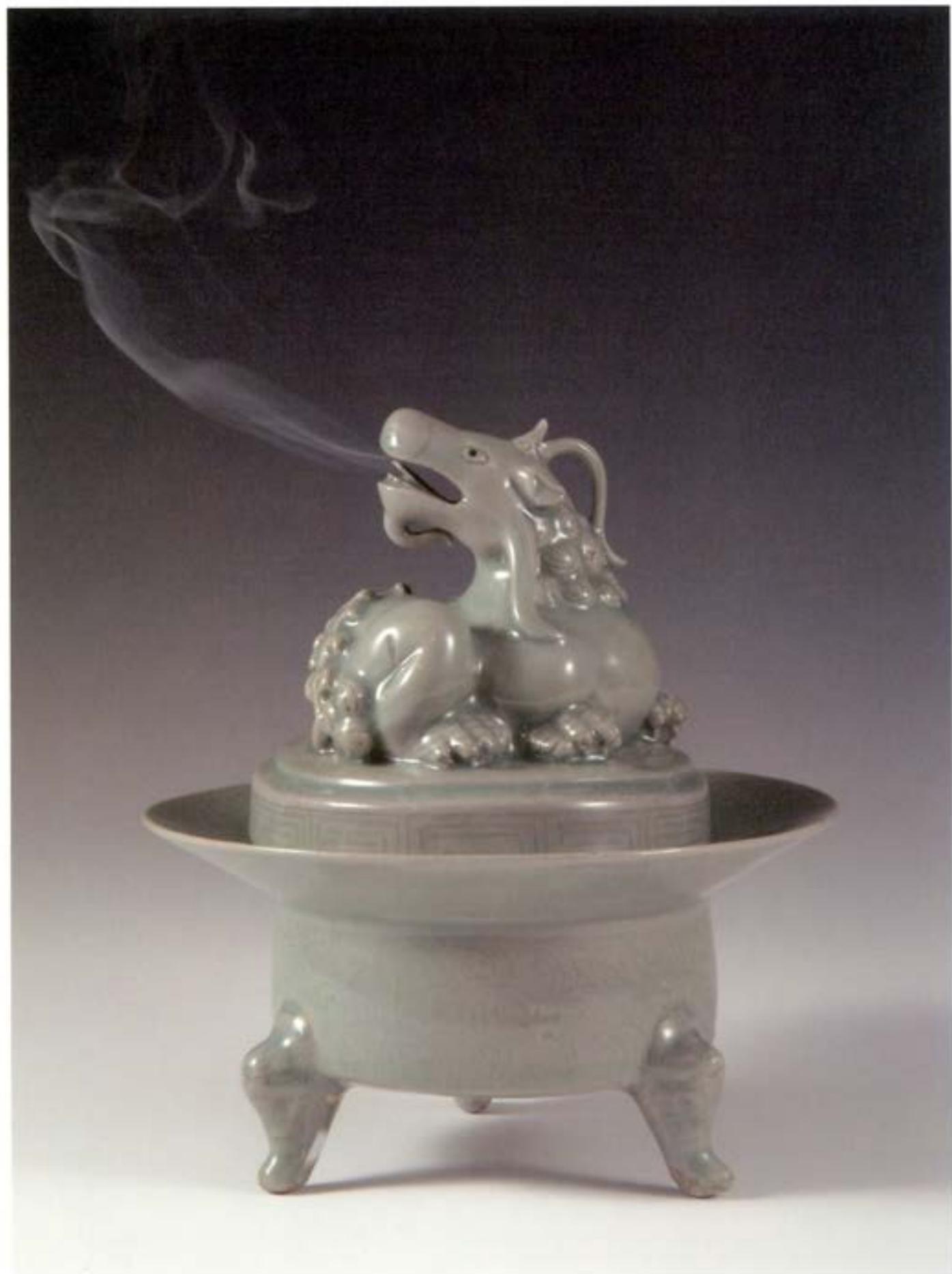
청자 기린 모양 향로

靑磁麒麟形香爐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 전체높이 20.9, 무명 높이 12.0 입지름 12.2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麒麟}이 장식되어 있는 청자 향로이다. 몸체에 원통형에 벌어진 천과 세 개의 다리가 달려 있으며, 서문^{西門}과 뇌문^{腦門}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무문^{無門}의 투명한 비색^{靑色}의 청자유가 균일하게 시유된 명작으로 평가된다.





청자 주전자, 승반

靑磁注子-承盤
Celadon Ewer

고려 12세기 | 주자) 높이 26.0, 승반) 높이 14.8 입자름 17.5 |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주전자와 승반이 모두 갖추어진 주자세트이다. 요주박 모양의 주자와 뚜껑, 받침대인 승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단순한 모양의 뚜껑 위에 달팽이처럼 살짝 돌린 고리를 올렸다. 몸체에는 장식이 없으며 수구와 손잡이의 선이 날렵하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바색청자의 걸작이다.





청자 양각 모란 넝쿨 용 무늬 매병

青磁陽刻牡丹唐草龍文瓜形梅瓶

Celadon Prunus Vase with carved Peony Scrolls and Dragons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37.9 | 국립중앙박물관

청자오양의 몸체에 모란문과 당초문, 용문 등을 새긴 매병이다. 서공이 말한 비색청자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참고자료

청자 사자 모양 향로

靑磁獅子形香爐

고려 12세기 | 호림박물관

서공은 사자를 달은 상상의 동물인 산에(山에)의 모양의 두영을 가진 향로를 여요(여요) 지기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 향로는 달은 비색을 띠며 향 그릇이 연꽃 모양인 것이 특징이다.



과학기술로 살펴본 비색청자의 비밀

이영은 경기도박물관

지금껏 천하제일로 칭송받는 고려의 비색청자. 고려인이 사랑한 비색은 하늘빛을 닮은 듯, 바다 빛을 그린 듯 투명하고 푸르다. 비록 하나의 도자기이나 절정의 아름다움이 주는 예술적 감동은 고려인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같은 울림을 준다.

우리나라 청자는 중국 청자의 기술이 도입된 이후 약 200년에 걸쳐 조금씩 진보했다. 제작 초기 어두운 태토는 밝아졌으며, 유색은 짙은 갈색이나 짙은 녹색조에서 점차 아름다운 푸른색을 띠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려인들이 사랑하는 비색청자가 만들어졌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청자 도편의 과학기술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려 비색 청자의 숨겨진 비밀을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고려 청자의 유약은 점토에 식물의 재를 섞어서 만든다. 원료의 칼슘, 칼륨, 나트륨 성분은 유약을 잘 녹게 하는 용제 역할을 하여 유리질로 변하게 된다. 철과 티타늄산화물은 유약이 색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비색 청자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첫째, 비색 청자의 푸른색은 산화철성분에서 기인한다. 산화철 성분이 많으면 유약의 색이 어두워진다. 실제로 용인 서리 등 초기 청자 유약의 산화철 함량은 3% 정도였는데, 점차 줄어들어 12세기 강진과 부안의 비색청자는 1.5% 이내이다. 약 50% 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산화철 함량의 변화는 태토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태토에 철함량이 많으면 바탕의 색이 어두워져 유색이 더 어둡게 보이고, 밝은 화색의 태토여야 푸른 유색이 더 돋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철의 전체적인 함량과 함께 철의 환원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일때된 가마 속에서 번조하게 되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도자기 유약에서 산소가 빠져나가게 되어 환원상태가 된다. 동일한 철함량을 갖는 청자도 번조 시 산화분위기가 된다면 갈색빛을 띠며, 환원상태에 가까울수록 푸른색을 띤다. 또한 청자유약에서 관찰되는 푸른색부터 녹색조부터 미세한 변화

역시 철이온의 산화상태비율(Fe^{2+}/Fe^{3+})의 차이 때문이다. 가마 안에서의 번조분위기를 조절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바탕이 보일 듯 말 듯한 유약의 투명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용제성분이 많은 청자유약은 두꺼워도 비교적 잘 녹을 수 있다. 또한 유약 내의 기포는 빛을 반사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준다. 이러한 기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청자 가마에서 불을 올리고 식히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은은히 빛나는 반투명한 유약은 유약의 성분과 불의 때는 과정에서 최고의 번조온도에서 유지하는 시간,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유약의 두께가 어느정도 두꺼워야한다. 깊은 바다가 더 푸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초벌구이를 하는 이차번조 방법은 유약을 두껍게 시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초기 청자의 유약은 100~200마이크론에 불과하나, 200년 동안 조금씩 두꺼워져 12세기가 되면 약 400~800마이크론 정도로 4배가 된다.

비색청자는 이름 모를 수많은 고려 도공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루어 낸 독자적인 첨단 기술의 성과물이다. 도자기의 원료인 태토와 유약의 성분, 유약 두께의 조절 등 만들기 전 단계의 준비과정부터 가마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한 번조기술을 조화롭게 운용하여 발전시켰다. 이차번조법의 도입하는 기술의 혁신도 이루어졌다. 비색청자는 이 땅에서 나는 질 좋은 흙과 독자적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걸작이다.

세밀가귀, 고려공예

“나전 솜씨는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

而鐵胎之工 細密可貴
- 卷23 雜俗2 土產

고려의 공예품은 고려인의 뛰어난 기술로 탄생한 명품이었다. 고려 왕실은 솜씨 좋은 장인을 궁성 주변에 두고 우대하여 최고 품질의 물품을 만들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서궁은 나전^{螺鈿}, 자수그림^{刺繡}, 청자 잔 받침^{靑磁}, 박산로^{博山爐}, 청자 대명^{靑磁} 등이 정교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군대의 기병이 사용한 안장과 안장갈개는 나전 가운데서도 가장 정교하다고 표현하였다. 고려사회는 이민족을 포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였다. 또한 기술자를 우대하여 비석청자와 세밀하고 정교한 공예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의 진보는 중국과 거란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시킨 고려의 개방적인 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에 항복한
거란 포로 수만 명 가운데
10명 중 한 명은 기술자인데,
그 가운데 기술이 정교한 자를 뽑아
고려에 머물게 했다.
이들로 인해 고려의 그릇과
옷 제조 기술이
더욱 정교하게 되었다.”

亦聞契丹降虜數萬人 其工伎十有一 擇其精巧者
留於王府 比年器服益工 - 卷19 民庶 工技





은제 도금 잔, 받침

銀製鎏金托盃

Gilt Silver Cup and Stand

고려 12-13세기 | 전체높이 9.2, 전체지름 14.7 | 이오세미서연구소

사찰단 기운대 제법 높은 계급의 정사와 부사만이 도금한 그릇을 사용하였다. 잔에는 연꽃잎 무늬를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잔 받침에는 타종기법으로 연꽃잎 모양을 도드라지게 만들고 각 면에 연꽃을 깎아 놓은 모양을 그려 넣었다. 이러한 기법은 거란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고려의 공예 수법을 보여주는 수작이다.





장도집

金製鞘
Knife Case

고려 12세기 | 길이 21.8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몸에 지나는 작은 칼을 넣었던 칼집이다. 위, 아래가 약간 좁고 가운데가 볼록한 모양으로 겉면에 타술기법으로 무늬를 표현하였으며 뛰어난 고려의 공예 기술을 집약해 하는 작품이다.



금동 팔찌

金銅製腕
Gilt-Bronze Bracelet

고려 12-13세기 | 지름 8.0 | 이모레과사박물관

타술기법으로 제작된 금동 팔찌이다. 꽃무늬를 간략하게 그린 인목 면과 달리 바깥 면은 농게 돌출시켜 타원형으로 된 다섯 개의 구획을 주 문양으로 배치한 뒤 타원 안에 마주보고 날개를 편 봉황을 들어가며 시문하였다.





표주박 모양 병

金銅製鳥文瓢形瓶
Gourd-shaped Bottle

고려 | 높이 7.7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북방지역에서 유행한 형태의 금동 병으로 향유(香油)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몸체는 아디와 띠를 사이에 두고 연봉형의 두경이 덮여 있다. 아랫부분은 선각(線刻)으로 원형의 꽃잎 안에 날개짓 하는 새를 네 면에 걸쳐서 표현하였다. 세밀한 제작기법이 동파와 유사하다.



고려도경 속의 고려 공예

최 용 천 동국대학교

고려 공예 관련 문헌 기록 중에서 고려의 생활상과 풍속 등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집필한 책이 『선화봉사고려도경(鮮花奉使高麗圖經)』이다. 서경(西京)이 1123년 1개월간 고려에 머물면서 기술한 이 책에는 당시 고려의 다양한 생활상과 풍속, 나아가 기명에 관한 자세한 명칭과 용도를 그림까지 곁들여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림은 사라져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비록 그림은 없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12세기 고려 공예를 복원해 줄 자료인 동시에 중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던 당시 고려 공예의 실상을 잘 보여주어 중요하게 활용된다.

나전칠기 공예

고려 도경에 보이는 다양한 공예품에 관한 기록 중에서 주목되는 것이 나전칠기에 관한 내용이다. 『고려도경』 권 23, 雜俗二 土產 조에는 '그릇에 옷칠(漆)하는 일은 그다지 잘하지 못하지만 나전(漆)의 솜씨(工)는 세밀하여 귀하다고 할 만하다.' 고 하여 당시 고려 나전의 기술이 세밀하고 정교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고려 나전의 전성 시기는 12세기에 해당된다. 그가 송나라에서 왕실을 포함한 최상층의 관리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당시 송에서도 널리 사용된 나전칠기보다 고려 나전의 뛰어난 기술과 아름다움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의 금속공예

고려시대의 공예품을 언급한 고려도경의 기록은 권30 기명 1, 권 31 기명 2, 권 32 기명 3 이어 그 가운데 금속공예품은 주로 기명 1과 2에 기술되었다. 『고려도경』 권 23, 雜俗二에는 '고려 땅에는 금은(金銀)은 적으나 구리(銅)는 많다.'고 하여 금은의 사용이 적은 대신 구리 재로인 동제품이 많다는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고려시대에 금속 제품의 제작이 많았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러한 고려도경에 언급된 금속공예품은 크게 일반 금속공예품과 불교 공예품으로 나눌 수 있다. 생활 관련 금속공예품은 용도에 따라 항로, 등화구, 병과 잔, 항 짐승 모양 항로(火爐), 박산로(火盆), 정로(火盆), 화로(火爐)를 설명하고 있는데, 각각의 명칭과 형태를 자세히 기술하여 이들에 관한 자료가 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이 꽤 많은 수가 전해지는 광명대(光明臺)에 관한 내용이다. '광명대는 등불과 촛불을 받치는 기구이다. 아래에 발이 세 개가 있고, 가운데에 기둥이 있는데 모양이 대나무같이 마디마디로 이어진다. 위에 쟁반이 하나가 올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사발 하나가 놓여 있는데, 그 작은 사발 가운데서 촛불을 밝힐 수 있다. 등불을 켜려면 구리 동잔으로 바꿔 기름을 담고 심자를 세워 작은 흰 돌로 눌러 놓고 초롱은 붉은 망사로 싸운다. 높이는 4척 5촌이고, 쟁반의 너비는 1척 5촌이다. 쇠갓 덮개의 높이가 6촌이고, 너비가 5촌이다.' 고 하여 고려시대 촛대 가운데 상부에 초롱이가 없이 평면형 원반형 받침부를 지닌 것은 모두 이와 같은 광명대임을 알 수 있다. 금속제 병과 잔에 해당되는 수병(水瓶), 휴대용 병(提瓶), 꽃병(花瓶), 보은병(保溫瓶)이란 명칭의 각종 병을 구제

적인 설명과 함께 언급하고 있으며 반잔(盤盃)이란 은제 도금잔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그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은제도금 화형탁진은 바로 이 반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세반(洗盥盆)은 그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세수대야와 같이 씻는 물을 담거나 물과 관련된 대야 형태의 생활 용품으로 보인다. 세반의 종류로는 오화세(洗盥盆), 백동세(白銅盆)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오화세는 그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립전주박물관에 소장된 은입사가 장식된 대형 세반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 물을 담는 수병과 정병을 분명히 구분해서 밝히고 있음도 주목된다. 수병에 관해서는 물병(水瓶)의 모양은 대체로 중국의 술주전자(酒注子)와 비슷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고려 금속 공예에서 가장 탁월한 기형을 지닌 정병에 관해 '목이 길고 배(腹)가 볼록한 모양인데, 곁에는 〈물을〉 따를 수 있는 주둥이가 하나 있다. 〈정병의〉 가운데에 두 마디가 있는데, 〈이것이〉 또한 줄을 열 수 있는 고리(提手) 역할을 한다. 두경의 목 중간에는 턱이 있고, 턱의 위에는 다시 작은 목이 있어 침필(針)의 형상이다. 귀인(耳)과 고위(柄) 관리(脚), 도관(口)·사철(匙)과 민개(匙)에서 모두 사용하는데, 오직 물을 담을 수 있을 뿐이다. 높이는 1척 2촌이고, 배의 지름은 4촌이며, 용량은 3승이다.' 고 하여 형태와 용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은입사 기법을 사용한 장식한 정병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아 이 시기 정병에 아직까지 은입사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불교 공예품의 대표적인 범종에 관해서는 보제사(普濟寺) 거종(巨鐘)에 관한 기술이 보이지만 문체의 신선은 비찬상을 설명한 것 같으며 보제사의 종만 유일하게 언급한 것은 짧은 기간 개성을 중심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범종을 실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금속공예의 특징

고려시대 공예의 두드러진 특징은 나전칠기의 비약적인 발전과 금속공예 기술의 다양한 구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고려 공예의 독창성은 입사 공예의 활용에서도 찾을 수 있다. 향완(香奩)과 정병(淨瓶)은 중국의 기형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은입사를 활용하여 입사로 문양을 넣은 것은 순전히 고려 장인의 독창성에서 비롯된 창안이었다. 은입사와 더불어 은제의 다양한 공예품에 시문된 타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에서 어느 시기보다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다. 내면에서 타출시킨 뒤 다시 외부에서 그 여백을 두드려 누르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마치 누금(鑲金)처럼 따로 떼어 붙인 듯 입체감이 강조되는 정교한 기법은 고려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술적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문화적 유입과 자극을 받아들여 국제적인 미술 양식을 성립한 통일신라가 우리나라 금속공예의 근간을 이룬 시기였다면 고려시대는 한국적인 뚜렷한 특징을 지닌 독창적인 형태와 양식으로 완전히 정착을 이루어 변화 발전된 시기였다. 고려 미술품에 나타나는 귀족적인 면모의 화려한 품격은 금속공예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시기임을 보여 준다.

“세상에 전해지는 내 시로 책은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았는데,
내가 다시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했다.”

仲父 嘗爲萬言 世傳余書 往往圖亡而經存 余遺畫之 無難也 然不
果就 跋

송나라로 돌아간 서공은 다음 해 「고려도경」을 만들어 황제에게 바쳤지만 곧 사라지고, 그림은 없이 글만 겨우 복원된 1167년 판본이 초판본으로 전해진다. 이 초판본은 제작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추고 필사본만이 유행하였다. 청나라 때 발행된 사고전서본과 지부족제종서본이 성행했지만 틀리거나 빠진 곳이 많았다. 다행히도 1925년 고궁박물관에서 궁중 장서를 정리하다가 초판본이 다시 발견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70년 초판의 영인본이 발행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려도경」은 만든 지 몇 해만에 고려에도 전해졌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 몇 책에 간간히 인용되는 정도였고, 『세종실록』 지리지에서 개경의 지리를 언급될 뿐이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잊혀졌던 「고려도경」은 19세기 무렵 중국과 조선에서 다시 등장하여 본격적으로 알려진다. 마침 고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개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개경을 소재로 한 한재립의 「고려고도경」이 발간되었고, 신위는 「경수당전고」에 수록된 '제서공고려도경'이란 시에서 옛 개경을 노래하였다. 한편 「고려도경」은 역사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발해'를 포함한 한국사의 인식은 유득공의 「발해고」나 한치윤의 「해동역사」에도 이어졌다. 혹시라도 당시 고려에 전해진 그림이 있는 「고려도경」이 발견되기를 기대해 본다.

一卷圖經城市全
携書過客弔荒煙
可憐威鳳樓前石
猶見徐兢奉使年

한 권의 도경에 도시가 다 있어
책 끼고 지나는 길손 황폐한 연기 초상한다
가련하다. 위봉루 앞 돌이여
여전히 서공이 사신 온 그 해를 알려준다.

서공의 고려도경을 말하다.
- 신위申緯, 1769-1845 경수당전고

중국제 도자기

Chinese Ceramic

송(宋) | 심) 높이 5.0, 입지름 10.0 | 안성 매산리 고분
하) 높이 5.5, 입지름 13.0 | 안성 봉암사지

경기도 안성시 죽산지역에서 출토된 송나라의 도자기로 무역을 통해 입수되었다. 매산리 고분에서 출토된 흑유wan은 중국 건요(建窯)에서, 봉암사지에서 출토된 백자wan은 중국 장요(長窯)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해동역사(속편)

海東釋史(續編)

Haedong yeoksa(Sequel)

조선 1823년 | 실학박물관

조선 후기 실학자 한치윤(韓致胤)과 조카 한진서(韓鎭瑞)가 쓴 역사서이다. 단군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다루었으며 원편 70권, 속편 15권으로 총 85권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속편에서는 「고려도경」을 인용하여 개성의 모습을 자세히 담았다.



참고문헌

- 역주

김현구 옮김, 2012, 『사조선록 역주1』, 소명출판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2005, 『고려도경』, 서해문집
 조흥환 외 옮김, 2005, 『고려도경』, 함소아지리

- 단행본

김대식, 2013, 『그림으로 읽는 고려도경』, 역사인
 김영미, 2009, 『고려시대의 일상문화』, 이화여자출판부
 김용선, 2012, 『고려 묘지명 집성제3권』, 한림대학교출판부
 김창현, 2002,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미관』, 신서원
 김창현, 2011, 『고려 개경의 권제와 궁궐』, 경인문화사
 박종기, 2008, 『새로 쓴 9백년 고려사』, 푸른역사
 박종기, 2015, 『고려사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손환일, 2010, 『한국의 벼루』, 서해미디어
 이진한, 2014, 『고려시대 무예과 배다』, 경인문화사
 이희관, 2015, 『물총의 鎗器-宋代官鎗研究』, 경인문화사
 장남환, 2006, 『고려 중기 정치 연구』, 해인
 장남환 외, 2011, 『고려와 북방문화』, 일지사
 조선총독부, 1918, 『朝鮮古蹟圖誌』, 6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한국생활사박물관7-고려생활관1』, 사계절

- 발굴보고서

경기도박물관 - 안성시, 2002, 『奉樂寺』,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박물관 - 안성시, 2006, 『안성 梅山里 高麗 古墳群』,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도문화재연구원, 2008, 『論仁 寶후로 靑龍窟址-유인 죽전지개방지구 내 12지점 발굴조사보고서』

- 전시도록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고려유물전』,
 국립대구박물관, 2004, 『우리 문화속의 中國 陶磁器』,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7, 『철종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해 수증발굴 15년의 성과』, 국립중앙박물관, 2006, 『다시보는 역사 편지 高麗書誌誌』,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동경 - 겨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국립중앙박물관, 2012, 『천하제일 비석정치』,
 국립중앙박물관, 2013, 『고려시대 함포』,
 국립청주박물관, 2016, 『살과 예술 속 정동이야기』,
 국립청주박물관, 2013, 『정병 영한을 담다』,
 남북역사학자협의회, 2016, 『고려 황궁 개성 안팎에 - 개성 안팎에 남북공동발굴조사 출토유물 전시회』,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11, 『善藏其庫 高麗其庫-고려 기와의 전통』,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2011, 『天下均平 도 · 왕 · 형』,
 디 아모레 위지움, 2005, 『소정몽도록』,
 삼성미술관 Leeum, 2013, 『금은보화 : 한국 전통공예의 미』,
 삼성미술관 Leeum, 2015, 『세일가거 : 한국미술의 풍격』,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14, 『名品陶器 100選』, 박물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전,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17, 『花王君-천한된 꽃들의 세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14, 『소정몽도록』,
 호림박물관, 2009, 『고려청자 호림박물관 신사본관 개관기념 특별전』

- 논문

강병국, 2017, 『고려도경』의 시징과 금속화에 관한 기층 再考』, 역사학연구67
 고경희, 2009, 『고려시대 酒類飲食文化-12~14세기 詩文誌와 官署誌 再編中心으로-』,
 한국사생활문화학회지 24(2)
 고경희, 2011, 『고려시대 酒類文化와 金 · 銀 酒器』, 한국사생활문화학회지26(1)
 고경희, 2015, 『고려 대외교류국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주구(酒具)』, 한국사생활문화학회지30(5)
 고경희, 2015, 『고려 대외교류국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차구(茶具)』, 한국사생활문화학회지30(9)
 고연미, 2008, 『고려도경의 金花高麗 연구』, 한국사학회지14
 고연미, 2013, 『북송대 徽宗의 예술상에 대한 历史文化의 試論』, 韓國美術學誌 제19권1호
 국창근, 2017, 『국신사의 세군항로와 군선도 영첩, 철종선에 실렸던 고려 사람들의 꿈』,
 전해 수증발굴 15년의 성과, 국립전주박물관 -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구신우, 2015, 『고려시기 제도과 정책의 수렴과 배제-성군대 華風과 土風의 공간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42
 권순형, 2013, 『고려 전 · 중기 형과 문화 생활』, 한국문화연구25

韓慶宣, 1995, 『宣和奉使高麗圖誌의 版本과 그 源流』, 書誌學報16
 기경부, 1996, 『高麗圖誌의 遠洋船政와 航海技術』, 정신문화연구19권3호
 김학선, 1983, 『고려시대의 행정제도에 대하여-특히 고려도경을 중심으로』, 규장각7
 김규복, 2015, 『고려중기의 송 사절 啓略과 伴使의 운용』, 역사교육134
 김갑식, 2012, 『고려 개경 서부건축군의 성격과 배치구조의 사상적 배경』, 고고학11-1
 김난옥, 2009, 『송나라 사왕이 본 고려, 이방인이 본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편, 두산동아
 김대식, 2012, 『고려전기 중앙관제와 당송제』, 역사와 현실86
 김동욱, 1970, 『고려도경의 복식사적 연구』, 연세논총 7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김동욱, 1997, 『11,12세기 고려 황궁의 건물구조상 배치』, 건축역사연구 6권3호
 김미연, 2012, 『고려도경 인물초를 통해 본 안종 초 왕국의 일면』, 역사교육논집84
 김병인, 2002, 『고려도경 인물초에 나타난 邦望과 고려 중기의 정치사태』, 역사학연구19집
 김보경, 2011, 『고려도경과 고려의 문화적 형성』, 한국한문학회연구47, 한국한문학회
 김보경, 2016, 『12세기 초 송의 책봉 제의와 고려의 대응』, 동국사학60
 김보경, 2016, 『세군(고려도경)을 통해 고려를 알라』, 『전근대 서울에 온 외국인들』,
 서울사편찬위원회
 김성규, 2014, 『선화봉서고려사찰단의 일정과 활동에 대하여』, 한국중세사연구40
 김성준, 2017, 『황비정전경 황해도문 고려동경에 새겨진 배의 국적』, 역사와 경제105
 김수연, 2009, 『고려도경 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한국문화연구16
 김영미, 2002, 『11세기 후반~12세기 초 고려로 외교관계와 불경 교류』, 역사와 현실43
 김영태, 2004, 『10~13세기 宋禮과 동아시아의 화해경제-특히 송전의 고려유입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28
 김영태, 2009, 『태종고려의 항로와 선박』, 역사학보204
 김용선, 2014, 『새 자료 『伊寧集』 묘지명』, 한국중세사연구40
 김윤정, 2010, 『고려전기 집권체제의 정비와 관제제의 확립』, 한국중세사연구28
 김윤정, 2012, 『고려청자 문양의 사회적 요소와 도상의 특성상』, 미술사학28
 김윤정, 2013, 『고려시대 유적 출토 송대 청백자의 현황과 특징』, 아외고고학16
 김윤정, 2015, 『고려 중기 絳文靑磁의 유형과 성격』, 역사와실용76
 김윤정, 2017, 『12세기 고려청자에 보이는 송, 금대 청도 자기의 영향과 의미』, 아외고고학29
 김윤정, 2018, 『12세기 고려청자 어룡문의 도상적 특징과 연원』, 미술사학35
 김재일, 2015, 『고려청자와 『세일가거』, 세일가거 : 한국미술의 풍격, 리움미술관
 김창현, 2016, 『고려청자 외형의 등장과 왕위 계승논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46
 김태은, 2010, 『고려시대 백병의 용례와 조형의 특징』, 미술사학연구268
 김현구, 2008, 『한 · 송 관계사 상의 『宣和奉使高麗圖誌』』, 한중관계 2000년-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노영호, 1987, 『李寅謙-一派와 韓安仁-一派의 族黨勢力-高麗中期 靑磁器의 政治勢力化 樣態-』,
 韓國史論17
 문경호, 2010, 『1123년 세군의 고려 항로와 경원성』, 한국중세사연구28
 문경호, 2015, 『고려도경』을 통해 본 군선도와 군선정, 지방사와 지방문화(82)
 문경호, 2016, 『1123년 세군의 고려 항로에 대한 재검토-함계산-어도 인용정 구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74
 민태재, 2015, 『고려시대 중국사신행차의례와 전통문화』, 남도민속연구31
 민태재, 2017, 『동아시아 전근대의 사신행차의례와 공연문화』,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朴慶燾, 1990, 『徐兢과 『宣和奉使高麗圖誌』』, 퇴계학연구4,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박미애, 2015, 『고려 전기 국가의례와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박성진, 2012, 『고려공성 정전 배치관계 연구-세조정전 간역선과 주변 전각의 배치관계를
 중심으로』, 선사와 고대37
 박성진, 2016, 『개성 고려공성정전대조사를 통해 본 북한 고고분야 남북 협력방안』,
 통일고고학을 위한 연구 현황과 과제 진단-학술회의자료, 한국고고학회
 박옥걸, 2004, 『고려도경에 보이는 송인의 고려인사에 대하여』, 한중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박운은, 1995, 『고려 · 송 文聘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고찰(上)』, 한국학5281
 박운은, 1996, 『고려 · 송 文聘의 목적과 사용에 대한 고찰(下)』, 한국학5282
 박운은, 1998, 『고려전기 귀족관료들의 경제생활과 축재』, 한국사 시인강322
 박운은, 2005, 『고려시기의 복투와 복두질』, 한국사학보19
 박종진, 2015, 『고려시대 『大藏經』 및 『敎藏』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42
 박종기, 2001, 『경기 북부지역 중세 군현 치소와 특수부락 변화연구』, 북학사론8
 박종기, 2011, 『고려시대 종이 생산과 所 生産體制』, 한국학논총35권
 박종진, 1999,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 역사와 현실34
 박종진, 2009, 『고려왕조의 수도 개경의 공간』, 사회적 네트워크와 공간, 대학사
 박종진, 2010, 『고려시기 개경사 연구동향(2000~2009)』, 역사와 현실75
 박종진, 2010, 『총론: 개경 자료정리의 방법과 이용』, 한국중세사연구28
 박종진, 2011, 『총론: 개경개성 연구의 새로운 모색- 인적 네트워크와 공간』, 역사와 현실79

박지훈, 2003, 『송대 시대부의 고려관』, 이화사학연구30

방병선, 2013, 『고려 철화청자의 기원-중국 청사요와 철주요 철화청자요의 비교 연구』, 한국학연구45

배규범, 2016, 『서경1001~1153의 "고려도경"간행과 내용상 특징』, 동방문화비교연구6집

서근석·김병민, 2014, 『고려시대 "소형 호미"의 이용과 발원지』, 역사학보222

송창승, 1985, 『고려도경 소재 청자의 음역사적 의미』, 한국학보39집

송인주, 2002, 『고려도경에 새운 韓制 관련 기사의 검토』, 한국중세사연구12

송재용, 2013, 『고려도경에 나타난 고려의 인식 연구』, 동아시아고대학32

송호빈, 2010, 『중국 청사 동이전과 고려도경에 나타난 고대중세 한국의 해양신임과 실태』, 연인학지13

신인식, 2010, 『고려시기 개경 도성의 범위와 이용』, 한국중세사연구28

신인식, 2012, 『고려전기의 래승교류로와 교역』, 한국중세사연구33

신한순, 2008, 『고려도경으로 본 고려의 강역』, 통일한국 299, 평화문제연구소

신재식, 1985, 『宋代官人の 高麗觀』, 현대사학잡기금문 사학논총, 상경사

신재식, 1999, 『宋·불의 문화교류에 관하여』, 이화사학연구25·26합집

안귀숙, 2010, 『고려 금속공예에 보이는 문화의 영향』, 이대사학연구40

안병우, 2002,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43

안병우, 2010, 『개성성과 고려, 그리고 현재의 동아시아』, 한국중세사연구42

우성훈, 2006, 『高麗 都城 開京에 관한 都市史研究』, 동경대학교 건축학 석사논문

우성훈, 2010, 『개성 나성 축성의 도시사적 의미에 관한 검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29(2)

우성훈, 2013, 『고려 성곽의 개경의 변화와 도성구조에 관한 검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29(5)

우성훈, 이상태, 2006, 『고려성곽 내부 배치의 복원연구』, 건축역사연구 15권3호

윤경진, 2009, 『고려전기 경기의 편성과 운영』, 역사문화연구33

윤덕연, 1990, 『고려시대의 식생활 연구-고려도경을 중심으로』, 관동대논문집18

윤도영, 2010, 『10~13세기 중국과 고려의 舍利寶蓋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윤성재, 2009, 『고려시대 식물의 생산과 소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윤성재, 2015,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동수저』, 역사와 실학56

윤영민, 2010, 『10~12세기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 중관계사-재건과 모색』, 동북아시아재단

윤영미, 1997, 『고려 철화청자의 기원과 발전』, 대중문화연구32

윤용혁, 2010, 『고려시대 서해 연안해로의 역경과 민중성』, 역사와 경계74

윤이훈, 1983, 『고려도경에 나타난 종교사상-민간신앙을 중심으로』, 동명사상논고, 도원유승국역사비교집간행위원회

윤희복, 2009, 『고려청자에 보이는 舍利寶蓋의 영향』, 미술사연구23

이병희, 2013, 『高麗時期 寺院의 舍 生産과 消費』, 역사와 세계44

이부영, 2013, 『고려시대 불문화-서경의 고려도경을 중심으로』, 한국화예학회논문집28

이영은, 2013, 『고려청자 흔의 시대-비례장차 유역의 성분과 미세구조의 분석』, 미술자료 제83호

이정선, 1998, 『고려시대 동이의 생산 실태와 賦所』, 한국사학보5

이정선, 1999, 『고려시대 동생선과 漆所』, 한국중세사연구6

이정선, 2000, 『고려시대 銅의 사용현황과 銅所』, 한국사학보25

이정선, 2007,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29

이정선, 2010, 『고려시대 금 문제물과 금소·은소』, 역사와 담론57

이종민, 2004, 『11~12세기 靑銅鑄造의 계통과 변천』, 미술사학18

이종민, 2007, 『고려 분묘 출토 자기 연구-소대방식의 관점에서』, 호서사학46

이종민, 2010, 『고려, 실과 영종의 도자, 한반도의 출토자기로 태어났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종민, 2011, 『고려 중기 수입 중국역자의 계통과 성격』, 미술사연구25

이종민, 2015,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확산과정과 그 배경』, 호서고고학34

이종복, 1989, 『고려시대의 鑄造』, 역사와 세계23

이종복, 2011, 『고려시대의 도량형과 그 의미』, 天下均平-度(量)를 특별전 도록, 단국대학교 석주전기념박물관

이진영, 1994, 『고려시대 여자 복식의 고찰-고려도경과 刺繡를 중심으로』, 고봉논집15집

이진한·임형수·최은규, 2016, 『"고려도경 역주(1)-序"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5

이진한·오치훈·임형수, 2017, 『"고려도경 역주(2)-전1 권국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6

이진한·김국복·임형수, 2017, 『"고려도경 역주(3)-전2 제차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7

이진한·이태환·박수찬, 2017, 『"고려도경 역주(4)-전3 성염편의 불경-인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8

이진한·김선미·김윤지, 2017, 『"고려도경 역주(5)-전3, 성염편의 방사-금류와 전4 문물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69

이진한·김윤지·오치훈, 2018, 『"고려도경 역주(6)-전5 佛殿-전과 권5 佛殿二편의 장명전-장경전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70

이진한·박수찬·이태환, 2018, 『"고려도경 역주(7)-전5 佛殿二편의 연경각전-별궁편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71

이창섭, 2014, 『대승 외교 활동에 참여한 고려 수군-파한집과 "고려도경"에 나타나는 사해물

중심으로, 사총83

이희관, 2012, 『복숭아와 그 성격 문제-송대 문헌기록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64

이희관, 2015, 『여요와 휘종-복숭아요의 성립과 그 의미』, 아리고고학23

이희관, 2017, 『고려청자의 "定額制度"』, 陶磁研究26

이희연, 2004, 『중부지방 고려고분의 유형과 계층』, 한국고고학보45

임진아, 2004, 『고려 유적 출토 송대자기 연구』, 사립22, 수선사학회

임진아, 2005, 『고려청자에 보이는 복숭아, 유대 자기의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장남원, 2001, 『김진우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미술사학연구231

장남원, 2004, 『고려시대 경기지역 요업의 성격』, 고문학63

장남원, 2006, 『고려시대 철화청자의 성립과 발전』, 미술사논단18

장남원, 2007, 『고려시대 茶文化와 靑瓷-청자 茶具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24

장남원, 2008, 『고려 초·중기 청자 상감기법의 연원과 발전』, 미술사학보30

장남원, 2009, 『필사본 고려도경의 유무와 의미』, 한국문화연구 17집

장남원, 2009, 『10~12세기 고려와 靑·송도자의 교류』, 미술사학23

장남원, 2011, 『소대유적 출토 靑磁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공과 조제의 관계』, 역사와 담론59

장남원, 2014, 『신해평서고려도경(宣海平書高麗圖經)의 기명(器名) 연구』, 역사와 담론70

장동익, 2015, 『고려시대에 이루어졌던 대외정책의 재유형』, 한국중세사연구42

장지연, 2011, 『조선시대 고려 조공에 대한 지식의 변천』, 규장각39

전경숙,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군사사실과 방위구역』, 한국중세사연구28

전경숙, 2015, 『경기지역 고려 분묘 조성의 확대와 사후관』, 한국중세사연구41

전경숙, 2018, 『고려시대 국왕의 개경 정 행차와 도성의 공간 활용』, 역사와 담론85

전익환 외, 2008, 『한반도 출토 청동거울의 표면처리 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22

정신욱, 2007, 『11세기 말 ~ 12세기 전반 高麗靑磁에 보이는 中國靑磁 영향』, 미술사학21

정은정, 2001, 『고려전기 개경의 도시기능과 그 변화』, 한국중세사연구11

정은정, 2009, 『고려시대 靑磁의 도시변화와 靑磁鑄의 주어』,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정학수, 2010, 『고려시기 개경 행정구역과 "물"의 양상』, 한국중세사연구28

조동원, 2006, 『신해평서고려도경 해제, 고려도경, 황소자의 재구성』, 1988, 『고려전기 화폐유통의 기원』, 한국문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재용식, 2008, 『고려 예종대 靑磁佛燈·佛敎 용기의 청자적 성격』, 한국사연구142

재용식, 2014, 『고려중기 외곽의 위상과 청자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38

재용식, 2017, 『"총론" 고려전기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문화인식』, 한국중세사학보50

최건, 2012, 『고려백제의 의미와 특징, 고려청자와 중세 아시아 도자 제4회 한국미술 국제학술회의포럼, 국립중앙박물관

최규성, 2003, 『高麗靑磁를 통해 본 고려인들의 삶과 맛』, 東北亞 歷史의 諸問題, 역신

최용훈, 1985, 『고려도경에 보이는 佛具』, 한국문화,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최원천, 2004, 『고려시대 舍利寶蓋의 연구』, 미술사학연구241

최원천, 2013, 『한국의 금속공예, 금은보화-한국 전통공예의 특색발전 도록, 리움미술관

최원천, 2015, 『금속에 파어나 찬란한 아름다움 : 한국의 금속공예, 세밀가공 : 한국미술의 품격, 리움미술관

韓永愚, 1983, 『高麗靑磁에 나타난 樣樣의 韓國史體系』, 奎章閣 7

한정수, 2017, 『10~12세기 초 국제 청사와 고려의 年號紀年』, 한국중세사연구49

한정수, 2017, 『고려전기 이방인, 귀화인의 입국과 해동천하』, 한국중세사연구50

한혜선, 2001, 『경기지역 출토 고려시대 저장·운반용 질그릇 연구』, 한국고고학보40

한혜선, 2012, 『매도1·2호선 출토 고려시대 도기의 용도와 量制』, 해양문화재5

한혜선, 2012, 『문헌기록의 통해 본 瓦器·陶器·鑄造의 용례와 상호관계』, 역사와 담론64

한혜선, 2014, 『고려시대 도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논문

한혜선, 2016, 『고려후기 분묘 출토 陶器의 지역적 차이와 그 배경』, 한국중세사연구45

허경진, 2007, 『고려시대 송나라 사행대(使行海國) 누정의 변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12

허은철, 2013, 『고려 초기 법정화배 정맥』, 청람사학22

홍영의, 2007, 『한반도의 역사도시, 고려 수도 개경의 위상』, 고고학 6-1

홍영의, 2010, 『고려시기 개경의 궁궐 조영과 운영』, 한국중세사연구28

홍영의, 2011, 『조선후기 회화와 지도에 기록된 개성의 유적과 경관』, 역사와 현실70

홍영의, 2013, 『개성의 남겨진 문화유적과 현황, 개성의 문화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홍영의, 2013, 『고려도성의 형성과 변화, 고려도성기초학술연구 1』, 국립문화재연구소

홍영의, 2015, 『고려시대 영문(詔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고제』, 한국중세사연구41

홍영의, 2017, 『고려시대 금속제 기물 및 기와의 "연호" 검토-대중국 "연호"의 시행과 고려의 다원적 국제관계』, 한국중세사연구50

Edward Schultz, 1991, 『김부식과 삼국사기』, 한국사연구73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의 의식주

윤성재 숙명여자대학교

1. 들어가는 말

1123년 송나라의 국신사(國信使) 중 한명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궁(西宮)은 3개월간의 방문 일정과 한 달 정도 체류하는 동안 보고 들은 고려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서술하여 40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목(耳目)이 달는 대로 여러 이야기를 널리 수집하여 중국과 같은 것들은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취하여”서로 그림을 그리고(圖) 글을 지어(記) 제목을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使高麗圖經)」이라 「고려도경」이라 하였다. 서궁이 귀국한지 1년 만에 완성된 이 책은 1124년 8월에 송 휘종(徽宗)에게 진상되었다. 지금 이 책에서 그림은 없어지고 글만 남아 전하는데, 12세기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고려도경』의 중요성은 서궁이 고려에서 한 달여간 생활한 체험을 기초로 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성읍(城邑)이나 궁전(宮殿), 궐문(闕門)에서부터 백성(民衆)과 부인(婦人), 기명(器名)에 이르기까지 보고 들은 것 뿐 아니라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서술되었다는 데 큰 가치가 있다. 더구나 특히 국왕이나 귀족층만이 아니라 백성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자료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가치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려인의 일상생활, 그 중에서 서도 의·식·주 생활에 초점을 맞춰 서술해보고자 한다.

2. 고려 사람의 의생활

『고려도경』에서 의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관복(官服)」권7, 「도교(道教)」권18, 「민서(民書)」권19, 「부인(婦人)」권20, 「조예(朝衣)」권21, 「잡속(雜俗)」권22, 23 등이다. 「관복(官服)」에는 왕에서부터 재상과 같은 고위 관료에서부터 서관(庶官)에 이르기까지 관복(官服)을 수록하였고, 「도교(道教)」에는 도교(道)와 불교(佛) 승려의 법의(法衣) 등을 서술했다. 백성들의 복식은 「민서」나 「조예」, 「잡속」 등에 흩어져서 보이며, 여성 복식은 신분과 관계없이 「부인」과 「잡속」권23에 함께 서술하였다.

고려의 의생활을 알아보는데 『고려도경』의 내용이 중요한 것은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내용을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가령 왕의 복식 중 공복(公服)과 상복(喪服)은 「고려사」 「여복지(輿服志)」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려 사람이 입는 평상시에 입는 의복에 대한 사실은 확인되는 것이 드물다.

서궁이 인식한 고려는 특징 중 하나는 화려함을 경계하고 사치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고려가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했다. 서궁이 청연각(淸蓮閣)에서 베풀어진 연회에 참석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왕께서는 인자함과 검소함을 소중하게 생각해 그릇되거나 넘치는 행동이 없으시며, 옷은 수놓은 것을 입지 않으시고 그릇은 조각한 것을 쓰지 않으신다.”(『궁전(宮殿)』 2 연영전각(延映殿)라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의복에 있어서도 남성이나 여성이나,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그들이 입는 일상복은 다르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서궁이 파악한 고려 사람의 일상복은 흰 모시 도포에 검은 두건(頭巾)으로 특징할 수 있다. 고려의 왕도 평상시 설 때 검은 두건에 흰 모시 도포(白布衫)를 입고 있어, 일반 백성과 다를 게 없는 것(『관복』 8쪽)을 서궁도 알고 있었다. 또 농민과 상인 등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은 흰 모시도포(白布衫)에 네 가닥 띠가 있는(帶) 검은 두건(黑巾)을 쓰는데, 옷감의 굵고 거친 것으로만 구별되었을 뿐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옷차림을 하였다. 고위 관료나 귀인(貴人)도 관복을 입지 않고 자기 집에서 생활할 때면 똑같은 옷차림을 하였다. 다만 신분상 두건에 두 가닥(帶) 띠를 하여 차이를 둘 뿐이었다. 북두소(北都所)나 장직감(長職監)에 소속된 장안들도 흰 모시 도포에 검은 두건으로 똑같은 차림을 하였고, 일할 때만 관청에서 지급한 자주색 도포를 입을 뿐이었다. 심지어 고려의 도사(都司)가 입는 법의도 중국과 달리 우의(右衣)를 입지 않고 백포(白布)를 입고 네 가닥 띠가 달린 검은 두건(黑巾)을 둘렀다.

서궁은 고려를 방문하는 동안 여성을 볼 기회가 드물었고, 그들의 의복에 대해 관찰할 기회는 더욱 적었다. 사신이 지나갈 때 양쪽 길의 누관(樓閣) 사이에서 난간에 기댄 귀녀(貴女)를 몇 번 보았을 뿐이었다. 그런 것치고는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서 꽤 정확한 기록을 남겼는데 신분에 관계없이 왕실의 임첩(任帖)부터 백성의 부인이나 잡역을 하는 비녀(婢女)이거나 그 복식은 엇비슷하다고 하였다. 여성의 복식은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로, 위로는 왕족이나 귀족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 처첩에 이르기까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결 같습니다.”(『부인(婦人)』)라고 하였다. 가을이나 겨울철에 입는 노란 치마는 노란 비단을 사용하였다. 여성의 겹옷은 흰색 모시포로 남자 것과 비슷했으며, 특이한 것으로는 무늬 있는 비단으로 명주 안감을 댄 바지를 큼지막하게 만들어 지어 입은 것이었다.(『부인』, 귀부(貴婦)) 아마 여성의 기마(騎馬) 풍속과 관련하여 몸매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자료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이다.

서궁도 주목한 여성의 옷차림은 귀부인이 착용하는 몽수(蒙手)였다. 검은색 비단으로 만드는데, 한 폭의 길이는 8척으로, 3폭으로 구성되었다. 말을 탈 때 사용되었으며 정수리에서부터 땅에까지 끌릴 정도로 길게 늘어

뜨리면서 얼굴만을 드러내는 형태였다.〔잡속〕1 여기(女) 목수는 가격이 은(銀) 1근에 해당할 정도로 비싸 가난한 집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는데〔부인〕 천사(天使),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이지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은 아니었다. 서궁은 목수를 드리우는 고려 풍속이 당(唐)나라 너울(奴隸)의 유행으로 이해했으나〔잡속〕1 여기, 그것은 '중국의 교화를 입은 고려'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고 심은 생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3. 고려도경에 보이는 식생활

「고려도경」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잡속(雜俗)」(권22, 23), 「공장(公堂)」(권28, 29), 「기명(奇名)」(권30, 31, 32) 등이며, 실제 배물어진 연화에 대해서는 「연례(年例)」(권26)에 수록되었다.

실제로 서궁이 먹은 고려의 일상음식이나 연회음식 뿐 아니라 고려의 토산물(土産物)에 대해 몇 기록을 찾아 보거나, 남에게 들었거나, 자신이 먹어본 것을 망라하여 기록하였다.

고려에서 나는 토산물 중 곡식으로 메(麥), 웃기장(粟), 좁쌀(粱), 참깨(芝麻), 보리와 밀(米) 등을 재배한다고 하였고, 멥쌀이 있으나 찰쌀은 없고, 쌀알은 특히 크고 맛이 달다는 평가를 하였다.〔잡속〕2 종예(種葉) 여기서 서궁의 오해가 드러나는데 “고려에서는 참쌀이 없어서 멥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든다.”고 하였다. 술은 찰쌀로 빚는다는 인식을 가진 서궁이 고려에 찰쌀이 없기 때문에 멥쌀로 술을 빚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었다. 고려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찰쌀을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미꾸라지, 전복, 조개, 진주조개, 왕새우, 무명조개, 대게, 굴, 거북손과 해조(海藻)인 다시마를 고려의 것으로 꼽았다. 육류에 대해서는 서궁은 고려가 “소나 양을 기르는데 알맞다”〔잡속2〕 토산(土産)이라고 이해한 듯 하지만, 정작 서궁의 먹은 것은 돼지고기와 양고기였다. 서궁의 말에 따르면 “양과 돼지가 있지만 왕공(王公)이나 귀인(貴人)이 아니면 먹지 못하고, 가난한 백성은 수산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였다. 결국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의 차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이 조수가 빠진 뒤의 바닷가에서 굴과 대합 같은 조개를 주워 모으는 광경을 보고, “많이 거둬들여도 없어 지지 않는”〔잡속2〕 어(魚) 풍경은 서궁이 직접 목격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수산물은 “냄새가 비리고 맛이 짜다”라고 하여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았다.

고려의 식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기에 대한 이해였다. 서궁은 “부처를 좋아하고 살생을 경계한다. 따라서 국왕이나 재상이 아니면 양과 돼지를 먹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결국 공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연히 경제력이 좋은 계급에서만 소비가 가능했다는 것이다. 간혹 종교적 이유로 고려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견해가 있는데 다만 서궁의 말처럼 “도축을 좋아하지 않아” 도축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것뿐, 고려사회에서 고기 섭취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방자(防者)의 봉록(俸祿)이 매우 박해서 “평상시에는 고기를 먹는 일이 드물다”〔조예〕 방자(防者)라 하였고, 이자경(李資敬)은 사방에서 선물로 받은 고기를 썩히는 것이 늘 수만 근이라 할 정도였다.

채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것은 기록하지 않았고 자신이 먹어본 더덕(蔞蓂)과 버섯인 복령(茯苓)을 만들 언급하였다.〔잡속2〕 토산) 과일은 밤이 복숭아만큼 크며 맛이 달고 좋다고 했으며, 6월의 앵두와 개암·비자가

가장 많다고 남에게 들은 것만을 전했다. 일본에서 온 것으로 능금, 푸른 오얏, 참외, 복숭아, 배, 대추 등은 실제로 먹어보고 “맛이 싱겁고 크기가 작다”고 하였다.〔잡속2〕 토산

서궁이 참석한 연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상에 올랐다. 백성들이 고기보다 수산물을 많이 먹는다는 사실은 연회음식에도 반영되었는데, “안주로는 양과 돼지고기가 있지만 해산물(海味)이 더 많다”(연례(年例), 연의(年儀))라고 하였다. 소고기나 닭고기에 대해서는 서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식으로 올려놓지 않은 듯하다. 껍질을 까고 씨를 발라낸 과일과 채소를 상에 올렸는데, 도금한 금그릇이나 은그릇, 청자 따위를 사용하였다. 연회에는 술이 빠지지 않았는데, 고려는 “술과 단술(醴)을 귀하게 여겼”고, 안주로는 말린 고기와 생선, 채소를 섞어서 내놓았다. 서궁은 “술 따르는 법도(酒行)에도 절도가 없다”고 하였지만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다만 고려에는 뽕쌀에 누룩을 섞어서 술을 만드는데, 빛깔이 짙고 맛이 진해 쉽게 취하고 빨리 깬다고 하였다. 술을 “달다”고 표현하기도 했으나 좋은 술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아쉬워하였다. 왕은 “좌고(左考)에 보관하는 맑은 법주(法酒)를”, 백성들은 “맛이 텁텁하고 빛깔이 진한 술을”(기명(記名), 3 와준(瓦樽)) 마셨다고 하는데, 서궁이 실제 경험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날마다 먹는 일상음식으로는 사신들에게 제공된 음식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다. 사신들에게는 식사가 하루 세 번 차려졌는데 서열에 따라 소반 수의 차이가 있었다. 정사와 부사에게는 매 끼니마다 도금한 그릇에 붉은 칠 한 소반(赤漆) 다섯 개에 음식을 하루 3번 차렸다. 이들에게는 도금 한 그릇에 음식이 제공되었다. 도할관과 제할관, 상절에게는 매끼 검은 칠 소반(黑漆) 세 개에 차린 음식이 하루 3번 나왔다. 중절은 소반 두 개에, 하절은 한 소반에서 5명이 같이 식사를 했다.〔공장(公堂) 1〕 구체적인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매일 제공하는 더덕(沙蔞)이 올랐던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루 3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4. 고려도경에 보이는 주거생활

『고려도경』에서 주거생활과 관련된 항목은 「성읍(城邑)」권3, 「궁전(宮殿)」권5, 6, 「관부(官府)」권16, 「관사(館舍)」권27, 「공장(公堂)」권28, 29, 「기명(記名)」권30, 31, 32 등이다. 「성읍」부분에서는 고려의 지리적 상황과 수도인 개성의 형세를 설명하고, 왕성과 그 내부의 시장(坊市) 등을 설명하였다. 「궁전」에서는 회경전(會慶殿)을 비롯한 고려 왕궁의 전각 배치 및 건물을 하나하나 설명하였고, 「관부」는 상서성(尙書省)을 비롯한 중요 고려 관청의 위치와 배치, 기능을 설명하였다. 「관사」는 순천관(順天館) 등 송의 사절단이 머무르던 곳을 설명한 것이며, 「공장」은 침상(臥室)이나, 무늬 있는 돗자리 등 내부 시설을 묘사하였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서궁이 머무르던 관사의 내부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백성의 주거에 관한 언급은 10여 가호 단위로 하나의 취락을 형성하며, “별집이나 개미구멍 같으며 띠를 베어 지붕을 엮어 겨우 비바람을 피할 정도이다.”(『성읍』 국성(國城)이라는 것이 전부이다. 또한 집 크기는 “집 크기는 서까래 두 개를 세워놓은 정도”에 불과했지만, “비교적 부유한 집에서는 기와집을 세운 경우도 조금 있지만 옆에 한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백성의 방 안에 놓인 가구는 확인되는 것은 침상(臥室)이다. 서궁이 본 것으로는 중국 사신의 침상은 곱고 화려한 깔개에 무늬있는 왕궁 돗자리를 깔아 편안

하여 만들었다. 그러나 “백성은 대부분 흙 침상으로, 땅에 구멍을 파서 온돌(火池)을 만들고 그 위에 누웠다” (“공장1”)와답(火池)고 하였다. 서궁이 직접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백성의 집에 방문할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이 아닌가 한다.

서궁이 관청이나 사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주거에 대해 잘 알 수 없었던 것은 그가 고려에 대해 직접 경험한 폭이 좁았기 때문이었다. 서궁은 본인 스스로 “고려에 머문 기간은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고려에서> 관사를 제공한 다음에는 군사가 지키므로 관사를 나선 게 대어섯 번에 불과하였습니다.”(“서문”)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그가 직접 보고 서술한 상황은 공간적으로는 바닷길을 제외하고는 개경 소재의 궁궐이나 문궐, 사우와 관부 등에 불과하였다. 다만 서궁이 고려의 문물을 직접 보고 들은 만큼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은 것도 있다. 서궁이 본 옛 기록에 “광대(廣臺)의 집에만 장대(杖臺)를 세워 양인의 집(兩臺)과 구별한다.”고 한 것을 “그렇지 않고, <장대> 주문을 외우거나 귀신에게 빌기(祈禱)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한정된 공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머물던 「관사」와 관사의 「공장」과 「기명」에 대한 묘사가 자세해 질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기명에 대해서는 그 형태적 특징과 높이·지름·용량까지 기록할 정도였다. 정사·부사·도할관·제할관의 거처에서만 사용하는 은으로 만든 연악호(連岳壺)는 “동근 배에 목은 길며 뚜껑의 형태는 조금 뾰족하다. 높이는 5치이고 배의 지름은 3치 5분수이며 용량은 1되이다.”라고 자세히 묘사하였고, 은 3근으로 만들었다는 물병(水瓶)은 “높이는 1자 2치이고 배(瓶)의 지름은 7치이며 용량은 6되(斗)이다.”라고 하였다. 서궁이 머물렀던 거처는 비단으로 만든 장막을 드리우고, 걸상 위에는 비단 깔개를 깔 후 큰 자리(大席)를 또 깔았다. 방안에는 화장함·술통·타구·식기 같은 용기들은 비치하였다.

백성이 사는 민가 말고 고위관료의 저택이나 궁궐은 비교적 호화스러웠다. 서궁은 이자겸 저택(李資謙의 규모는 사치스러웠다고 평했고, 궁궐에 대해서는 “동근 두공에 각진 정수리”나 “붉고 푸른 빛으로 장식한, 잇달은 용마루”를 보고 “멀리서 보면 깊은 맛이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고려에 대해 “음식은 아끼되 거처(宮殿)를 꾸미는 것은 좋아합니다.”(“공전”)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해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나오는 말

12세기 고려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는 「고려도경」은 다른 기록에는 전하지 않는 고려시대 백성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서궁이 파악한 고려 사람의 일상복은 흰 모시 도모에 검은 두건으로 특징할 수 있다. 물론 왕복이나 관복, 법복과 같은 공적인 복장은 달랐지만 고려의 왕부터 농민과 상인(商賈) 심지어 종교인인 도교의 도사(道士)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옷차림을 하였다. 여성도 비슷했는데 흰색 모시 저고리에 노란 치마를 입었고, 귀부안들은 몽수를 착용하였다.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의 식생활은 실제로 서궁이 먹은 고려의 일상음식이나 연회음식 뿐 아니라 고려의 토산물(土産物)에 대해 옛 기록을 찾아보거나, 남에게 들었거나, 자신이 먹어본 것을 망라하여 기록하였다. 그래서 고려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수산물 등은 언급하고, 연회에서 차려진 음식과 고려가 멧밭로 빛는 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제력이 좋지 않은 백성은 수산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면, 사회의 종교적 분위

기와 관련 없이 오히려 고위 관료들이 고기를 썩혀 버릴 정도로 많이 먹는다가나 하는 사실을 전해주는 기록들이다. 한편으로는 일상 음식으로는 구체적인 음식이 어떻게 차려졌는지는 모르지만 “관에서 매일 제공하는 더덕”과 같은 반찬이 올라간, 하루 3끼 식사가 일반적이었다는 것을 짐작할만하다.

일반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적은데, 이것은 서궁이 일반적인 주거생활에 대해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궁이 고려에 머문 기간은 겨우 한 달 남짓이었고, 관사에 들어간 이후에는 관사를 나선 게 겨우 대어섯 번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 직접 경험한 폭이 좁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보고 서술한 상황은 공간적으로는 바닷길을 제외하고는 개경 소재의 궁궐이나 문궐, 사우와 관부 등에 불과하였다. 그래도 백성의 주거에 대해 집의 크기나 흙 침상에 온물(火水)시설을 언급하였고, 고려의 문물을 직접 보고 들은 만큼 잘못된 옛 기록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고려도경』은 고려전기의 일상생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당시 중국의 고려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 주는 자료로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도경(<http://db.history.go.kr/KOREA>)
- 조동원, 2003, 『역주 선화봉사고려도경』, 황소자리
- 이진한 외, 2016~2018, 『高麗圖經』(譯註) 1)~7), 『한국사학보』65~71
- 金德仁, 1990, 『高麗時代의 食生活에 관한 연구—高麗圖經을 중심으로』, 『龍大論文集』18(자연과학·예체능편)
- 金東旭, 1970, 『高麗圖經의 服飾史의 研究 : 高麗圖經의 風俗史의 研究 1』, 『延世論叢』7-1
- 김문숙, 2008, 『고려사』 예지를 통해 본 고려시대 왕의 관복, 『동방학』14,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 김보경, 2011, 『고려도경』과 고려의 문화적 형상, 『韓國漢文學研究』47
- 김수연, 2009, 『고려도경』 연구의 동향과 활용 가능성, 『한국문화연구』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宋宰鏞, 2013, 『高麗圖經』에 나타난 高麗의 民俗 研究, 『동아시아고대학』32
- 신은재, 2007, 『高麗史』편찬 후 고려에 대한 기억, 『한국중세사연구』23
- 신은재, 2011, 『조선인과 중국인이 남긴 고려관련 기록과 그 의미』, 『한국중세사연구』30
- 이승혜·홍나영, 2011, 『고려사』 예지(禮制)의 복식사적 검토, 『服飾』61-4
- 臧 健, 2001, 『宋代 문헌 중의 高麗社會 : 《宣和奉使高麗圖經》을 例로』, 『梨花史學研究』28
- 장남원, 2009, 『필사본』 『고려도경』(高麗圖經)의 유포와 의미, 『한국문화연구』17
- 장남원, 2014, 『선화봉사고려도경』(高麗圖經)의 기명류(器名類) 연구, 『역사와 담론』70
- 전영준, 2011, 『11~12세기 전후 麗-宋 양국의 문화인식과 『高麗圖經』』, 『다문화콘텐츠연구』10

이방인의 눈에 비친 고려, 『고려도경』

김대식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겸임교수

1. 'Pax Coreana'

- 1) 고려高麗라는 나라
- 2) 멋진 신세계 - 'Pax Coreana' 팩스 코레아나
- 3) 『고려도경』 - 경기高麗 1,000년의 타임캡슐

2. 『고려도경』 - 그림 없는 그림책

- 1) 그림 없는 그림책
- 2) 공개된 비밀 보고서
- 3) 895년전 고려사람들의 일상

3. 잊혀진 '황금시대'의 기록

1. 'Pax Coreana'

1) 고려高麗라는 나라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사로 연상되는 것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수 십 년 동안 거의 변함 없이 광대한 영토를 상징하는 '고구려' 혹은 찬란한 문화를 상징하는 '신라, 석굴암', '세종대왕, 한글'이라고 한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청자, 금속활자, 팔만대장경'을 연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역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순위가 밀린다.

실제로 고려시대사는 한국사의 역사학계에서도 전문연구자의 숫자나 간행된 책의 수량에서도 가장 적은 편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도 고려시기는 기간에 비해 분량이 가장 적고, 학력고사와 수능에서도 별로 중시되지 않았고, 현재도 그러하다.

지난 6월 어느 역사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떤 한국사 강사 출신의 패널panel이 금속활자를 설명하기 위해 '고려시대는 500년 동안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던 시기'로 설명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것이 사실일까? 이러한 곡해의 출발점은 1975년 베트남北越國 멸망 당시, 한국정부가 '국적 있는 교육'을 내세우며 '우리는 993차례의 침략을 받았으나 이를 극복했다'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교육한 것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기억의 잔상은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한국사의 역사에서 실제로 침략전쟁 수행했던 것은 고조선의 멸망 이후 삼국시대에 244년 위나라 관구검關公孫康의 침입에서 나당전쟁까지 10회 미만이고, 고려는 거란 3회, 몽골 7회, 홍건적, 왜구 등을 합쳐도 20회 미만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병자

호란, 병안양요-신미양요 등을 합쳐도 10여회에 불과하다. 993회의 침략은 '전쟁'이 아닌 '전투'의 횟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도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고려의 건국할 무렵의 중국은 당나라의 멸망 후 여러 나라가 난립한 '5대10국'시대였다. 이들 나라들은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자칭했고, 거란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도 각기 황제라 불렀고, 고려 역시 그러했다. 이에 대한 당시 중국에서의 평가는 고려가 후삼국통일을 성취하면서 주변의 여러 세력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황제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1)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거란은 통일 재국을 한 송나라의 일전을 준비하면서 후방의 고려를 견제하기 위해 일전에 돌입한다. 거란의 1차 침입은 성종 12년(983년) 소손녕이 이끄는 80만 대군을 동원해 진격했으나, 고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서희와의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할양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거란은 이후 송에 대한 전면전을 벌여 결국 1004년 전연(淸淵)의 맹약(盟約)이라는 항복선언에 가까운 평화조약을 송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후 거란은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2차 침입을 감행한다. 결국 고려의 강력한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 마지막 3차 침입은 고려의 효율적 방어전(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인해 거란을 완벽히 패퇴시켰다. 이후 동북아시아는 송-거란-고려가 정립(淸和)하는 세력균형이 이루어져 10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유지된다.

2) 멋진 신세계 - 'Pax Coreana' 팩스 코레아나

'Pax Romana' 팩스 로마나'는 로마에서 제정이 성립된 이후 200년 동안 지속된 평화의 시기를 말한다. 이 용어는 1960년대 미국의 패권주의를 'Pax Americana'로, 2000년대 일본에서 '중국굴기(中國崛起)'를 견제하기 위한 논리로 만든 'Pax Mongolica' 등으로 변용하여 사용되었다. 한국사에서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이후 1231년 몽골의 침입이 시작된 200여 년 동안 지속된 '고려의 평화시기'는 고려에 의해 만들어진 동아시아의 평화시기이다. 당시 동아시아는 세계의 정치와 문화의 선진지역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팩스 로마'와 마찬가지로 'Pax Coreana' 팩스 코레아나'로 불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려시기'는 수난의 시대로 인식되고 있어, '팩스 코레아나'는 허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와 같이 모호하고 기괴한 세상으로 보일 것이다.

이 시기 고려에 대한 팩트는 금나라 건국 이전까지의 100여 년 동안 여진 등 주변의 민족으로부터 수 백 차례의 조공을 받는 '황제국'으로 군림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들자면, 우선 황해 동쪽의 지역은 중국과 주변 민족들에게는 금단(禁斷)의 땅이었다. 물론 고조선과 고구려가 중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정령되었다. 하지만, 왕검성과 평양성의 함락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정령 이후에도 지속적인 저항으로 제대로

지배를 엄두조차 내기 힘들었던 곳이다. 고려 때도 최강의 기병을 자랑하던 거란이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시키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저항과 함께 퇴로를 막아 막대한 손실을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중국과 북방민족들에게 고려의 땅은 흉가에 불쑥불쑥 나타나는 귀신의 집과 같이 들어갈 수는 있으나 가까이 접근할수록 공포에 빠져드는 늪과 같은 곳으로 인식된 것 같다. 세계제국을 건설한 몽골은 근접 거리에 있는 고려에 대해 수 십 년 동안 대규모의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무력에 의해 직접적인 항복을 받지 못했다. 몽골이 고려를 굴복시킨 가장 큰 계기는 고종 41년¹²⁵⁴ 제5차 침입 때 206,800명을 포로로 끌고갔다. 20만명은 고려의 수도 개경의 인구, 혹은 전체인구의 1/5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였다. 백성이 없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듯이, 이를 계기로 고려는 항복을 선택한다. 고려는 몽골에 포로 송환문제를 비롯한 항복 조건의 협상을 위해 태자^{태조}를 몽골의 수도 대도^{대도} 북경에 보냈다. 태자가 대도에 도착했을 때, 몽골의 칸 몽케는 이미 사망해있었다. 쿠빌라이 등 칸의 계승권이 있었던 인물들은 대도를 향해 출발한 상태였다. 원종은 후임 칸으로 가장 유력한 쿠빌라이를 먼저 만나기 위해 출발하여 사천^{사천}으로부터 내려오던 쿠빌라이를 의창^{의창}에서 만났다. 원종은 쿠빌라이에게 황제의 의례를 행하면서 항복의 의사를 전했다. 쿠빌라이는 고려의 항복을 수용하며 '당나라 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서도 항복받지 못했는데,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나에게 와서 항복을 했으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고려는 영토와 백성, 국왕과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개토몽주^{불개토몽주}의 권리도 가질 수 있었다.

중국과 북방에서 인식하는 '고려'는 범접할 수 없는 신비한 미스터리 나라였다. 현종 원년¹⁰¹⁰년 고려를 침입한 거란의 성종^{성종}은 개경을 점령하고 기수를 돌려 지금의 양주시 북쪽 회천동인 창화현^{창화현}에 진을 치고 머물렀다. 이 때 고려 현종은 남쪽으로 피난을 가며 거란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하공진^{하공진}을 사신으로 보냈다. 거란 성종은 하공진에게 고려왕이 있는 곳을 물었다. 하공진은 현종이 강남을 향했는데, '강남은 아주 멀어서 몇 만리가 되는지는 알 수 없다^{江南太遠不知幾萬里}'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거란군은 추격을 포기했다. 고려의 영토는 고려와 인접한 북방민족인 거란조차 어느 정도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이처럼 고려에 대한 정보는 무지에 가까웠다.

송과 '전연의 맹약'을 맺은 거란은 고려를 심하게 압박하며 굴복을 강요했다. 고려는 거란과의 일전을 준비하며, 송에 연합작전을 요구하는 사신 관원을 파견했다. 송의 진종^{진종}은 고려사신에게 밀사 장사덕^{장사덕}을 보내 개봉성의 망루^{망루} 위에서 송나라의 사정에 대해 설명하게 했다. 장사덕은 관원에게 진종 황제가 '나라 수도의 높고 큰 집은 모두 군영이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날마다 군사훈련을 한다. 우리가 이러한 처지이니,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고려가 거란에 항복하는 것에 대해 용인한다'⁴⁰고 전했다.

하지만 2년 후 고려는 동북아 최강의 군대인 거란군을 대파했다. 이 전투는 흔히 강감찬의 귀주대첩으로 잘 알려져있다. 고려군은 전통의 공성전을 비롯하여 기마병을 무력화시키는 검차^{검차}라는 신무기, 독특한 지면전술인 청야^{청야}전술, 최종적으로 수공^{수공}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어 거란과의 전쟁에 몰두한 사이 동해안을 침범한 여진의 해적을 소탕함으로써 육상과 해상에서 주변의 세력들을 평정했다. 또한 8월에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실은 사신단을 송나라에 보냈다. 무안해진 송이 전리품의 수령을 거부하자, 고려는 송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다.⁴¹

이로부터 이어진 시대가 'Pax Coreana'의 시대로 고려의 '황금시대'이다. 고려는 당시 최첨단 하이테크 기술인 청자를 독자적으로 생산했으며, 세계 최고의 초정밀 기술인 '나전'과 '사경'을 만들었다. 사원에

금을 입힌 동남아의 금탑보다 더 웅장하고 화려한 청기와와 금박, 보석가루로 입힌 궁전과 60m에 이르는 거대한 광동보제사를 건설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거대한 건축물이 즐비한 세상에서 가장 품격 있고 화려한 20-30만의 거대 도시 중의 하나였다. 고려는 송-거란-일본에 산재한 불경을 집대성하여 동아시아 최고의 지적 성과로 불리는 한역불경을 목판으로 새긴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사상계의 메카가 되었다. 황금의 나라, 고려의 '황금시기'는 몽골의 침입으로 잿더미로 변했지만, 그 찬란함은 '멋진 신세계'처럼 환상적인 기괴함이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Pax Coreana'의 기록이 「고려도경」이다.

다음은 송나라 사신단이 고려의 관문인 예성항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을 「고려도경」은 이렇게 기록했다.

1123년 6월 12일(정월 7월 6일) 아침, 고려 최대의 항구인 예성항은 어제까지 심하게 내리던 장맛비가 그치고 중국 송나라 사신단을 맞이하려는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날이 밝아오자 새로 만든 당시 세계 최대의 선박인 신주(新舟) 2척을 앞세운 송나라 사신단의 배 8척이 위풍당당하게 예성항 어귀에 들어섰다. 눈앞에 보인 고려의 예성항에는 30m가 넘는 신기(新機) 10개가 신주에 맞서 앞을 가로막을 듯이 서 있었다. 그 주변으로 중무장한 기병들과 의장대를 비롯한 고려 정예부대 10,000명이 도열해 있었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항구 주변을 에워쌌다.

송나라 사신단은 내심으로 거대한 신주의 규모에 압도당해 입을 다물지 못한 고려인들을 상상했지만, 오히려 놀란 것은 그들이었다. 사신단의 신주를 앞세워 위풍당당하게 고려를 압도하려 했던 송나라의 계획은 고려 땅에 첫발을 내딛는 예성항에서부터 좌절되었다.

3) 「고려도경」 - 경기(京畿) 1,000년의 타임캡슐

'경기(京畿)'는 현종 9년(1118) 고려가 거란과의 존망을 건 일전을 준비하며 지역편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해 말 거란의 3차 침입이 시작되었다. 고려는 10만에 이르는 거란군과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이듬해 강감찬은 2월 1일(기축)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끌고, 2월 6일 개설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월 18일 여진의 추장 우나(烏訥) 등이 내조한 사례를 보았을 때, 주변의 여진족들은 고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4월에는 거란의 전쟁을 틈타 강릉(江陵)을 침범한 여진의 해적들을 물리쳐 동해안의 재해권을 재확인하였다.

고려는 전쟁 당사자인 거란은 물론 여진, 철록 등 동북방의 제부족, 기존의 송은 물론 남방을 이어주는 송의 천주(天州) 상인집단과 일본까지 전방위적인 교류의 허브(Hub)로서 동북아시아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20-3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당시로서는 세계적인 대도시였지만, 도심의 하천이 임진강의 작은 지류였기 때문에 도시 확장에는 문제가 있었다. 「고려도경」에 따르면, '성(城)에서 40리 떨어진 곳에는 개성부(開城府)가 있는데 백성들의 혼인, 토지 문제, 쟁송(爭訟)을 모두 처리한다'는 것으로 보아 경기(京畿)는 현재 수도권의 개념과 유사한 고려의 중심부였음을 알 수 있다. 거란과의 전쟁 이후 찾아 온 'Pax Coreana' 시대에 대외교역으로 쌓인 부(富)는 도시의 정비, 거대 건축물의 건설, 항안과 도로의 확충 등에 사용되었고, 그 대부분이 개경과 경기도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각지에서 출토된 엄청난 수량의 유물이 수도인 개경에서 출토된 유물과 질과 양의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12세기 초 요궈의 몰락과 금궈의 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송나라는 거란과의 전쟁 이후 100년 동안 부궈와 군사력을 축적해 강국으로 부상한 고려와의 연합작전을 구상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사신단을 파견했다. 사신단 파견의 궁극적 목적은 금나라 군대에 맞서기 위해 고려로부터 군대를 파병하게 하는 것이었다. 군의 동원은 기본적으로 '군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더욱이 외국의 군대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더욱 복잡해진다. 군대에서 필요한 무기와 식량 등의 군수용 보급물품은 '군인'들의 생활 습관의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려군' 뿐만 아니라 '고려인'의 생활습관, '고려'라는 나라에 대한 광범위한 기본 조사가 필요했다. 그 조사의 결과물이 「고려도경」인 것이다. 「고려도경」은 조사단의 규모와 기간이라는 한계로 인해 조사범위가 수도 개경과 그 주변의 경지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1123년 여름 개경과 주변 지역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담긴 「고려도경」이라는 타임 캡슐은 우리에게 900년전 고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고려도경」 - 그림 없는 그림책

1) 그림 없는 그림책

「고려도경」은 1123년 고려에 파견된 송나라 사신단의 일원인 서궈^{서거}이라는 인물이 고려로부터 귀환한 후 1년 동안의 정리작업을 거친 후인 1124년 8월에 휘궈 황제에게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보고서이다. 「고려도경」이라는 약칭도 서궈가 붙인 제목이다. 책은 총 40권으로 28개의 주제^門·^部로 301개의 세부 항목^條·^部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책은 제목에 '도경^{圖經}' 즉 '그림과 내용', 혹은 '그림을 곁들인 설명'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붙였다. 즉 책에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인데, 실제로 책의 내용 가운데 서궈가 각 주제의 서문이나 개별 항목에서 '본 것은 모두 그림다' 혹은 '본 것을 차례대로 그림다' 등의 표현을 수 십 번이나 반복해 표현했다. 그 중에서 국성과 궁궐과 같은 항목은 '개괄을 잡아서 그림다'고 했고, 기명의 경우는 '대략 간추려 그림다'고 서술했다. 이는 서궈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301항목 모두에 한 장 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모아서 그림 수밖에 없는 항목과 1장 이상을 그려야 할 항목도 있었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그림을 생략할 경우 '동문의 3개 항목은 그림을 생략한다'고 서술했다. 이처럼 원래의 보고서에는 300장 내외의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고려도경」은 '그림 없는 그림책'이다. 원래 「그림 없는 그림책」은 달카이 공방에 새들어 사는 가난한 화가를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가상의 내용을 담은 덴마크의 작가 안델센이 1839년에 발표한 연작단편집의 제목이다. 「고려도경」은 그림이 사라진 그림책 말 그대로 '그림 없는 그림책'이다. 서궈가 고려를 방문한 후 송의 황제 휘궈에게 1년이 지나서야 보고를 올린 이유는 고려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와 함께 300장이나 되는 '그림'을 그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림을 그려 보고하게 한 보고서는 「고려도경」이 유일하다. 이는 중국 역사상 그림을 가장 사랑한 황제로 알려진 송 휘궈의 특별지시에 때문이다. 휘궈는 자신이 서화^{書畵}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고, 국사를 돌보는 것보다 서화와 골동품의 수집에 골몰했던 황제였다.

흔히 세계 4대 여행기를 마르코 폴로 Marco Polo, 1254-1324의 동방견문록, 오도릭 Odoric, 1265-1331의 동유기^{東遊記}, 이븐 바투타 Ibn Batuta, 1304-1368의 여행기 그리고 헤초^{海潮} 704-787의 「왕오천축국전」을 꼽는다. 이들은 특별한 한 개인이 미지의 세상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시각의 기록이다.

외국을 방문한 사신의 주임무 중의 하나는 이 방문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상세하게 조사해 보고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랍풍토기(鎭臘風土記)」를 들 수 있다. 1296년 8월에 김보디아에 도착한 원나라 사신 주달관(周達觀)은 1년동안 머물며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톨 등에 크메르 왕국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진랍풍토기」는 사신 주달관이라는 개인의 시각으로 크메르 왕국을 조망하고, 신기하고 다채로운 풍물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기록으로 여행기에 가깝다. 「고려도경」은 중국 사신단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집단이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이를 여행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기록이다.

당시 송나라는 1122년 12월 금나라에게 막대한 세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연경(燕京)과 계주(桂州) 등 6주의 지배권을 획득했다. 송은 금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면서, 고려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고려군을 동원해 금나라를 공격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나라는 이러한 준비과정에서 고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적었음을 자각해 고려에 대한 공범위하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식을 필요로 했다. 우선 군대를 동원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대와 관련된 편제와 명령체계, 무기와 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리적 환경, 역사, 정치, 문화 등 고려사회 전반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지금의 항공모함 정도에 해당하는 2척의 거대한 신주(新舟)라는 배를 만들어 보내 고려에 위세를 과시하여 고려와의 군사동맹을 이끌어 내고자 했다.

송나라는 1123년 6월에 상절 25명, 중절 23명, 하절 108명 등 156명의 공식사신단과 뱃사람 720명과 그밖의 수행원 등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당시 세계 최고의 선박인 신주 2척과 객주 8척을 동원한 대규모의 사신단을 고려에 파견했다. 송나라가 고려에 보낸 역대 최대 규모의 사신단이었다. 대규모의 사신단 파견은 당시 송나라의 입장에서 금과의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 즉위한 인종에게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해야 할 필요성이 때문이었다.

고려에 대한 정보 수집은 송 휘종의 직접 지시로 사신단 전원에게 하달된 임무였다. 휘종은 특이하게도 수집한 정보를 그림으로 그려 제출하게 했다. 이 때문에 글과 그림에 능한 서궁(書宮) 1091~11530이 정리와 보고의 책임을 맡았고, 전문지식과 함께 그림에 능력이 있는 성충량 주통(程崇亮) 등 첩보활동을 담당할 전문 요원 58명을 선발하여 수집과 정리업무를 하달했다. 이들은 개별분야의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송 휘종은 파견할 사신단이 구성되자 이들을 직접 불러 임무를 하달했고, 사신단이 출발할 때도 전원을 불러 직접 송별연을 열었을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고려에 대한 보고서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서궁의 의도가 아니라 휘종의 특별한 지시 때문이었다.

「고려도경」은 서궁 일행이 중국을 떠난 5월 28일부터 8월 26일 명주에 도착하기까지 85일 동안의 기록이다. 주요 내용은 개경의 관문인 예성항에 입항한 6월 12일부터 7월 13일 순천관을 떠나기까지 개경에 체류한 30일 동안의 기록이다. 「고려도경」은 40권 29문 301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52,500자 내외로 논어·맹자·대학·중용을 합친 사서(四書) 정도의 분량으로 체류기간을 감안하면, 엄청난 분량이다. 서궁은 서열 4위의 제할관(執將官)으로 본인이 사신의 거처인 순천관을 떠난 것이 6번 정도였다고 술회했다. 이는 상당부분의 기록이 서궁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고, 그의 역할이 정리자였음을 알려준다.

2) 공개된 비밀 보고서

「고려도경」에는 고려군의 조직과 배치, 무기체계, 통신과 운반도구와 체제 등 군대와 관련된 기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고, 고려의 지형을 비롯하여 고려 개경의 궁성과 관청, 고려의 정치 기구와 운영 방법

등 고려사회의 정치와 운영 실태에 대해 적혀있다. 또한 고려의 중요인사를 비롯하여 고위관료에서 말단의 사동까지 기술했고, 진사와 농민, 상인, 장인과 뱃사람을 비롯하여 귀부인과 일반 여성의 복장까지 조사했다. 고려의 여러 불교사찰과 주요 사당, 도교사원을 비롯하여 승려와 이들의 활동도 기록했다. 또한 그들이 거처한 순천관을 비롯해서 고려에서 접하거나 사용한 다양한 물건들의 용도와 크기 등을 실제로 측량했다. 여기에 중국과 다른 고려사람들의 풍습과 소소한 일상의 모습들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서궁은 파견될 때의 직함이 제할인선예물배환人形禮物官으로 정사·부사·도할관에 이은 서열 4위였다. 그의 임무는 사신단에 속한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2척의 신주와 6척의 객주, 그리고 고려에 보내는 예물과 고려로부터 받은 예물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따라서 그는 3월 13일 황제의 명령을 받아 개봉을 떠날 때부터 8월 26일 중국의 명주 정해현으로 귀환할 때까지 182일 동안의 인원과 물자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사신단에서 가장 바쁜 직책이었다. 이러한 그가 이처럼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서궁이 첩보활동에 나선 것은 「고려도경」에 여러 차례 강조되어 있듯이, 송 휘종의 직접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휘종은 첩보활동을 위해 선발된 58명의 전담요원을 선발하여 총대하절이라는 이름으로 사신단의 하절에 포함시켰고, 서궁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서궁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 공식적인 업무는 정사와 부사의 지시에 따르지만 나머지 모든 사항은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첩보활동은 서궁 뿐만이 아니라 사신단 전원에게 황제가 직접 내린 특별 명령이었다. 더욱이 사신단이 개봉을 출발하기 직전, 휘종은 파격적으로 직접 지시한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연회를 베풀었다. 즉 서궁의 직함은 사람과 물자의 관리였지만, 실제의 업무는 첩보활동의 지휘를 맡아 고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왕과 주요 관리들에 대한 내용은 물론이고 고려의 지리, 인사, 의례, 풍습과 정치 제도는 물론 궁전의 배치와 구성, 무기의 종류, 왕·관원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한 일반 백성들의 복식, 농업·상업·수공업 등의 양상과 각종 생활용품들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궁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황성과 궁성에 몇 개의 문이 있고, 궁성에는 궁전의 배치현황과 개별 궁전의 명칭, 위치, 규모, 형태, 실제의 용도, 현재 사용하는 용도 등에 대해 기록했다. 궁성에 있는 관부와 황성 안에 있는 관부, 황성 밖의 관부로 나누어 같은 형식으로 개별관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군대와 무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접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벽란도에서 내려 개경으로 행진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행렬에 동원된 고려군의 구성과 지휘체계, 말은 업무, 복식과 무기, 깃발과 장막 등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그림으로 그렸다.

그는 개경에 체류한 30일 동안, 숙소인 순천관 밖에 나선 것이 5-6차례에 불과했다고 기록했다. 외출한 것도 조서의 전달과 예종의 조문, 송산묘와 광통보제사 방문을 제외하면 한두 번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정보를 어떻게 획득할 수 있었는가는 광통보제사의 사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서궁 개인이 보고 들은 정보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물인 것이다.

생활용기도 접근 가능한 것은 모양, 색, 크기, 용도까지 기록했는데, 직접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고, 물을 담아 용량을 측량하지 않는 한, 몇 자 몇 치, 몇 되 몇 홉 등으로 기록하기는 어렵다. 그가 기록한 용기

가운데 청자로 몇 종은 현존하는 유물이 많다. 몇 년 전에 박물관에서 『고려도경』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유물에 물을 담아 그 용량을 측정해본 결과, 일부 유물은 서경의 기록과 거의 같았다.

『고려도경』은 '종합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 정리된 '1급 비밀자료'였지만, 귀국 후 보고되었을 때는 휘종의 호사스런 취미에 부합하는 '신기한 여행기' 정도로 취급되었다. 이후 이 책은 12세기 고려의 문화뿐만 아니라 고려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의 모습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는 귀중한 보물상자이다.

3) 895년전 고려 사람들의 일상

서경 일행은 고려 사람들의 일상을 스케치했다. 당시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활보할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된 국제도시였다. 중국인들은 고려사람들 속에 들어가 소소한 일상까지 기록할 수 있었다.

『고려도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이해되지 않는 대목은 수베개(水被)였다. 수베개는 흰 모시로 자루를 만들어 그 속에 향초(香草)를 채우고, 양쪽 끝을 금실로 빙둘러 무늬를 수놓은 베개를 말한다. 우리에게 지금 쓰는 베개와 다름이 없이 일상의 도구이다. 서경이 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아니 최근까지도 중국인들은 베개로 보통 벽돌이나 나무토막을 사용했다. 나무토막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고려의 물자루 베개는 너무나 신기하고 이상한 물건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대표적인 약재인 인삼에 대한 대목이다.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에서 최고로 인정되는 약재는 인삼이다. 우리는 인삼의 인공재배가 시작된 것은 1514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인삼을 개성인삼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서경은 당시 고려 최고의 인삼이 지금의 춘천에서 생산된 '춘주인삼'이라고 했다. 그리고 당시 중국으로 수출되던, 찌서 익혀 건조시킨 숙삼의 제조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고려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었기 때문에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색다르고 신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록될 수 있었다.

『고려도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대목은 비색청자(霽色靑) 향목이다. 보통 우리는 고려청자의 색을 비색(霽色)이라 한다. 이러한 비색이라는 말의 기원이 『고려도경』이다. 이것은 서경이 '도기(陶器)의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인들은 비색(霽色)이라고 한다. (陶器色之靑者 蓋人謂之霽色)라고 기록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서경은 청자를 도기(陶器)로 표현했다. 도자기는 소성온도를 기준으로 1,200℃ 이하로 구운 질그릇을 어스웨어 earthenware 즉 도기(陶器)라 하고, 1,300℃ 이상으로 구운 것을 포셀린(porcelain) 즉 자기(磁器)라 한다. 고려청자는 소성온도가 1,250℃ 내외로 도기도 자기도 아닌 셀러단(celadon)이다.

고려청자의 유색은 녹색·연두색·노란색 등 다양하다. 흔히 말하는 고려청자의 비취색은 영어로 셀러단 그린 celadon green으로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이다. 비색(霽色)은 비취색으로 표현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비취색이 아니라 비취옥색이다. 비취는 짙은 녹색 유리에 가까운 에메랄드계열의 보석이고, 비취옥은 연두색에 가까운 녹색의 옥jade이다. 청색(靑色)은 흔히 블루 blue라고 생각하지만, 동양의 전통 시대에서는 블루와 그린green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었고, 오히려 그린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당나라 말 최고의 도자로 불렸던 월주요(越州窯) 자기 역시 청자로 불렸지만, 실제의 색은 연두색 yellow-green 혹은 노란색에 가까운 도기였다.

당시 북송에서 여주요(汝州窯)에서 황실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청자가 새롭게 등장했다. 하늘색 sky-blue에

가까운 맑은 유약이 굽바닥까지 입혀지고 표면에 방렬(方裂)이 있는 이 자기를 보통 '여요(汝窯)라고 부르는데, 현재 100점 미만만 남아 있다. 서궁은 "고려에서 생산되는 비색(秘色)청자는 월주요(越州)의 옛날 비색(比色)이나 여주요(汝州)에서 요즘 생산되는 도자기(陶器)와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서술했다. 그가 고려의 비색청자와 비슷하다고 한 여요청자는 역대 중국의 청자 가운데 최고의 명품으로 간주되며 작은 소품의 경매가가 수백억 원이 넘을 정도이다. 수십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는 물론, 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박물관의 위상을 높여줄 정도이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진품의 여요는 1점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여요자기는 방여요(方汝窯)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요를 모방한 작품을 말하는데, 이 조치도 최고급의 자기로 인정받을 정도이다. 서궁의 눈에 비친 고려청자는 중국 역대 최고의 여요와 동등하게 견줄 정도였다.

몇 년전 '세밀가귀(細密可貴)'라는 '고려도경'의 한 구절을 딴 전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은 대체로 '자연의 미', '투박하고 가공하지 않은 순수의 아름다움' 정도이다. 이 전시는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 발상의 전환이었다. 뿐만 아니라 '세밀함의 극치' '초정밀의 세계' '최고의 하이테크'의 기술을 직접 볼 수 있는 전시였다. '고려도경'에서 '세밀가귀'를 나타낸 것은 '나전(羅甸)이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인 경함은 천복겹질(天福重質)을 0.3mm 두께로 갈아, 폭 2-3mm, 길이 5-6mm 조각 2-3만개를 연속된 꽃 무늬로 전체를 장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와 조선의 나전 이외에는 찾을 수 없다. 서궁은 이를 '세밀가귀(細密可貴)라 했는데, '가늘고 정밀한 것은 귀하게 봐 줄만하다' 정도로 '고려도경'에서 다른 항목들을 설명할 때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시 송나라의 것보다 우수하거나 좋은 것들은 기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송 휘종의 엄명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기록은 하되 '부정적인 표현'으로 서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거대한 규모의 크기를 서술할 때는 단지 높이가 그러하다는 정도였다. 예를 들어 32m 이상의 신기(新基)와 동쪽으로 주조한 번간(樊干), 60m 이상 높이의 광통보제사 등의 서술에서는 몇 장차 몇 백 척차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만 기록했다. 하지만 고려의 정궁인 회경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에 대한 정보는 없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들어갔다는 내용만을 적었다. 서궁이 본 고려의 궁전은 고려불화에 보이는 극도의 화려함이었겠지만, 위치 정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다.

하지만 송나라 황제가 하사한 물품을 보관하는 정국안화사에 대해서는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전 과정과 주변의 모습, 가람의 배치와 건물들에 대해 극도로 상세하게 묘사했다. 또한 그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쓴 표현은 '다동(多動)이다. 고려에는 동(銅)이 많다는 것이다. 서궁이 '고려도경'에 묘사한 기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銅)이고, 고려사람들은 이러한 동기를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적 사용한다고 적었다. 동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동과 주석이 필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동(銅)의 주산지는 일본이고, 주석의 주산지는 말레이시아이다. 중국은 당나라 이전부터 극심한 동(銅)부족을 겪고 있었고, 서궁이 살았던 북송 역시 그러했다. 고려의 동(銅)은 중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당시 일본과 말레이시아 말고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동기가 고려에서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넘쳐났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동(銅)의 공급지인 일본과 말레이시아의 주석은 천주(天州) 상인집단을 결합한 교류의 허브(Hub)가 고려였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궁은 '옛 사서에 따르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고 기록했다. 이것은 중국의 『위서(魏書)』에서 『수서(隋書)』까지 고구려편에 반복해서 인용되는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潔淨自好)는 구절을 말하는데,7) 그 역시도 고려 사람들의 모습이 옛 역사기록과 다르지 않음을 언급했다. 그는 '고려 사람은 항상 중국인이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每笑中國人多垢膩)'고 했는데,8) 이 역시도 고려-조선을 넘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중국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서궁이 개경에 체류한 시기는 양력으로 환산해 보면 7월 7일에서 8월 6일까지로 여름에서도 가장 더운 때였다. 그는 '고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두 번씩 목욕을 한다. 흐르는 시냇물에 많이 모여 남녀 구별 없이 모두 의관을 언덕에 놓고 물구비를 따라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기록했다.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1980년대까지도 남녀 노소가 여름에 개천이나 계곡에서 벌거벗고 먹 감는 풍속은 일상적이었다. 그러나 남녀노소가 모두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고,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연소자는 각기 장소나 시간을 달리하여 먹을 감았다. 생활 속의 전통은 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우리 곁에 있다.

3. 잊혀진 '황금시대'의 기록

고려도경은 1123년 중국의 송나라에서 국력을 기울여 만든 최고급의 자료이다. 더욱이 전승을 통해 가뿔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1차 사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고려시기 연구자들의 주 텍스트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엄밀히 말해서 조선 초에 가공된 2차 사료이다. 『고려도경』은 1차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오류가 지적되면서 사료로서 평가절하되면서 그리 주목받지 못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그러하다. 여기에는 『고려도경』에서 나오는 것이 유일한 사례인 것이 적지 않고, 상당부분은 현재로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세밀하게 분석해보면, 새롭게 밝혀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 해로(海路)는 실제의 해양 답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가능하다. 또한 여러 기물들의 경우, 서궁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를 재고, 액체 등의 내용물을 넣어 용량을 확인하거나, X-ray로 촬영한 데이터의 체적을 계산해 그가 했던 작업을 검증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고려도경』이라는 자료는 역사학에서 그리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적지 않지만, 개별 항목들이 그림으로 표현해 설명이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이 없어진 『고려도경』은 그리 쉬운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고려도경』은 작성과 보고의 책임을 맡은 서궁 개인이 하나하나 조사한 것이 아니라 송 휘종이 선발한 58명의 전문가집단이 치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제공한 내용을 서궁이 종합하여 정리해 보고한 자료이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 개인이 건축, 의상, 공학, 해양, 공예, 미술, 사상, 의례 등의 분야를 총괄하여 분석해 종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이 책 자체가 '박물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 이를 모두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고려 건국 1,100년, 경기 설치 1,000년에 『고려도경』이 갖는 의미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고려의 실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려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려청자, 8만대장경, 금속활자, 고려불화, 고려사경, 고려나전, 은입사 등은 대부분이 무신집권 이후 원간섭기와 고려말의 유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고려라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등 국력 극도로 쇠약해진 시기의 유물이다. 그렇다면, 최강의 거란군을 물리치고, 동아시아의 허브로서 대외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100여년간의 '황금시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불행하게도 『고려사』에는 여진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조공에 대한 기사 외에

거의 전무에 가까운 정도로 기록이나 유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유일한 기록이 『고려도경』이다. 『고려도경』은 잊혀진 '황금시대'의 흔적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32m 이상의 신기^{神基}와 동^東으로 주조한 번간^{辨干}을 통해 전국에 산재한 거대한 당간지주의 용도와 당시 건물들의 규모와 변성함을 추론하게 한다. 또한 60m 이상 높이의 광통보제사에 대한 기록은 편린으로 전하는 평양^{平壤}의 금탑 등 각지에 산재한 유사한 높이의 거대 건축물들의 실재를 알려준다. 고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은 무신집권기나 원간섭기에 처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8만대장경처럼 '황금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을 다시 만들거나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고려도경』에서 강조하는 '다동^{多動}'은 '황금시대' 고려의 부^富를 알려준다. 하지만 이는 서금이 비판적인 기사의 사이사이에 남겨놓은 조각의 기록을 통해 '황금시대'를 구가했던 고려를 엿 볼 수 있을 뿐이다.

『고려도경』은 이방인의 눈에 비친 'Pax Coreana'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1) 當梁之龍德二年爲海軍統帥王建所殺 建自立去大封之名 復稱高麗 以開州爲東京 平壤爲西京 吳天祚二年當晉之天福元年 敗新羅·百濟 於是倭·耽·浮羅·於羅·鐵勒 東夷諸國皆附之(『南唐書』卷18 浮屠契丹高麗列傳第15)；王武者 王建之子 本國中大族 國中推而爲主 有智勇 兵力日盛 以兵并三韓百濟之地 東夷君長 最爲雄盛(『五代會要』卷30 高麗)

2) 『고려사』 권 25 세기 25, 원종 원년

3) 『고려사』 권 94 열전 7, 하공진

4) 『고려사절요』 현종 7년(1016) 1월

5) 『고려사』 현종 10년(1019) 8월

6) 개성부는 당시 수도였던 開京에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박용운의 연구에 따르면, 문종 16년(1062)의 관제 개편으로 開城府에서는 경기 12縣만을 관할하였으며 개경은 관할하지 않았는데, 개성부가 자리잡은 開城縣은 현재의 개풍군 서면 개성리에 해당한다(박용운, 1996 『고려시대 開京 연구』, 일지사, 69-70쪽).

7) 『魏書』卷100 列傳 第88 高句麗；『南史』卷79 列傳第69 高句麗；『北史』卷94 列傳第82 高句麗；『隋書』卷81 列傳第46 高麗

8) 『고려도경』 권23 집속2

도판 목록

1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본
宣和奉使高麗圖經 初版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
송(宋) 1167년
대안고궁박물관

2
선화봉사고려도경 초판 영인본
宣和奉使高麗圖經 初版影印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Replica)
송(宋) 1167년 | 26.1×16.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
선화봉사고려도경 지부족재본
宣和奉使高麗圖經 知不足齋本
Seonhwabongsa Goryeodogyeong
(Woodblock-printed Book)
정(淸) 1774~1823년 | 19.2×11.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
척경입비도
拓境立碑圖
조선 후기
고려대학교 박물관

5
휘종 어진
徽宗 御眞
대안고궁박물관

6
고려사 권17
高麗史 卷十七
Goryeo History Book vol.1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7
인종 장릉 출토품
仁宗 長陵 出土品

8
'황비창천'이 새겨진 거울
煌丕昌天鏡
Bronze Mirror with Inscription of
'煌丕昌天'
고려 | 지름 17.2
소장 1945

9
신주와 객주 모형
神舟 客舟 模型
현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0
개경의 역사를 쓴 책 송경지
松京誌
songgyeongji
조선 1830년 | 32.0×20.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1
송경목원도
松京福眞圖
Songgyeongpokwondo
조선 1830년 | 32×40.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2
개성전도
開城全圖
조선 1872년 | 35.8×25.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3
송도기행첩
松都紀行帖
조선 1757년 전후 | 김세환 작
국립중앙박물관

14
송경성내도
松京城內圖
Songgyeongseongnaedo
조선 1830년 | 32.0×40.2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15
전 개성 출토 기와와 전돌
傳開城出土瓦磚
Roof-tile and Brick
고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도래비 앞골무늬 수막새
지름 14.0~15.0, 두께 1.1~2.3

해무리무늬 수막새, 암막새
가로 23.5~27.2, 두께 1.4~2.0

전돌
가로 15.7~20.1, 세로 3.8~7.3,
깊이 6.9~14.0

16
막새기와
瓦瓦當, 平瓦當
Roof-end Tile
고려
수막새 - 지름 8~8.4cm,
길이 25~25.9cm
암막새 - 가로 17.9~18.6cm,
길이 11.4~14.5cm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7
청자 기와
靑磁瓦
Celadon Roof-tile
고려 | 길이 26.5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8
세발 달린 향로
靑銅三足香爐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11~12세기 | 높이 34.0
소장 6849

19
청동 사자 향로
靑銅獅子香爐
Bronze Lion-shaped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3, 지름 14.6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20
청자 기린 향로
靑磁麒麟香爐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 높이 18.5, 지름 16.3
영자대학교 박물관

21
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文盃 蓮托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um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14.3
소장 3010

22
청자 물잔
靑磁角杯
Celadon Horn Cup
고려 12세기 | 길이 17.5
소장 3267

23
얼굴무늬 기와
人面瓦
Roof-tile with Human Face Design
고려 | 화 } 10.5 인성 봉합사지
우 } 14.7 영달 홍교사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4
(청명상하도) 부분
淸明上河圖 部分
북송(北宋) 1120년 경
북경고궁박물관

- 25
아집도 대련
靑象圖 對聯
고려 1371년 | 139.0×78.0
리용미술관
- 26
청자 변기
靑磁便器
Celadon Chamber Pot
고려 12~13세기 | 49.0×20.0
인천광역시박물관
- 27
청자 음각 연꽃무늬 병
靑磁陰刻蓮花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Lotus Flower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31.5
인천광역시박물관
- 28
청자 국화무늬 베개
靑磁象嵌菊花文枕
Celadon Pillow with Inlaid Chrysanthemums Design
고려 13세기 전반
길이 24.4, 높이 9.8, 폭 11.7 소장 5134
- 29
청자 상감 꽃 새 무늬 의자
靑磁象嵌花鳥柳文椅
Celadon Stool with Inlaid Flower Bird and Willow
고려 13세기 | 높이 41.6, 입지름 30.8
소장 5348
- 30
청자 철화 난간기둥
靑磁鐵畫欄柱
Celadon pole
고려 12~13세기 | 높이 55.0 입지름 17.5
영지대학교 박물관
- 31
청자 화분
靑磁花盆
Celadon Flowerpot
고려 12세기 | 높이 24.0 입지름 30.0
국립중앙박물관
- 32
청자 상감 국화무늬 수반
靑磁象嵌菊花文水盥
Celadon Basin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7, 입지름 30.5
소장 4810

- 33
장생무늬 은입사 수반
銅製銀入鉢長生水盥
Bronze Basin with Silver-inlaid Longevity Symbols Design
고려 | 높이 10.0 입지름 28.5
가천박물관
- 34
금은 입사 잔
羅製金銀入鉢盃
Iron Cup with Gold and Silver Inlai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5.4 입지름 9.7
가천박물관
- 35
'풍'자 모양 벼루
牡丹文風字硯
Inkstone Shaped like the Chinese Character "風[Feng]"
고려 12세기 | 11.0×6.4×2.6
소장 3056
- 36
'단산오옥'이 새겨진 먹
丹山烏玉銘墨
고려 | 11.2×4.0
국립청주박물관 | 보물 제1800호
- 37
윤연식 묘지명
尹彦禧 墓誌銘
Epitaph of Yun Eon-sik
고려 1149년 | 45.5×55.5×2.0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 38
삼국사기
三國史記
고려 1145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39
강민첩 초상
姜民澈 肖像
조선 1788년
국립중앙박물관 | 보물 제588호
- 40
수베개(재현품)
繡枕(再現品)
Pillow(Recreation)
- 41
청자 상감 국화무늬 합
靑磁象嵌菊花紋子盒
Celadon Covered Boxes
고려 13세기 | 전체높이 2.8, 입지름 4.4
아오레파사미술관

- 42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합
靑瓷象嵌雲鶴紋母子盒
Celadon Covered Boxes
고려 13세기 | 높이 6.1, 입지름 12.5
아오레파사미술관
- 43
화장도구
化粧具
Cosmetic Tool
고려 | 길이 11.4
아오레파사미술관
- 44
청자 상감 국화무늬 향합
靑磁象嵌菊花文香盒
Celadon Incense Covered Box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1, 입지름 7.0
소장3152
- 45
청자유병
靑磁油瓶
Celadon Oil Bottles
청자 철화 난물무늬 유병
靑磁鐵畫唐草文油瓶
Celadon-glazed oil bottle with a Scroll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12세기 | 높이 6.1 | 소장 92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유병
靑磁象嵌雲鶴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4.9 | 소장 2984
청자 상감 구름무늬 유병
靑磁象嵌雲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loud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6.0 | 소장 96
청자 상감 꽃무늬 유병
靑磁象嵌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Flower Design
고려13세기 | 높이 4.2 | 소장 3154
청자 철화무늬 유병
靑磁鐵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고려12세기 | 높이 3.8 | 소장 4826
청자 상감 국화무늬 유병
靑磁象嵌菊花文油瓶
Celadon Oil Bottle with Inlaid Chrysanthemum Design
고려14세기 | 높이 4.2 | 소장 2190
- 46
쌍용무늬 거울
雙龍文銅鏡
Bronze Mirror with Twin Dragon Design
고려 | 지름 26.0
소장 2935

- 47
십이지산이 새겨진 거울
十二支銅鏡
Bronze Mirror with Twelve Earthly Branches
고려 | 지름 17.5
소장 7224
- 48
용 나무 전각 무늬 거울
靑銅龍樹雕文銅鏡
Bronze Mirror with Figures and Pavilion in a Landscape
고려 | 지름 18.0
소장 6874
- 49
종 모양 거울
鐘形銅鏡
Bronze Bell-Shaped Mirror
고려 | 길이 20.0
소장 2892
- 50
(문화도) 부분
文會圖 部分
복송(北宋)
대한 국립고궁박물관
- 51
청동 주전자
靑銅酒子
Bronze Jar
고려 | 높이 36.0 내비 13.9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 52
찾잔 투경(재현품)
銅河(再現品)
Silver lid(Recreation)
고려 | 지름 13.0
개인소장
- 53
청자 잔
靑磁盃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4.5 입지름 12.4
소장 371
- 54
청자 양각 연꽃잎무늬 잔
靑磁陽刻蓮瓣文盃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Petal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2, 입지름 8.2
소장 2187
- 55
청자 잔
靑磁盃
Celadon Cup
고려 12세기 | 높이 8.7, 입지름 9.5
소장 2182

56

청자 음각 영무무늬 대접

靑磁陰刻鸚鵡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6, 입지름 17.6
소장 2473

57

청자 양각 연꽃무늬 대접

靑磁陽刻蓮花文大椀
Celadon Bowl with Carved Lotus Flower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7.9, 입지름 17.7
소장 3110

58

청자 음각 국화 낭물 무늬 대접

靑磁陰刻菊蕩草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cised Chrysanthemum and Scroll Design
고려 | 높이 7.6, 입지름 17.7
소장 2185

59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주전자

靑磁象嵌雲鶴文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남은 높이 20.0
국립중앙박물관

60

청자 음각 영무무늬 주전자

靑磁陰刻鸚鵡文酒注子
Celadon Ewer with Incised Parrot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5.7
소장 3181

61

청자 상감 표주박모양 주전자

靑磁象嵌菊花文瓢形酒注子
Celadon Gourd-shaped Ewer
고려 13세기 | 높이 34.8
소장 5015

62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주전자

靑磁象嵌雲鶴文酒注子
Celadon Ewer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17.7
소장 4822

63

청자 음각 모란무늬 병

靑磁陰刻牡丹文瓶
Celadon Bottle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26.6
소장 5131

64

청자 음각 모란무늬 완

靑磁陰刻牡丹文碗
Celadon Cup with Incised Peony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5, 입지름 10.6
소장 3109

65

청자 음각 국화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文盞·盞托
Celadon Cup and Stand With Chrysanthemum Design
고려 12세기
잔 높이 6.4, 입지름 7.0,
받침 높이 5.4, 입지름 14.7
소장 2481

66

청자 용머리 손잡이 잔

靑磁龍頭形把手附盞
Celadon Dragon Head-shaped Cup
고려 13세기 | 높이 4.0, 입지름 8.3
가천박물관

67

백자 향합

白磁香盒
White Porcelain Incense Case
고려 12세기 | 전체높이 8.2, 지름 12.0
소장 5014

68

청자 향합

靑磁香盒
Celadon Incense Case
고려 12세기 | 높이 4.3, 입지름 8.7
소장 2847

69

청동 향완

靑銅香碗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9.0, 입지름 18.3
소장 2499

70

백자 향완

白磁香碗
White Porcelain Incense Burner
고려 11세기 | 높이 18.0, 입지름 13.4
소장 5025

71

'상악국'이 새겨진 청자 합

靑磁陰刻尙藥局銘盒
Celadon Covered Box with Incised Inscription of "尙藥局"
고려 12세기 | 높이 9.6, 지름 7.0
한국의학박물관

72

'향약봉위'가 새겨진 질그릇

香藥奉位銘陶器
Earthenware Inscription of "香藥奉位"
고려 | 높이 11.2
소장 5138

73

거북모양 악마석

龜形藥磨石
Tortoise-shaped Triturator
고려 | 높이 18.0, 너비 33.0
한국의학박물관

74

쇠솥

鐵鍋
Iron Caldron
고려 | 높이 33.0, 너비 27.0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75

청동항아리

靑銅大甕
Bronze Jar
고려 | 높이 55.0, 입지름 45.0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76

청동 합

靑銅盒
Bronze Covered Boxes
고려 | 가운데 위 높이 16.5, 지름 15.5
소장 709, 715, 1602, 1779

77

청동 입 큰 병

靑銅大口瓶
Bronze Bottle
고려 | 높이 28.4, 입지름 9.8
소장 706

78

술가락, 젓가락

靑銅匙箸
Bronze Spoon, Chopsticks
고려 | 최대길이 28.7
소장 630, 704, 1711

79

큰 독

陶器甕
Earthenware Big Jar
고려 | 높이 62.0, 입지름 34.5
안성 봉암사지

80

동이

陶器甕
Earthenware Jar
고려 | 높이 30.5, 입지름 49.7
안성 봉암사지

81

시루

陶器甗
Earthenware steamer
고려 | 높이 8.0, 입지름 12.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82

매병

陶器梅瓶
Earthenware Prunus Vase
고려 | 높이 30.7
소장 2243

83

청자 참외모양 주전자

靑磁瓜形注子
Celadon Melon-shaped Ewer
고려 12세기 | 높이 19.1
소장 4819

84

청자 음각 꽃무늬 잔, 받침

靑磁陰刻菊花折枝文花瓶盞·盞托
Celadon Cup and Stand
고려 12세기
잔 높이 7.4, 입지름 9.2, 받침 높이 4.9
소장 4997

85

청자 양각 대나무모양 완

靑磁陽刻竹節文碗
Celadon Bowl with Carved Bamboo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6.0, 입지름 11.5
소장 3149

86

청자 접시

靑磁碟
Celadon Dish
고려 12세기 | 높이 2.7, 입지름 10.3
소장 4817

87

청자 접시

靑磁碟
Celadon Dish
고려 12세기 | 입지름 10.1
국립중앙박물관

88

청자 꽃모양 접시

靑磁花形碟
Celadon Flower-shaped Dish
고려 12세기 | 입지름 17.6
국립중앙박물관

89

청자 철화 모란무늬 병

靑磁鐵畫牡丹文瓶
Celadon Bottle with Peony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2세기 | 높이 26.1
소장 3241

90

청자 철화 물무늬 매병

靑磁鐵畫草文梅瓶
Celadon Prunus Vase with Grass Design in Underglaze Iron-painted
고려 11세기 | 높이 26.5
소장 5125

91
청자 상감 물가 풍경 무늬 편호
靑磁象嵌柳水禽鶴文扁罐
Celadon Flattened Jar with Inlaid Willows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 높이 32.4, 입지름 10.5
소장 6471

92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완
靑磁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8.5
소장 3238

93
청자 상감 구름 학 무늬 완
靑磁象嵌雲鶴文碗
Celadon Bowl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7.5
소장 2475

94
청자 상감 버들 물새 무늬 대접
靑磁象嵌蒲柳水禽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Willow and Waterfowl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20.0
소장 4998

95
청자 상감 모란무늬 대접
靑磁象嵌牡丹文大椀
Celadon Bowl with Inlaid Peony Design
고려 13세기 | 입지름 19.0
소장 3584

96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Water-Moon Avalokitesvara
비단에 채색 | 고려 14세기 | 106.2×54.8
아모레퍼시픽미술관 | 보물 제1426호

97
대방광불화엄경 권 제1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一
First Tripiṭaka Korean, The Avatamsaka Sutra, Vol 1
고려 11세기 | 길이 1223.5
소장 3483 | 국보 제256호

98
대반야바라밀다경 권575
大般若波羅蜜多經 卷五百七十五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 Vol 575
고려 1048년 | 세로 25.0
소장 6832

99
교장
教藏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Vol 1
고려 12세기 | 30.3×16.5
소장 5283

100
묘법연화경 권 제2
紺紙銀泥妙法蓮華經 卷第二
Hand-copied Lotus Sutra in silver on Indigo Blue Paper Vol.2
고려 14세기 | 31.5×375.0
소장 5284

101
쌍사자 모양 촛대 가동
雙獅子光明臺柱
Bronze Candle Stand Pillar Part with a Pair of Lion
고려 | 높이 17.0
소장 2842

102
청동 촛대
靑銅光明臺
Bronze Lamp Stand
고려 | 높이 39.7, 40.0
소장 6850, 6851

103
청동 촛대
靑銅燭臺
Bronze Candle Stand
고려 | 지름 20.0
소장 724

104
청동 걸이 향로
靑銅懸掛香爐
Bronze Hanging Incense Burner
높이 20.5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105
청동 향완
靑銅香碗
Bronze incense burner
고려 | 높이 14.0
소장 2500

106
석관
石棺
Stone Coffin
고려 | 높이 35.0, 길이 95.0, 폭 50.0
소장 4659

107
옹관
甕棺
Earthenware Coffin
고려 12세기 | 높이 57.0
안성 매산리 고분

108
거란의 연호가 새겨진 기와 조각
遼年號銘 瓦片
Roof-tile with Inscription
고려 1113년
좌 10.7×9.7,
우 10.7×9.7
안성 진천사지
좌 30.6×15.6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09
송나라 연호가 새겨진 기와 조각
宋年號銘 瓦片
Roof-tile with Inscription
고려 1017년
좌 9.8×7.7
천연 봉선출경사지
우 12.6×8.5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10
송녕종보
宋寧重寶
Chinese Coins
송(宋) 1102~1106년 | 지름 3.5, 무게 9g
안성 봉업사지

111
선화통보
宣和通寶
Chinese Coins
송(宋) 1119~1125년 | 지름 3.0, 무게 8.1g

112
옹장이 쓰여진 질그릇 조각
石缶銘陶器片
Earthenware Fragment with Inscription
고려 | 길이 14.5
안성 봉업사지

113
자
尺
Ruler
고려 | 2.7×51.0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14
저울추
秤
Weight
고려 좌 높이 9.4, 무게 528g
우 높이 9.1, 무게 726g
안성 봉업사지

115
청자 기린 모양 향로
靑磁麒麟形香爐
Celadon Kirin-shaped Incense Burner with Lid
고려 12세기 | 전체높이 20.9,
뚜껑 높이 12.0 | 입지름 12.2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16
청자 주전자, 송반
靑磁注子-承盤
Celadon Ewer
고려 12세기 주자 높이 26.0,
송반 높이 14.8 | 입지름 17.5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117
청자 양각 모란 넝쿨 용 무늬 매병
靑磁陽刻牡丹草龍文瓜形梅瓶
Celadon Prunus Vase with carved Peony Scrolls and Dragons Design
고려 12세기 | 높이 37.9
국립중앙박물관

118
청자 사자 모양 향로
靑磁獅子形香爐
Bronze Candle Stand
고려 12세기
호암박물관

119
은제 도금 잔, 받침
鍍銀鍍金托盃
Gilt Silver Cup and Stand
고려 12~13세기
전체높이 9.2, 전체지름 14.7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20
장도집
金製刺
Knife Case/Scabbard
고려 12세기 | 길이 21.8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21
금동 팔찌
金銅製臂釧
Gilt-Bronze Bracelet
고려 12~13세기 | 지름 8.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22
표주박 모양 병
金銅製角文甁形瓶
Gourd-shaped Bottle
고려 | 높이 7.7
아모레퍼시픽미술관

123
중국제 도자기
中國製陶器
China Ceramics
송(宋)
좌 높이 5.0, 입지름 10.0 | 안성 매산리 고분
우 높이 5.5, 입지름 13.0 | 안성 봉업사지

124
해동역사(속편)
海東譯史(續編)
Haedong yeoksa(Sequel)
조선 1823년
실학박물관













고려도경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Goryeodogyeong A Visit to K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



디자인 FORN
아트디렉터 최창호
북디자인 박정신 심혜경
제작 인쇄 JB D&P

초판인쇄 2018년 08월
초판발행 2018년 08월

발행인 경기도박물관
발행처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TEL 031-288-5300 FAX 031-288-5379
<http://musenet.ggcf.kr>

비매품

ISBN 978-89-999-0129-4 03910

©경기도박물관 2018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모든 내용 및 자료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박물관의 승인을 통한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복사 또는 전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8 by Gyeonggi Provincial Museum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 Ⅲ



Goryeodogyeong

A Visit to Korea by a Chinese Envoy 900 Years Ago